

1년 1독 통(通) 성경읽기를 통한 신앙성장에 대한 연구

이리어양교회 사례 연구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 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윤광석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16년 5월

Copyright © 2016 Kwangseog Yun

All rights reserved.

## ABSTRACT

A Study on Faith Growth through One Year Reading of Tong Bible: A Case Study of  
Eoyang Church, Jeollabuk-do, Korea

Kwangseog Yun

Iri Eoyang Church, Jeollabuk-do, Korea

Several scholars have done a study on a relationship between spiritual maturity and the Bible reading. One of the factors to predict spiritual growth of a person was his or her reading habit of the Bible. Although one reads the Bible regularly, the patterns of reading the Bible has been partial and biased in terms of focusing on verses and points. This way of reading the Bible has limitations and problems since it does not encourage one to see the whole picture of the Bible.

This project presented Tong Bible of Byoungcho Zoh for an alternative method to deal with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a traditional way of reading the Bible. Tong Bible advocates one to read the Bible as one story not fragmented parts. Tong Bible is also to lead one to read Bible in the order of history. Most importantly, it helps readers to grasp the mind of God in the Bible.

This project suggests <Reading the Tong Bible Once a Year> for an effective tool to proceed reading the Bible in a real pastoral scene of the Church. This study is based on case studies of Iri Eoyang Church that prescribed the Bible in the range of 365 days a year and implemented reading the Tong Bible once a year.

The congregation of Iri Eoyang Church who participated in the project became to recognize the value of the Bible. And they came to be aware of a need to read the Bible

daily. They valued the Bible as ‘the bread of life’ and ‘the manna of soul’ as the food of soul and they read the Bible every day. As a result, those who had given up reading the Bible once became to read the whole Bible again.

The participants of this project in Iri Eoyang Church understood the whole Bible as a story and preached the gospel with stories to other people. They became to read the Bible in the order of history. As the sacred citizens of the kingdom of God, they became to give rise to practical religious persons who win the temptation of sin. Trying to read the mind of God, they are feeling of Jesus Christ and are working hard to live a life that is consistent with the will of God despite of anger and destructive ideas, feelings of despair and sadness in environments. I believe this project would offer new alternatives to the churches of 21st century regarding faith growth through reading the Bible.

## 국문초록

1년 1독 통(通) 성경읽기를 통한 신앙성장에 대한 연구  
이리어양교회 사례연구

윤광석

이리어양교회, 전라북도

성경읽기와 영적 성숙에 대한 연구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그리고 영적 성장을 예측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가 매일 성경읽기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동안 성경읽기는 부분적이고도 편향적인 성경읽기의 방법이었다. 이러한 성경의 편향적 읽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한계와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다.

본 논문은 장르별 성경읽기와 맥체인 성경읽기 그리고 연대기 성경읽기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조병호 박사의 통통 성경읽기의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통통 성경읽기란 부분이 아닌 전체를 읽는 것, 역사순으로 읽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다.

이 연구는 실제 교회의 목회현장에서 성경통독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1년 1독 성경통독>을 제시하였다. 성경 66 권을 1년 365 일로 범위로(를) 정하여서 통통 성경읽기의 방법을 실행한 이리어양교회의 사례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리어양교회 프로젝트 실행에 참여한 성도들은 성경의 가치를 인식하고 성경읽기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성경을 ‘생명의 떡’이요, ‘영혼의 만나’인 영의 양식으로 삼아 매일 성경을 읽게 되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1년 1독

성경통독>을 진행한 결과 그 동안 중도에 성경읽기를 포기했던 성도들이 성경 전체를 끝까지 통독하게 되었다.

이리어양교회 1년 1독 성경통독 프로젝트 실행에 참여한 성도들은 성경전체를 이야기로 이해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로 전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역사순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는 실천적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분노와 파괴적인 생각, 절망과 슬픔이 일어나는 환경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고자 힘쓰고 있다. 본 논문은 성경읽기와 신앙성장에 대하여 21세기 교회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 목 차

감사의 글 .....	x
표 목차 .....	ix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	1
연구의 의의 .....	8
연구의 범위와 방법 .....	9
II. 성경읽기와 신앙성장 .....	10
성경읽기의 필요성 .....	10
성경읽기와 영적 성장 .....	18
1년 1독의 유익 .....	21
III. 통통 성경읽기의 이해 .....	28
통(通)의 개념 .....	28
통(通) 성경읽기란? .....	31
통(通) 성경읽기와 통찰 .....	48
IV. 프로젝트 실행과정: 이리어양교회 CLS(Congregation Life Style) 통(通) 시스템 53	
교회에서 .....	56
가정에서 .....	65
세상에서 .....	71
V. 결과분석: 통(通) 성경읽기에 대한 이리어양교회 성도들의 신앙성장 이야기 .....	77
교회가 하나 되었다 .....	84

삶이 변화되고 신앙이 성장하였다 .....	87
성경이야기로 전도가 가능해졌다 .....	90
<b>VI. 결론</b> .....	93
요약 및 평가 .....	93
결론 및 제언 .....	95
<b>부록</b> .....	96
<b>참고 문헌</b> .....	142

## 표 목차

<표1> 통(通)성경 7 Track 40 줄기 .....	37
<표2> 구약성경의 역사 순서 배열 .....	41
<표3> 신약성경의 역사 순서 배열 .....	43
<표4> 통(通)성경 20마당 하나님의 마음 .....	46
<표5> 말씀대행진과 일년일독 성경통독표 .....	53
<표6> CLS(Congregation Life Style) 통(通) 시스템 .....	55
<표7> CLS(Congregation Life Style) 통(通) 시스템 방법 .....	55
<표8> 역사순 365일 1년 1독 성경통독 매일 성경읽기표(1~3월) .....	58
<표9> 역사순 365일 1년 1독 성경통독 매일 성경읽기표(4~6월) .....	59
<표10> 역사순 365일 1년 1독 성경통독 매일 성경읽기표(7~9월) .....	60
<표11> 역사순 365일 1년 1독 성경통독 매일 성경읽기표(10~12월) .....	62
<표12> 소그룹모임 주제 및 주간 통독범위 .....	68
<표13> 1년 10번 듣기 일정표 .....	73
<표14> 익산시 종교단체 현황 .....	79
<표15> 익산시 인구추이 .....	80

## 감사의 글

논문을 쓰기 시작하며 끝이 보이지 않았던 시간, 날을 새며 반 어두움과 싸워야 했던 시간이 엇그제 같았는데 어느새 이렇게 감사의 글을 쓸 수 있는 시간이 되어 기쁩니다. 뒤돌아보면 지나온 사역의 모든 발자취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낌없는 사랑과 열정적인 가르침으로 지도해 주신 조병호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저에게 <역사순 일년일독 통독성경>은 큰 도전과 비전이 되었습니다. 또한 어려움 속에도 박사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늘 칭찬과 격려로 이끌어주시고 논문을 완성 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희망이 되어 주신 김영래 박사님과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을 제시해 주신 레너드 스윗 박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리어양교회 장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처럼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부흥하기를 소원하며 섬기는 장로님들, 또한 일년일독 성경통독이 교회 안에 정착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순종해 주신 성도들께도 감사드리며 부족한 종이 학업에 힘쓸 수 있도록 물심양명으로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의 목회 사역을 위해 뒤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기도하시는 부모님과 항상 곁에서 힘이 되어 주는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니며, 일년일독 성경통독을 통해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며,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저도 헌신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기까지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리며 감사의 글을 마칩니다.

2016년 4월 29일 윤광석

## 제 I 장

### 서 론

#### 연구의 목적

1517년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타락한 중세 가톨릭 교회를 향하여 ‘성경으로 돌아가자’ 라고 선언했다. 개신교는 교회의 생명은 ‘오직 성경(*Sola Scriptura*)’ 에서 나오고, 구원은 ‘오직 은혜(*Sola Gratia*)’와 ‘오직 믿음(*Sola Fide*)’ 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성도의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Soli Deo Gloria*)’ 이어야 한다는 신앙 위에 세워졌다. 특히 ‘오직 성경(*Sola Scriptura*)’ 은 종교개혁의 근본정신이기도 하다. 종교개혁 이후에도 개신교는 교회의 타락과 신앙의 위기가 올 때마다 계속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라고 선언하고 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는 근본주의(*fundamentalism*)자들이 자유주의(*Liberalism*)자들을 향해 ‘성경으로 돌아가자’ 라고 말했다. 20세기 중반부터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신정통주의(*neo-orthodoxy*)자들에게 ‘성경으로 돌아가자’ 라고 말했다. 1977년부터는 보수주의(*Conservatism*)자들이 비보수주의자들에게 ‘성경으로 돌아가자’ 라고 말하였다. 최근 21세기에는 박종천과 조병호를 중심으로 복음을 상대주의와 다원주의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속에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고 선언했다.<sup>1</sup>

---

<sup>1</sup> 조병호, *성경을 통한 재정향(Reorientation): 한국 신학자 140인 서울 선언 2008*(서울:

우리는 여기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선언 속에 전제된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성경의 무오성과 절대권위성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가자는 선언이다. 오늘날 신학적으로 진정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쟁점은 성경의 정경에 관한 문제다. 성경 정경의 확정은 교회의 외적 권위를 성경에다 부여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인가, 아니면 성경이 본래 지닌 권위를 교회가 인정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인가? 앞쪽의 견해는 주로 가톨릭 신자들에게 인기가 있으며 반면에 뒤쪽의 견해는 개신교 학자들이 주장한다.<sup>2</sup> 가톨릭은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를 더 인정하는 반면 개신교는 교회의 성경의 권위를 더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 시대의 교회 위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고백이 흔들리는 것과 교회의 정경으로서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존 맥아더는 마틴 로이드 존스의 ‘이터너티(Eternity)’라는 잡지에 실린 1950년대 교회 상황에 대한 기사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성경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설명하였다. 고등비평적 견해를 갖기 시작한 18세기 중반부터 성경의 권위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19세기에 발전한 “자유주의 운동”은 성경이 오류로 가득하고 사람에 의한 저작이며 셰익스피어나 롱펠로의 작품들 이상의 권위를 지니지 않는 책으로 보았다. 20세기에는 신정통 주의자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함으로써 “성경은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부분적으로는 사람의 말이다”라는 입장이었다.<sup>3</sup>

---

통독원, 2008), 6. 부록 I 참조.

<sup>2</sup> Alister E. McGrath, *Christian Theology: An Introduction*, 김기철 역, *신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복있는 사람, 2015), 295.

<sup>3</sup> John MacArthur, *How to Get the Most From God's Word*, 김태곤 역, *성경 이렇게 믿어라*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4), 82.

우리는 ‘성경의 서지학 증거’<sup>4</sup>나 ‘성경 외적 증거’<sup>5</sup>를 가지고 증명하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다. 만약 서지학적 증거나 성경 외적 증거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명하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서지학이나 과학이나 역사 등으로 증명할 수 없으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게 되는데, 이는 진실이 아니다. 조병호는 다음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

예를 들면, 성경에 기록된 니느웨라는 도시를 증명할 만한 고고학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가 최근에 발견되었다고 해서, 니느웨가 전에는 허구적이며 신화적인 도시였다가 지금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도시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니느웨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원래부터 존재했지만, 인간이 뒤늦게 그 기록의 역사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찾은 것뿐입니다.<sup>6</sup>

결국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것은 다른 어떠한 증거와는 별개로 ‘믿음’ 그 자체의 문제이다. 성경을 성경으로써 증명하는 ‘성경의 진정성에 대한 내적 증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딤후 3:16a)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벧후 1:21)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 5:18)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 24:35; 막 13:31; 눅 21:33)

사람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다. 받아들이는 사람은 ‘오직 믿음’ 때문이고,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신·구약 성

<sup>4</sup> ‘성경 서지학 증거’란 성경을 일종의 도서로 보고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성경책과 관련된 번역본과 필사본 등을 찾아 연구하고, 증거물로 채택하고, 시기나 지리적인 범위를 고려하여 연구하는 것이다. 조병호, *쉬운성경통독* (서울: 통독원, 2008), 16.

<sup>5</sup> ‘성경 외적 증거’란 역사적 연구, 과학성 증명, 고고학적 연구를 통해 성경의 진실성을 밝혀내고 성경의 역사성을 확증한 외적증거가 성경이 진리임을 주장해 준다는 것이다. Ibid.

<sup>6</sup> Ibid., 17.

경 66권을 기독교 신앙의 유일한 정경으로 믿는 믿음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둘째, 성경의 진정한 본질로 돌아가자는 선언이다. 교회가 붙잡아야 할 본질은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이다. 무엇을 위해 성경을 주셨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5:39~40)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중심 열쇠이다. 존 스토틀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꼭 기억하라고 당부하면서 루터의 말을 인용하였다.

루터가 종종 말했듯, 성경은 아기 예수님이 누워 계신 구유 혹은 요람입니다. 요람을 살피느라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을 잊지 맙시다. 성경은 여전히 지혜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별입니다. 그렇다면 천문학적 호기심에 사로 잡혀 그 별이 인도하는 집을 지나치지 않도록 주의 합시다.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님을 못 보는 일이 없게 합시다.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석이 진열된 상자라고 한다면, 상자에 감탄해서 보석을 못 보는 일이 없게 합시다.<sup>7</sup>

레너드 스윗과 프랭크 바이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회복을 위한 대헌장 - 21세기 교회를 위한 예수 선언(A Magna Carta for Restoring the Supremacy of Jesus Christ A Jesus Manifesto for the 21st Century Church)을 발표했는데 “오늘날 교회가 앓고 있는 가장 심각한 질병은 예수 결핍 장애(JDD: Jesus Deficit Disorder)”라고 선언했다.

<sup>8</sup> 아울러 레너드 스윗은 2014년 1월 서울 한강호텔에서 열린 ‘렛츠 통

<sup>7</sup> John R. W. Stott, *The Bible: Book for Today*, 박지우 역, *성경이란 무엇인가* (서울: IVP, 2015), 52.

<sup>8</sup> 레너드 스윗, “美 저명학자 ‘21세기 교회를 위한 예수선언’ 발표” (국민일보 2009년 8월 5일). 선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회복을 위한 대헌장-21세기 교회를 위한 예수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스윗 교수의 홈페이지와 블로그([ajesusmanifesto.wordpress.com](http://ajesusmanifesto.wordpress.com)) 등에 올려져 있다. 부록II참조.

스크립투라(Let's Tong Scriptura)' 세미나 강연에서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진정한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소개했다.

“교회를 통틀어 모든 부흥(Revival)과 개혁(Reformation), 혁신(Renewal)에는 반드시 세 가지 요소가 있었다” 며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에서도 일어났던 일” 이라고 소개했다. 이 세 가지 중 첫째는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Return to the Bible)이다. 둘째는 이 성경이 그 문화에 속한 언어로 읽히는 것(Readed by their Culture)이고, 셋째는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발견하는 것(Rediscovery Jesus Christ)’ 이다. 그는 “빛줄이 서로 꼬여 있을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듯, 이 세 가지는 서로 긴밀하게 엮여 있다” 며 “이렇듯 서로 다른 두 가지를 보완하고 협력하면서 능력을 만들어내는 이 세 가지를 저는 삼위일체가 그리하듯 ‘성스러운 삼겹줄’ 이라 부른다” 고 말했다. 스윗 박사는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진정한 본질로 돌아가는 것으로, 여러분도 본질이 되길 원한다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보다 가장 원초적인 상태로 돌아가 그 속에서 새로움을 입어야 한다” 며 “이것이 가장 진정한 의미의 창조성으로, 우리 자신의 창조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 들어가는 것” 이라고 소개했다.<sup>9</sup>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교회의 생명을 회복하는 길이다. 성경의 진정한 본질로 돌아가려면 성경의 본래적 의미를 헤아려가고자 하는 노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박종천과 조병호는 “18세기 이후 성경에 대한 역사비평이 시작된 이래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신학자들은 성경적 기독교의 대속의 교리를 거부하고 십자가의 걸림돌을 회피하려 한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신학의 다른 터를 닦으려는 자들은 역사적 예수를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와 분리하려 한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균형 있게 인식하며,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고(마 7:21) 고난과 죽음으로써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sup>10</sup>라고 하였다.

<sup>9</sup> 레너드 스윗, “오순절 교회의 급성장, 기독교 제3의 물결” (크리스천투데이 2014년 1월 13일)

<sup>10</sup> 조병호, *성경을 통한 재정향(Reorientation)*, 6.

셋째,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매일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자는 선언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며 함께 관계를 이어나가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책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믿음의 크기가 결정된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기록된 성경을 읽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4)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두 가지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을 가르쳐 준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이 되게 하라는 것이다. 우리가 육신을 위해 매일 밥을 먹듯이 성경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매일 읽으라는 것이다. 매일 밥을 먹듯이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 또 하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다. 하나님 말씀을 부분만 읽지 말고 “모든 말씀” 즉 성경 전체를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기 때문에(잠언 30:5)<sup>11</sup> 어느 특정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매일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베뢰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 (사도행전 17:11)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는 것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로이드 존스는 그의 생애에 가장 영향력 있는 책은 성경이라고 말했다. 그에게 성경은 생명의 떡이요, 그의 영혼의 만나 일 뿐 아니라 그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데 지침서였다. 그는 성경을 철저히 연구했고 성경을 매일 읽었다. 그의 생애에 적어도 신약 110번 구약 55번 이상 읽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눈을 감기 바로 전날

---

<sup>11</sup>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잠 30:5).

에도 ‘성경읽기 표’에 따라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었다고 한다.<sup>12</sup> 하지만 한국교회는 그 동안 부분적이고도 편향적인 성경읽기를 해왔다. 이 같은 부분적이고 편향적인 성경읽기는 한국교회가 대체로 분석적이고 부분적인 관점을 취하는 서구의 신학을 별다른 비판 없이 전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성경의 편향적 읽기로 인한 여러 가지 많은 한계와 문제점들이 발생하였다. 성경이 시대 상황 해석에 도구화되는 폐단을 낳았다는 점이다. 시대적 상황과 현실 이데올로기에 따라 성경의 읽기 범위와 이해의 방향을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화됨으로써, 결국 하나님 말씀의 본뜻이 왜곡되고 기독교 본래의 가치가 퇴색되었던 역사적 실례들을 갖게 된 것이다.<sup>13</sup>

조병호는 이러한 편향적 성경읽기를 극복할 방법과 대안으로 통(通) 성경읽기를 제안했다. 통(通) 성경읽기란?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는 것, 역사순으로 재 배열해서 읽는 것,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다. 성경을 처음 처음부터 끝까지 읽되 성경의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고 역사순서의 배열에 따라 계속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깨닫게 되면 성경은 쉽고 재미있는 책이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다.

신앙성장을 위한 1년 1독 통(通) 성경읽기를 제안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해가 시작될 때, 늘 새로운 결심을 하기 때문이다. 지나간 날들보다는 더 보람차게, 작년보다는 더 의미 있게 살겠다는 결심을 하고 ‘성경일독’을 시도한다. 그러나 그 결심이 오래가지 못하고 중단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저 ‘읽어야 한다’는 생각에 성경을 펼치지만, 의무감만 가지고는 성경을 꾸준히 읽기가 어렵다. 또한,

---

<sup>12</sup> Frederick Catherwood, Elizabeth Catherwood, *Martyn Lloyd-Jones the Man and His Books*, 이중수 역, *마틴 로이드 존스와 그의 독서 생활* (서울: 양무리서원, 1993), 38-51.

<sup>13</sup>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서울: 통독원, 2009), 17-18.

성경을 읽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책으로 인식되면 성경읽기에 대한 부담만 가중되고, 오히려 성경과 멀어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성경은 쉽고 재미있는 책이다’ 라는 인식을 하도록 해야 한다. 가장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매일 성경읽기를 위해서는 통(通) 성경읽기의 방법을 통해 매일 성경읽기를 하는 것이다. 다음은 ‘성경읽기 표’ 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야 1년 365일 계획을 가지고 매일 성경읽기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포기하지 않게 된다. 마지막으로 단체로 매일 성경읽기를 진행하는 것이다. 혼자서는 결심이 약하여 흔들리기 쉬우나 단체가 함께 하면 혼자서 성경을 읽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말씀의 해일 은혜의 쓰나미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 연구의 의의

본 논문은 교회, 가정, 세상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가 성경이 되게 하고 그들의 신앙성장을 돕는 데 의의가 있다.

첫째,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가치를 인식하고 성경읽기의 필요성을 알도록 가르쳐야 한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지침서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내용을 평생 모른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매일 성경읽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둘째, 올바른 성경읽기로 영성과 사회성의 조화와 균형을 이룬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성경을 읽는다 해도 부분적이고 편향적인 성경읽기를 하다 보면 보는 부분은 계속 보게 되고, 보지 않던 부분은 계속 보지 않게 된다. 영의 양식인 성경을 편식하게 되는 것이다.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균형 있는 신앙성장을 하기가 어렵다.

셋째, 하나님의 기쁨과 이웃의 기쁨이 되는 실천을 꿈꾸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라고 요약해 주셨다(마 22:37~40).

##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신앙성장에 관한 문헌 중심의 이론적 연구방법과 전북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이리어양교회에서 2014~15년 실행한 '1년 1독 통(通) 성경읽기' 를 기반으로 한 'CLS(Congregation Life Style) 통(通) 시스템' 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이리어양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 객관적인 설문조사의 방법보다는 신앙성장에 대한 개인의 간증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I 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의의 그리고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기술하였다. II 장 성경읽기와 신앙성장에서는 성경읽기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성경읽기와 영적 성숙의 관계를 설명한 후에, '1년 1독' 의 유익을 살펴보고자 한다. III 장에서는 통(通) 성경읽기의 이해를 다루게 된다. 먼저 통(通)의 개념을 정리한 후에 통(通) 성경읽기의 방법을 소개하고 통(通) 성경읽기의 습득과 터득을 통해 보게 된 통찰 제시하고자 한다. IV 장에서는 프로젝트 실행과정이다.

'CLS(Congregation Life Style) 통(通) 시스템' 이 성도들의 삶의 영역인 교회, 가정, 세상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적용되었는지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V 장에서는 결론적으로 '1년 1독 통(通) 성경읽기' 를 통해 이리어양교회 성도들의 신앙성장과 변화된 삶의 간증을 수집하여 제시하고 평가하였다.

## 제 II 장

### 성경읽기와 신앙성장

#### 성경읽기의 필요성

몸은 성인이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에 반응하는 행동이나 생각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성인아이라고 부른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의 년 수는 쌓여가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봉사하지만 성인아이처럼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본다면 가슴 아픈 일이다. 존 맥아더는 성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표현했다.

뇌 손상이나 다른 어떤 장애로 인해 몸은 성인으로 자랐지만 다른 부분에서 미숙의 상태로 남아있거나, 갓난아이처럼 기저귀를 차고 있는 성인을 본다면 가슴 아픈 일이다. 성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보는 것 또한 낙심되는 일이다. 그들은 영적으로 퇴보하고 발육이 정지된 상태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가지 않는다. ... 누구나 성장을 원한다. 다만 문제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sup>1</sup>

신앙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한다.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영의 양식으로 먹는 것이다. 존 맥아더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곧 우유, 떡, 고기라고 말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콜라, 프렌치프라이, 캔디 등으로 대체하고 있다. 그들은 영적 양식을 거부하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는다.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바로 그들이 먹기를 거부하는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에

---

<sup>1</sup> MacArthur, *성경 이렇게 믿어라*, 187-188.

있다.<sup>2</sup>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지 않거나, 성경을 읽어도 영의 양식으로 읽지 않고 인스턴트 음식처럼 읽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영적인 영양결핍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성경읽기 때문에 영적 성장보다는 영적 결핍에 시달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

영적 성장에 관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은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일 것이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과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벧전 1:22-2:3)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는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칭한다. 우리가 거듭나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도 바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이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자라가는 것도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다.<sup>3</sup> 제국의 흥망성쇠가 반복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살아있다. 모든 세대에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은 언제나 살아있고 늘 새롭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 이어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

<sup>2</sup> Ibid., 188-189.

<sup>3</sup> Ibid., 190-191.

활력을 통해 쇠하거나 썩지 않는 영적 씨앗이 된다. 그 씨앗은 창조의 싹이며, 듣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함으로써 생명을 받아한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활력을 통해 생명을 성장시키기 때문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을 읽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게으른 종이 자기가 받은 한 달란트를 땅을 파고 감추어 둔 것처럼(마 25:18)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성경을 읽지 않고 덮어두고 살아가고 있다. 그런 사람에게서 신앙성장은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또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성경자체보다는 성경을 둘러싼 이야기에 지나치게 몰입하거나, 성경을 교훈을 담고 있는 책 정도로 여기며, 믿고 싶은 부분은 믿고 또 어떤 부분은 믿지 않기도 한다. 이렇게 성경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 건강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인스턴트를 버리고 영양가 좋은 음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신자를 위한 영적 자양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매일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

Wayne Davies 는 우리가 신앙성장을 위해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그의 책, *Top 10 Reasons to Read the Bible Today: The Life-Changing Benefits of Daily Bible Reading*<sup>4</sup>에서 10가지로 제시하였다.

성경은 우리의 삶에 권위를 가지고 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

<sup>4</sup> Wayne Davies, *Top 10 Reasons to Read the Bible Today: The Life-Changing Benefits of Daily Bible Reading* (New York: Createspace, 2015).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요한복음 1:1)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즉 말씀은 그만큼 우리의 삶에 권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이 담겨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고,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신 것이다. 따라서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들의 삶에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성경이 곧 하나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가르쳐준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유일한 책이다.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15) 이는 성경을 읽는 행위가 구원을 이룬다는 뜻이 아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성경)을 떠나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지혜 그 자체이며,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교사와도 같다. 따라서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 또한 구원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31)라고 요한복음은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성경을 기록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의 길을 깨닫게 된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해준다.

로마서에서 사도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17) 우리가 말씀을 지속해서 읽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마태복음 7:25)라고 말씀하셨다. 즉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대로 행하면 우리의 신앙은 더욱 견고해지고 지속해서 성장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삶을 알려준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책이다. 요즘 많은 사람은 주로 자기계발 도서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한다. 하지만 이러한 책들의 나오는 내용 대부분은 성경에 이미 나왔던 내용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16)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삶에 대한 통찰력을 주고,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며, 변화시킨다. 성경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책이다.

성경은 죄를 이기는 힘을 준다.

시편의 기자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고백한다. 성경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지혜와

교훈이 들어 있다. 이러한 말씀들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죄들이 고스란히 보이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죄를 이기는 힘을 얻게 된다. 또한, 잠언에서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16:2)라고 말한다.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경을 통해서만 나의 죄를 깨닫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만 이 죄를 이기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성경은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해준다.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차례 다양한 유혹들에 직면한다. 인간의 삶이 곧 수많은 유혹과의 싸움이며, 이러한 유혹들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 끊임없이 공격한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직면해 있는 유혹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다윗은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7:31) 라고 말하였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때 우리의 걸음은 치우치지 않게 된다. 즉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여러 유혹을 이겨 낼 수 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준다.

성경은 다양한 저자들의 무수히 많은 구절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구절들 모두가 긍정적인 면이나 기쁨만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결국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용서하려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해 놓으신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곧 우리에게 큰 소망을

가져다 주고 곧 큰 기쁨이 된다. 바울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로마서 15:4)라고 말하였다. 성경에 기록된 바는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기 위함이며 이러한 소망은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차도록 돕는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다 준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2:13)이 말씀에 나오듯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며, 이 뜻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의미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었고 이것을 성취하셨다.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도 내 옆에 계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가까이 느끼고 이것을 잊지 않으려면 말씀을 읽어야 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며 이 말씀 안에는 모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제공할 수 없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자유를 느낀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일 뿐이며 이것은 절대 영원한 자유일 수 없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32)라고 말씀하셨다. 성경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말씀을 공부하지 않거나

읽지 않는다면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성경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성경이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해 주기 때문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39)라고 요한은 말한다. 여기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모든 성경은 예수에 관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즉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됨으로써 우리가 예수께 더욱더 가까이 인도 될 수 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3)라고 말한다.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것은 곧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성경이야말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기에 성경읽기는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값지고 소중한 보석이 있다면 바로 성경이다. 성경에는 보석처럼 빛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창조와 종말을 담고, 타락과 구원을 담고, 십자가와 부활을 담고, 천국의 영광과 승리의 노래를 담고 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 가장 값진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보석이다. 성경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책이다. 천지창조의 창세기부터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요한 계시록까지 처음과 마지막을 담은 책이다. 자기 생각을 넘어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품었던 사람들의 믿음을 담은 책이다. 그리고 인생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책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한다.

### 성경읽기와 영적 성장

성경읽기와 영적 성숙에 관한 연구가 여러 학자에 의해 수행되었다.<sup>5</sup> 그 중에서 2012년 International Research가 지원한 성경읽기와 영적 성숙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시선을 끈바 있다. 전 세계 크리스천 100,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영적 성장을 예측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가 매일 성경읽기라는 것이었다. 이 연구조사에서는 도덕적 행위, 감성적 고난, 신앙적 삶, 자아 성장 등을 영적 성장의 지표로 삼았다.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 한 개인이 한 주에 4회 이상 성경을 읽으면 유혹에 빠질 위험이 많이 감소한다
- 한 주에 4회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응답하면 슬픔, 자신과 타인에 대한 파괴적 생각, 절망으로 인한 고통을 받을 확률이 줄어든다.
- 크리스천 중 성경을 읽는 사람이 더욱 신앙적인 삶을 산다.
- 한 주간 대부분 날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영적 정체감을 덜 느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느낀다.<sup>6</sup>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된다. 베드로후서 1:3-4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앎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은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

<sup>5</sup> Brad Waggoner, *The Shape of Faith to Come: Spiritual Formation and the Future of Discipleship* (TN: B&H Publishing Group, 2008). George Guthrie, *Read the Bible for Life* (Nashville TN: Lifeway Press, 2011).

<sup>6</sup> Congregation Today Australia, “Daily Bible Reading Best Predictor of Spiritual Growth,” (Congregation Today 2012년 8월 31일).

적용하게 하신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신다. 이 과정은 바로 성경읽기에서부터 출발한다. 성경이 스스로에 대해 생명의 말씀(빌 2:16),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히 4:12),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벧전 1:23), 능력의 말씀(히 1:3)지칭하고 있다. 성경은 결코 일반 책과 비교될 수 없는 책이다.

존 맥아더는 성경은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성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책이라고 말한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책들이 더러 있기는 하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책은 오직 성경뿐이다. 성경은 우리를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책이다. 시편 19편에 성경이 자신에 대해 증언하는 내용이 나온다.

“여호와와 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와 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와 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와 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와 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시 19:7-9)

“여호와와 의 율법”은 성경을 지칭하는 히브리 용어다. 시편 19편은 그것이 “완전하다”고 증언하는데, 이는 진리에 대한 넓은 의미로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영혼’이라 번역된 ‘네페쉬’는 전인(全人)을 가리킨다. 그것은 진정한 자아, 곧 몸이 아니라 내면을 의미한다. 따라서 성경의 진리들은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sup>7</sup>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권능을 통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

<sup>7</sup> MacArthur, *성경 이렇게 믿어라*, 140-141.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을 갖추고 있다.

디모데후서 3장 15~17절에 다음과 같이 나온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첫째 구원에 이르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셋째 실천적 삶으로까지 성장하게 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여기에서의 전제는 ‘모든 성경’이다. 성경의 부분적인 말씀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읽어 나가면서 통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실천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됨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성경을 읽을 때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이 항상 함께하시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2:10-11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고 하셨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이셨음을 알 수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영적 성장을 경험하는 것은 곧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1년 1독의 유익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매일 성경읽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에 동의한다.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 성경읽기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 성경읽기의 방법

백금산은 한국 교회에 소개되어 성도들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읽기의 방법을 3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는 성경을 하루에 수백 장씩 읽어서 3~6일간의 단기간에 성경을 1독 하는 성경통독수련회식 성경읽기, 둘째는 성경의 한 단락 정도를 읽고 묵상하며 성경을 5~10년에 걸쳐서 1독 하는 큐티식 성경읽기, 그리고 셋째는 매일 3~5장씩 읽어서 1년에 1독하는 성경읽기의 방법이 있다고 하였다. 그는 이들 각각의 방법들은 나름대로 목적과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각 방법 나름대로 지향하는 목적을 잘 알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성경을 읽는다면 어떤 방법으로 성경을 읽든지 간에 사실은 성경을 읽는 만큼 유익하다고 말한다.<sup>8</sup>

첫째, 캠프식 성경통독은 3박 4일 동안 성경 66권 전체를 빠른 시간 내에 통독하는 방법이다. 마치 100M 달리기를 하듯이 성경을 빨리 읽는 것이다. 성경 전체 줄거리를 파악하고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방법이다.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성경에 대한 놀라운 직관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시간상 여유가 없는 직장인이나 여건상 상황이 허락되지 않는 사람은 1년에 한 번 혹은 몇 년에 한 번도 어려운 현실이다. 백금산은 캠프식 성경통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

<sup>8</sup> 백금산, *성경 이렇게 읽읍시다*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2), 15.

성경을 빠른 속도로 읽어 가면서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기보다는 성경 자체의 완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성경읽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경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짧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깊은 의미를 충분히 깨닫기가 힘들고, 나도 성경 전체를 한 번 읽었다는 자기 만족감의 차원에서 머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그 한계에 대하여 지적하였으며 캠프식 성경통독은 매일 일정 분량을 꾸준히 읽는 성경읽기로 보충하거나 병행해서 사용해야 한다.<sup>9</sup>

둘째, 큐티식 성경읽기는 현재 한국교회에 가장 많이 행해지는 성경읽기의 방법이다. 마치 느린 걸음으로 산책하며 걷듯이 성경을 천천히 읽는 것이다. 백금산은 큐티식 성경읽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매일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확보해서 기도와 더불어 한 단락 정도의 성경을 꾸준히 묵상하고 매일의 삶 속에 적용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방식입니다. 이 같은 성경읽기 방식은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성경읽기 방법 같지만, 사실은 교회를 내려오면서 경건한 성도들이 매일 했던 성경 묵상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조직화한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적용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큐티식 성경읽기는 성도들의 삶에 좋은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방식의 성경읽기는 매일 짧은 성경 본문을 충분히 묵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sup>10</sup>

그러나 큐티식 성경읽기는 성경 전체를 읽기보다는 부분적이고 편향적인 성경읽기가 되기 쉬운 단점이 있다. 성경 전체를 읽으려면 하루 1장 큐티식 성경읽기를 해도 최소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본문 중심의 큐티식 성경읽기로는 5년~10년 만에 성경일독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성경 전체를 보는 시야는 좁아지게 된다.

셋째, 1년 1독의 성경읽기는 빠른 걸기로 성경을 읽는 것이다. 매일 3~4장의 분량을 성경 전체의 줄거리를 이해하면서 묵상하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시각과 관점 속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매년 성경읽기의 적정

---

<sup>9</sup> Ibid., 16-17.

<sup>10</sup> Ibid., 18-19.

분량을 정하는 데 있어 어떤 정해진 원칙은 없지만, 우리가 읽어야 할 성경은 특정 부분이 아니라 성경 전체이다. 성경읽기 3가지 방법을 천천히 걷기, 빠른 걷기, 뛰기의 방법으로 비교해 보고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지 생각하였다. 천천히 걷기는 시간에 비해 운동의 효과가 크지 않다. 빠른 걷기는 유산소 운동으로 운동을 오래 할 수 있고 몸에 무리가 없으며 효과도 크다. 뛰기는 오래 할 수 없고 무리하면 다음 날 관절과 근육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빠른 걷기에 비해 힘은 더 들지만 효과는 적다. 또한, 매년 성경 전체를 읽어야 할 필요성과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1년에 한 번씩 성경전체를 통독하는 1년 1독이 가장 유익한 성경읽기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 1년 1독의 방법

최근에는 1년 1독의 범위로 통독큐티를 하는 교회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1년 1독 성경읽기의 방법을 보면 몇 가지가 있다. 호산나출판사 Onebody는 2010년부터 ‘ONE YEAR BIBLE’ 을 발행하면서 1년 1독 성경읽기를 국내에 널리 보급하기 시작하였다. 호산나출판사가 처음 ‘ONE YEAR BIBLE’ 을 발행할 때에는 장르별 1년 1독 이었다. 그러다가 2012년에는 Chronological(연대기)를, 2014년에는 M’ Cheyne(맥체인) 1년 1독을 추가 발행하였다. 그 외에 1년 NT(1년 신약 읽기)와 1년 OT(1년 구약 읽기)가 함께 발행되고 있다. Onebody는 책의 서문인 ONE YEAR BIBLE 활용법에서 일년 일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 많이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많이 읽는 것입니다.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최소 1년 일독을 권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조금씩 먹는 사람은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 전문을 읽어야 합니다. 편식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편지이며, 우리는 부분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편지 전문을 일생을 통해 읽어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속적으로 읽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every word) 살 것이라(마 4:4)<sup>11</sup>

성건한 믿음의 사람은 신앙성장을 위해 최소 1년 1독을 해야 하고, 성경은 가끔 조금씩 읽는 것보다 매일 꾸준하게 많이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을 편식해서는 안 되고 전체를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장르별성경은(Classic) 성경 66권의 순서에 따라 성경을 읽는 것이다. 성경의 이곳 저곳을 옮겨 다니지 않고 성경 순서에 따라 그대로 읽어 나가면 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장르별 성경으로 통독하다 보면, 성경의 여러 사건 중, 역사적으로 후대에 일어난 사건을 먼저 읽게 되고, 선대에 일어났던 사건을 나중에 읽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다 보니, 성경의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지 않아 끊어지게 되고 점점 성경은 이해하기 어려운 책으로 간주가 된다. 2천 년의 역사를 담고 있는 구약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 그러다 보니 성경 일독에 대한 성취감과 기쁨은 있으나 성경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둘째, 연대기성경은 (The Chronological Bible) 은 라가드 스미스(F. LaGard Smith) 목사가<sup>12</sup> 1984년 출판한 “The Narrated Bible in Chronological Order)을 편집하여 번역한 것이다. 이 성경은 기존 성경을 사건이 일어난 역사적인 순서대로 재배열한 것이다. 연대기 성경의 배열은 다음과 같다.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초반부는 인류와 족장들의 시대가 기록된 사건의 순서를 따라 자연스럽게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의 국가로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 나타나 있다. 바로 이러한 과정 가운데 사건과 기록들을 바탕으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재배열됐다. 먼저 모세의 율법보다 역사적인 기록을 앞세웠다. 그 다음 모세의 율법은 별도의 주제로 하나의 통합된 법전의 형식으로 제시했다. 그 후 가나안 정복의 시대와 사사들의 시대는 본문의 흐름이 다시 한 번 자연스럽게 전개된다.

<sup>11</sup> Onebody, *One Year Bible* (서울: 호산나출판사, 2013), 서문.

<sup>12</sup> 두란노 성경출판팀, *연대기 성경* (서울: 두란노, 2009), 3.

역사적인 기록은 다윗 왕까지 계속되며 거기에 112편의 시편이 다섯 개의 주제로 구분되어 제시된다. 솔로몬 왕의 역사적인 기록에는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맥락을 따라 적절하게 배열됐다. 잠언은 주제에 따라 재배열됐고 전도서는 논리적인 사상의 흐름에 따라 배열됐다.

분열왕국시대는 연대기 순으로 정리되어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건을 번갈아서 언급했다. 혼란을 막기 위해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의 반복되는 구절들은 하나로 통합해 놓았다. 그렇게 재배열된 본문 속에 해당하는 장면이 나올 때마다 여러 선지자가 나온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 사역했던 선지자들의 글은 본문의 암시나 다른 필연적인 요인에 의해 나누어졌다.

바벨론 포로 시대의 사건과 예언을 담고 있는 부분에서는 욥기가 고난의 문제에 대한 지침서로 제시됐고, 10편의 시편도 그 시대의 절망적인 상황을 노래하고 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포로 후 귀환시대에는 마지막으로 11편 시편이 나머지 선지자들과 함께 언급되어 있다. 이 부분은 이스라엘의 일부 공식적인 기록으로 마감됐다.

신약에서는 우선 4복음서가 연대순으로 재배열되어 하나로 통합됐다. 반복되는 구절들은 전체적인 내용을 쉽게 읽도록 하기 위해서 상호 조화를 이루게 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제시됐고 그 중간 중간에 기록된 연대와 문맥을 따라 바울 서신이 삽입됐다. 나머지 서신과 요한계시록은 논리적인 순서를 따랐다.<sup>13</sup>

연대기성경은 역사적으로 성경을 읽는 방법에 대해 널리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으나, 연대기 배열에 집중하다가 각 책의 통일성과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여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이야기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셋째, 맥체인식 매일 성경읽기(M'Cheyne's Calendar for Daily Readings)는 로버트 머리 맥체인이 만든 것이다. 그는 자신이 목회하던 스코틀랜드 성 베드로교회 성도들의 성경읽기를 위해 고민하던 끝에 작성해 냈으며, 1842년에 처음으로 인쇄되었다.<sup>14</sup> 맥체인 성경읽기표는 구약은 1년에 한 번, 신약과 시편은

---

<sup>13</sup> Ibid.

<sup>14</sup> 백금산, *성경 이렇게 읽읍시다*, 11.

1년에 두 번 통독할 수 있도록 계획된 성경읽기 프로그램이다. 맥체인식 성경읽기표의 유익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한국 교회에 비교적 많이 알려진 목회자 두 사람은 로이드 존스와 존 스토티이다. 로이드 존스는 평생 동안 약 53~54년 동안 맥체인 성경읽기표에 따라서 성경을 읽었다. 로이드 존스의 장녀 엘리자베스 케세우드는 자기 부친의 성경읽기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저의 부모님들은 적어도 53~54년을 로버트 맥체인의 성경읽기표를 따라 성경을 꾸준히 통독하였습니다. 이 계획표를 근거로 추정해 보면 저의 부친은 자신의 설교 준비를 위한 성경읽기 이외에도 신약을 적어도 110회 이상 통독한 셈입니다.<sup>15</sup>

맥체인 성경읽기는 매일 구약과 신약을 동시에 읽으면서 많은 영적 유익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맥체인 성경읽기의 방법도 본 논문 서론에서 지적한 부분적이고도 편향적인 성경읽기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조병호는 66권을 한 권으로 보고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어야 한다고 말한다. 대하소설을 읽을 때처럼 성경을 한 권으로 보고 통(通)으로 읽어야 한다고 했다.

동양의 삼국지나 서양의 로마제국 쇠망사를 읽는다면 순서대로 첫 권부터 마지막까지 전체를 다 읽어 내려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중략) 하루에 5~10구절씩 묵상하는 방법으로 7~년에 걸쳐 성경을 한 번 읽는 것,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설교를 통해서 듣는 몇 구절의 말씀만으로 30년 넘게 신앙 생활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말씀의 해일, 은혜의 쓰나미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sup>16</sup>

우리가 1년 1독 통(通) 성경읽기를 해야 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 1년 1독 통독성경

1년 1독 통독성경은 말 그대로 성경을 1년 365일에 한 번, 역사 순서대로

<sup>15</sup> Catherwood, *마틴 로이드 존스와 그의 독서 생활*, 54.

<sup>16</sup> 조병호, *쉬운성경통독*, 30.

통독할 수 있도록 구성한 성경이다. 내용과 분량을 고려해 책에서 구분해 놓은 대로 하루에 평균 3~5장 정도를 꾸준히 읽어가게 되면 매해 1월 1일 새해 초에 창세기 1장을 시작해서 12월 31일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읽게 되는 것이다. 특히 역사순서에 맞게 재배치하되 최대한 가독성(可讀性, readability)을 고려했다. 모세오경 및 사복음서 등은 온전한 형태를 유지했으며, 다른 성경책들도 무리하게 절 단위로 쪼개지 않고 가능한 기존 성경의 절과 장의 순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사건의 흐름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단위로 나누었다. 또한, 하루에 읽는 성경 범위마다 성경이 하단에 ‘통독 본문 내용정리’ 라는 성경 줄거리 해설을 붙여 놓았다. 그 날 읽은 분량의 내용 줄거리와 해설을 이해하기 쉬운 설명으로 풀어 놓은 것이다.

## 제 III 장

### 통(通) 성경읽기의 이해

통(通) 성경읽기는 성경 66권을 하나의 총체적인 이해로 바라보는 성경읽기를 의미한다. 통 성경읽기는 성경읽기의 파편화(fragmented books and multiple disconnected stories)로 인한 폐해를 통감하고 하나의 이야기(One Story)로 연결해 독파하는 성경읽기 방법론을 의미한다.

통(通) 성경읽기의 창시자 조병호는 통 성경읽기를 통한 다음 세대의 교육과 전 세대의 신앙성장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조병호는 5세부터 20세의 나이에 해당하는, 자녀 세대에게 쉽고 재미있으며 연속적인 이야기로 전달되는 통(通) 성경읽기 방법을 통한 성경 교육을 강조한다. 또한, 조병호는 포스트모던의 다원주의적 시대 흐름에 대한 기독교적 대안으로 언제 어디서나 사용될 수 있는 통(通) 성경읽기를 교육적 도구로 제안하였다.

#### 통(通)의 개념

조병호는 통(通)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통(通)은 그 하나하나를 꿰뚫어 아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여러 대상을 꿰뚫는 의미를 발견했음을 말한다.”<sup>1</sup> 통(通)이란 여러 대척점(對蹠點, antipodes)을 두고 분리되어있던 객체들이

---

<sup>1</sup> 조병호, *통이다 렛츠통* (서울: 통독원, 2007), 56-57.

일종의 연결고리를 통해 서로 연결되고, 서로를 관찰하며 이를 통해 유대감이 생성, 제공되는 상태 또는 상황 등을 의미한다. 즉 통이란 통했다는 말처럼 단순한 연결을 넘어 서로가 서로를 꿰뚫어 두루 미치는 상태를 의미한다.

통(通)으로 본다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해 통달(通達), 관통(貫通)하도록 보는 것이다. 막힘 없이 훤히 알도록 보는 것, 본질을 파악해서 정통하게 아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어 보는 것, 혹은 하나부터 열까지 여러 요소를 두루두루 섭렵해서 한번에 쥐어 잡는 것이다. 더 나아가 통(通)이라는 말은 어떠한 대상을 인식하는 단계에서도 쓸 수 있다. 통(通)으로 본다는 것이 대상을 꿰뚫어 보는 것을 의미한다면, 통(通)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대상을 꿰뚫어 생각하는 것, 즉 대상을 꿰뚫어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sup>2</sup>

통(通)으로 본다는 것은 지엽적으로 객체를 바라보는 현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약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론이다. 서양의 사고방식은 대상의 속성과 본질에 집중한다. 동양의 사고방식은 상황과 관계 안에서 대상의 특징들을 발견한다.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구슬을 잘 살피지 않고 목걸이를 만들면 돌 목걸이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좋은 보석으로 만들어진 구슬들이 있더라도 하나로 꿰어내는 실이 없으면 방바닥에 흩어진 예쁜 돌 알맹이에 불과하다. 통으로 보는 것은 서양과 동양의 사고방식에 대한 조화를 이루어 대상을 인식하는 총체적인 방법이다.<sup>3</sup>

리처드 니스벳은 동양과 서양의 차이에 대하여 문화적으로도, 언어적으로도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있어 상당한 차이점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그는 심리학 실험을 통해 미국인과 중국인 대학생에게 판다, 원숭이, 바나나의 사진을 제시하고 판다와 바나나 중 서로 관련 있는 사진을 고르라고 하면 동양인의 대부분은 관계를 따지며 보기 때문에, 원숭이는 바나나를 먹는다는

---

<sup>2</sup> Ibid., 63.

<sup>3</sup> Ibid., 64.

생각에 기인하여 바나나 사진을 고르나, 서양인의 대부분은 동물이라는 속성을 보기 때문에 판다를 고른다. 이처럼 동양인이 생각하는 관점과 서양인이 생각하는 관점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결국, 같은 것을 보지만, 생각하는 것은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이다.<sup>4</sup>

한마디로 동양철학의 특징은 종합적이고, 상황적, 맥락적이지만 서양은 개별적이고, 본성론적, 논리적인 사고와 인식 체계를 갖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동서양의 차이로 분석적인 관점의 서양은 사회에서도 개인을 중시하는 반면, 동양은 개인 간 관계를 중시한다. 즉, 서양에서는 개인의 자립심을 중시하고 동양에서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중시한다.

이는 동서양의 사회문화적 차이를 설명한다. 동양인은 전체적인 시각을 가지며 대상들 사이의 관계를 중시한다. 맥락에 따라 대상을 파악하고 상황을 통해 행동을 진단한다. 반면 서양인은 더욱 분석적인 시각을 갖는다. 대상을 범주화하고 대상의 현재적 특징에 집중한다. 개인과 사람을 강조하는 서양이 나무를 중시한다면 공동체와 자연을 강조하는 동양은 숲을 중시한다는 것이다.<sup>5</sup>

통(通)의 인식으로는 전체와 부분은 함께 인식해야 할 각각의 대상이다. 전체와 부분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의 현상의 두 가지 얼굴이므로, 부분에만 초점을 기울이다 보면, 항상 존재하기 마련인 전체와 부분의 간극에서 발전적인 의미를 찾아내기가 어렵고, 반대로 전체만 강조하다 보면, 개체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약화되거나 무시될 위험성이 있다. 통(通)으로 본다는 것은 바로 이 전체와 부분이라는 두 가지 분야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다. 즉, 파편화된 현상 그 자체에 대해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 각각의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는 노력과 함께, 모든 파편들을 전체로 놓고 각각이 전체 속에서 어떠한 유기적 결합을 하고 있는지를 동시에 보는 것이 21세기를 위한 사고방식이다.<sup>6</sup>

<sup>4</sup> 산업능력대학종합연구소, *지적 사고의 기술* (서울: 미래의창, 2008), 125.

<sup>5</sup> 구유나, “동양과 서양의 차이”, (T Times 2015년 8월 10일). Richard Nisbett, “The mistake we all make... and the simple experiment that reveals it”, (the guardian, Sunday 9 August 2015) 참조

<sup>6</sup> 조병호, *통이다* 렛츠통, 91.

통(通)을 대상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타자와의 조화와 균형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통(通)은 극단적인 상대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한 방법이고, 다양성과 조화를 엮어내며 혼란스럽고 산발적으로 흩어진 사고들의 혼재를 넘어 정리하는 방법론을 의미한다. 결국 통(通)이란, 이 시대에 마련되어야 할 사고방식, 언어사용방식, 행동방식, 나아가 21세기에 필요한 총체적 삶의 방식인 것이다.<sup>7</sup>

### 통(通) 성경읽기란?

성경 전체 내용을 살펴가면서 하나님을 마음을 읽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을 보는 방법이다. 성경의 일부만이 복음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물한 성경 전체가 복음이기 때문이다. 성경 전체가 복된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어느 부분은 열고 어느 부분은 덮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전체를 부지런히 살펴서 읽고 듣고 지키는 것, 이것이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가장 바른 자세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필요한 성경읽기 방식일 것이다. 통(通) 성경읽기란 다음의 세가지 방법을 통해 성경을 읽는 것을 말한다.

성경을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는 것이다.

통(通) 성경읽기란 성경 66권 전체를 한 권으로 보고,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어 내려가는 것이다. 성경을 분석적이고 부분적으로 보는 방식과 성경을 총체적이고 전체적으로 보는 방식이 함께 아우러져야 할 것이다. 노우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치 한

---

<sup>7</sup> 조병호, *통이다 렛츠통*, 142.

편의 영화를 감상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전체를 읽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말했다.<sup>8</sup>

그 동안 한국교회는 안타깝게도 성경을 ‘전체’가 아닌 ‘부분’으로 읽어 온 측면이 있다. 성경 66권 전체를 균형 있게 읽고 공부하기보다는 시대적인 흐름과 개인적인 상황과 환경, 그리고 필요에 따라 66권 중 일부를 취사선택하여 읽어왔다. 이것은 서구 중심으로 발전해 온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서구적 지식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는 분절적, 분석적, 해체적 방식을 통해 성경에 접근하고 연구해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처럼 부분적인 성경읽기는 곧 편향적인 성경읽기로 이어져, 성경이 시대 상황 해석에 도구화되는 폐단을 낳았다는 점이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이 왜곡되고 기독교 본래의 가치가 퇴색되었던 역사적 실례들을 갖게 된 것이다.

일제 식민지 시절에는 민족의 해방을 염원하며 출애굽기와 요한계시록을 애독하였다. 또한 해방 후 분단의 아픔을 겪고 남한에 군부 독재 시절이 오래 계속되자, 이때 소위 ‘보수’와 ‘진보’로 나뉜 한국교회는 성경도 서로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소위 ‘보수’ 진영에서는 복음전파와 개인구원을 강조하며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중심으로 읽은 반면, 소위 ‘진보’ 진영에서는 시대의 약자들을 도우려는 강한 열망으로 아모스서와 같은 구약의 예언서들을 많이 읽었던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시대 현실을 극복하는 방법의 차이에 의해 그 읽기 범위와 이해의 방향이 결정되었으며 이는 성경의 부분만을 보는 습관으로 굳어져 왔다.<sup>9</sup>

성경 한 구절이 주는 메시지도 있고, 한 장이 주는 메시지도 있고, 성경의 각 권이 주는 메시지도 있지만,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있다.<sup>10</sup> 부분적으로 말씀을 접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보면 보는 부분은 계속 보게 되고, 보지 않던 부분은 계속 보

<sup>8</sup> 노우호, *성경통독집* (서울: 하나, 2007), 26.

<sup>9</sup> 조병호, *쉬운 성경통독*, 44.

<sup>10</sup> Ibid., 30

지 않게 되기 쉽다. 성경 안에 담긴 이야기들이 어떤 의미인지는 관심이 없이, 자기가 보고 싶은 구절만 찾아서 읽는다면 성경의 신비하고 놀라운 풍요로움을 맛볼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헤아릴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조병호는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는 것이란 성경의 큰 그림을 보면서 전체가 연결되는 하나의 이야기로 성경을 읽는 것이라고 말한다.

성경의 큰 그림을 보면서 성경을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인식할 때 성경 66권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전달할 수 있다. 성경 66권이 개별적으로 파편화된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가 연결되는 하나의 이야기(One Story)로 5세부터 20세 전 자녀들에게 언제, 어디서든지 설교가 아닌, 이야기로 들려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sup>11</sup>

이야기는 ‘줄거리(plot)’가 있는 말이나 글이다. 이야기만큼 효과적인 교육 방법은 없다. 성경 전체를 쉽고, 재미있고, 이어지는 이야기로 읽으며, 성경 전체의 큰 그림을 보게 되면 큰 믿음이 생기게 된다. 장대영은 성경읽기에 대한 경험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성경을 읽어 보면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지만 처음에는 재미있게 읽어 나가다 갑자기 성경 읽기가 어려워지는 곳을 만난다. 바로 레위기이다. 창세기, 출애굽기는 거침없이 읽어 나가지만 레위기엔 들어서면서부터는 도무지 그 내용이나 표현이 부담스러워 쉽게 지금까지처럼 쉽게 그 진도가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이 부분을 읽어내려면 대단한 의지와 노력이 요구된다. 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것은 창세기, 출애굽기는 사건을, 이야기형식으로 전해주는 데 레위기, 민수기의 백성 계수하는 장면은 이야기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딱딱하게 느껴지고 성경 읽기가 쉽지 않게 되는 것이다.<sup>12</sup>

성경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를 담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맛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레너드 스윗은 드루대학교 목회학 박사 과정 강의에서 그의 책

<sup>11</sup> 조병호, *유대인과 페밀리스쿨* (서울: 통독원, 2015), 142.

<sup>12</sup> 장대영, “이야기식 소그룹 성경공부를 통한 교회 활성화 방안,”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9), 18.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sup>13</sup>를 가지고 강의면서 오늘날 교회를 향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역사상 가장 최고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의 성경입니다. 이는 역사상 전해진 가장 위대한 이야기이며 끝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는 가장 위대한 이야기로 전락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부딪치는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로 인지하지 못하고 또 이야기로써 전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라는 책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야기로써 가르치도록 돕는 작업입니다.<sup>14</sup>

레너드 스윗은 “오늘의 문화는 더 이상 단어가 아닌 이미지, 은유, 상징,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영성을 표현하고 있다”<sup>15</sup>라고 말하면서, “내러티브(narrative)”와 “은유(metaphor)”의 합성어인 “내러포(narraphor)”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레너드 스윗에 의하면 내러포는 이야기와 은유의 단순한 조합이 아니라, 이야기의 접근성과 근접성을 가진 은유적 이미지의 힘이라고 했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과 우리 자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 은유로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했다.<sup>16</sup> 김영래는 레너드 스윗의 내러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성경은 이야기와 은유로 만들어졌고, 이야기와 은유로 전달되었으며, 이야기와 은유로 보존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가장 효과적이고 적합한 방법 중의 하나는 내러포이다. 따라서 성경교수의 방법은 이야기와 은유를 이야기와 은유 자체로 읽고 듣는 내러포적 방법이 되어야 하며 단어와 개념을 주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와 은유 그리고 이야기를 주석해야 한다.<sup>17</sup>

<sup>13</sup> Leonard Sweet, *The Gospel According to Starbucks*, 이지혜 역,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sup>14</sup> 2014년 1월 27일 레너드 스윗의 드루대학교 목회학 박사 과정 강의내용이다.

<sup>15</sup> Leonard Sweet, *Giving Blood: A Fresh Paradigm for Preaching* (Grand Rapids, MI: Zondervan, 2014), 156.

<sup>16</sup> 김영래, “내러포와 기독교교육: 성경교수방법으로서의 내러포 탐구,” 84 *신학과 세계*, (2015), 527-528.

<sup>17</sup> Ibid., 531-532.

윌리엄 바우쉬(W. Baush)는 “Storytelling Imagination and Fath”라는 책에서 이야기의 기능 13가지를 정리했다.<sup>18</sup> 오주엽은 바우쉬의 책을 통해 이야기의 특성과 여러 가지 장점을 설명하였다.<sup>19</sup>

첫째, 이야기는 재미가 있다. 이야기는 일정한 형식을 따라 전개되며 마지막 내용에 대한 흥미를 끌어내는 요소를 담고 있다. 이야기는 설명적이거나 명제적 글이나 말과는 다른 특징을 가진다. 이야기는 그것의 ‘서사성’으로 인하여 나름대로 독특한 기능을 나타낸다. 만약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명제적인 문장으로 답을 할 수 있다. 또 다른 사람은 예수님처럼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 해 줄 수도 있다. 두 가지 설명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마음에 와 닿는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일 것이다. 이야기가 주는 서사성이 흥미와 호기심을 이끌어내면서 마음에 이미지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둘째, 이야기는 감동을 준다. 이야기가 주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무엇보다 감동을 주는 점이다. 이야기는 단순히 지적 차원의 삶을 형성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고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반응할 힘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이야기는 공감을 끌어낸다. 이야기는 독특한 인물과 전개가 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있는 기본적인 경험들, 예를 들어 슬픔과 좌절, 모험, 사랑과 승리 등은 인간의 실존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경험이 들어있다. 실존적인 상황 안에 들어감으로 인류 공통의 삶을 공유하거나 우리 자신의 삶을 확장할 힘을 부여 받게 된다.

---

<sup>18</sup> William J. Baush, *Storytelling Imagination and Fath* (New London CT: Twenty-Third publications Mystic, 1988), 29-64.

<sup>19</sup> 오주엽, “중년기 정체성 형성을 위한 이야기 성경공부에 관한 연구”, (기독교교육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11), 33-36.

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는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힘을 갖고 있다. 이야기는 타인의 삶을 실존적으로 만나는 단순한 지적 깨달음을 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고 실제적인 결단과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는 힘이 있다. 예를 들어 사무엘하 12장에 나타나는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다윗을 질책하기 위해 한 부자의 이야기를 사용한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찰하지 못한 채 이야기 속의 부자를 죽여야 한다고 흥분하지만, 곧 그 부자가 자신임을 깨닫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철저한 회개를 경험한다.

따라서 이야기는 의미 없는 세상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힘을 갖고 있다.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과 세계 그리고 이웃을 발견하며 이야기 속에서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하여서 한 인간의 정체성과 치유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성경은 신앙인으로서 공감할 수 있고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곳곳에 들어있다. 이야기 방식을 통해 성경을 읽음으로 단순한 지식의 확장이 아닌 실존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므로 성경 66권 전체를 이야기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성경 줄기를 잡아야 한다. 줄기에 수많은 가지가 의존해서 자라게 되고 그 가지에서 잎이 자라고 꽃들이 피어난다. 잎이나 꽃을 잡기 전에 먼저 줄기를 잡아야 한다. 그래야 성경 전체를 이야기로 전달할 수 있다. 조병호는 우리 몸의 마디마디들이 우리를 걷게도 하고 뛰게도 하고 유연하게도 하듯이 성경의 7개의 트랙(모세오경, 왕정500년, 페르시아7권, 중간사400년, 4복음서, 사도행전30년, 공동서신 9권)과 하나님의 말씀을 걷게 하고 뛰게 하며 생동감 넘치게 살아 숨 쉬게 할 성경 줄기 40개를 잡으라고 했다.<sup>20</sup> 그는 성경 전체의 수많은 이야기를 7개의 트랙, 40개의 줄거리로 정리하였는

---

<sup>20</sup> 조병호, *성경줄기* (서울: 통독원, 2015), 5.

데, 그 줄거리 제목은 아래의 표와 같다.<sup>21</sup>

<표1> 통(通) 성경 7 Track 40 줄기

7Track		40 줄기
Track 1 모세오경	1	원역사 - 모든 것의 시작(창 1-11장)
	2	족장사 - 아브라함, 이삭, 야곱(창 12-36장)
	3	입(入)애굽과 민족의 발아 - 지도자 요셉(창 37-50장)
	4	출(出)애굽과 제국 - 지도자모세(출 1-18장)
	5	세계 선교의 꿈, 거룩한 제사장 나라 - 제사장 나라(출 19-40)
	6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 - 제사장나라 교과서(레)
	7	만나 세대의 성장 - 제사장 나라 학교(민)
	8	만나 학교 졸업 설교 - 제사장 나라학교 졸업(신)
Track 2 왕정 500년	9	약속의 땅 입성 - 졸업생 성공 사례(수)
	10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 - 졸업생 자녀 교육 실패 사례(삿)
	11	교육의 성공사례 - 졸업생 자녀 교육 성공 사례(룻)
	12	미스바 세대의 탄생 - 사무엘의 설득(삼상 1-7장)
	13	왕정의 시작 - 최초의 왕 사울(삼상 8-31)
	14	하나님의 종 다윗 - 다윗(삼하, 왕상 1-2장)
	15	솔로몬과 시가서 - 솔로몬(왕상 3-11장, 잠, 아, 전, 읍, 시)
	16	남북왕국의 분열 - 분단 200년(왕상 12-22장, 왕하 1-14장, 암, 호, 은)
Track 3 페르시아 7 권	17	북이스라엘의 멸망 - 사마리아인 시작(왕하 15-20장, 사, 미)
	18	남유다의 쇠락 - 마지막 왕 시드기야(왕하 21-23장, 습, 합, 나, 율)
	19	잠깐의 징계 - 예레미야의 성독(왕하 24-25장, 렘, 애, 읍, 대상, 대하)

<sup>21</sup> Ibid., 6~9.

	20	포로민 설득 - 에스겔(겔)
Track 4	21	제국변경의 밑그림 - 다니엘(단)
신구약중간사	22	성전재건 - 스룹바벨 총독(스, 학, 스, 에)
Track 5 4 복음서	23	성벽재건 - 느헤미야 총독(느)
	24	고백과 침묵 - 1,500년 사랑 고백(말)
	25	헬라제국과 중간사 - 수전절 시작
	26	로마제국과 중간사 - 분봉 왕 시작
	27	예수님의 탄생 - 기쁨을 위한 탄생(마)
	28	공생애 3년 - 한 영혼 사랑(막)
	29	마지막 일주일 - 용서를 향한 열정(눅)
	30	십자가의 승리 -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요)
Track 6 사도행전 30년	31	열리는 제자시대 - 그리스도인의 시작(행 1-12장)
	32	바울의 1차 전도여행 - 샘플, 바울의 전도여행(행 13-15:35)
	33	바울의 2차 전도여행 - 샘플, 바울의 전도여행(행 15:36-18:22, 살전, 살후, 갈)
	34	바울의 3차 전도여행 - 샘플, 바울의 전도여행(행 18:23-19장, 고전, 고후)
	35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 - 샘플, 바울의 전도여행(행 20-26장, 롬)
	36	교회론과 사랑의 편지 - 바울의 편지들(행 27-28장, 엡, 빌)
Track 7 공동서신 9권	37	기독론과 기적의 편지 - 바울의 편지들(골, 몬)
	38	믿음의 아들에게 남겨진 편지 - 바울의 편지들(딤펴전, 딤펴, 딤펴후)
	39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 선한싸움 / No 악한싸움(히, 약, 벧전, 벧후, 유)
	40	최후 승리의 노래 - 최후 승리확신 / No 의심(요일, 요이, 요삼, 계)

성경을 역사 순서대로 읽는 것이다.

성경통독이란 성경을 전체로 읽되, 성경 66권을 역사 순서대로 읽는 것이다. 그 동안 우리가 구약성경(총 39권)을 분류해 온 전통적 방식은 다음과 같다.

- 율법서(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가, 신명기
- 역사서(12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 시가서(5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 예언서(17권): 대예언서 -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 소예언서 -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훬,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우리가 사용하는 신약성경을 전통적으로 분류해 온 방식은 다음과 같다.

- 복음서(4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 역사서(1권): 사도행전
- 바울서신(13권):
  - 옥중서신 -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 목회서신 - 디모테전서, 디모테후서, 디도서,
  - 일반서신 - 로마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 공동서신(8권):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 예언서(1권): 요한계시록

이처럼 현재 우리가 보는 성경은 역사 순으로 편제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장르별로 편제되어 있다. 율법서는 율법서대로, 역사서는 역사서대로, 시가서는 시가서대로, 예언서는 예언서대로 한곳에 모아 놓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성경의 편제를 따라 읽어 나가게 되면 역사 흐름이 엇갈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그 속에서 세계를 경영해나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가 어렵게 된다. 조병호는 역사순서로 재배열하여 읽어야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총 10권으로 쓰여진 대하소설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은 1권, 내일은 제6권, 모레는 제3권, 그 다음 날은 제9권, 이런 식으로 순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읽는다면, 다 읽은 후에도 그 스토리와 인과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39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약성경을 읽을 때, 우리

는 꼭 그런 식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나마 1권씩 다 읽지도 않고, 그 안에서 좋아하는 구절만 몇 구절 선택해서 읽고 있는 것입니다. 넓고 깊은 말씀의 바다에서 큰 호흡으로 마음껏 수영할 생각은 안하고, 얇은 물가에 앉아서 겨우 발만 담그고 침병이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sup>22</sup>

그러나 성경의 각 권이 갖는 저마다의 역사적인 순차성을 고려하여 재배열하여 읽는다면, 성경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살아 숨 쉬는 말씀으로 이해되기 시작하며, 그 당시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다. 에스라 성경하우스에서 성경통독을 인도해 온 노우호도 역사 순으로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해가 쉽다고 말한다.

우리들이 읽는 성경은 대체로 주제별로 혹은 종류별로 편집되어서 시대의 성경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시대 순으로 재구성하여 읽게 되면 예언서와 역사서가 동시에 이해가 되고 초대교회의 모습과 사도행전적인 역사와 서신서들을 단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sup>23</sup>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난 후 성경 일독에 대한 성취감은 있지만, 성경의 시대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것은 성경 이야기의 시간의 흐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편재된 장르별 성경은 느헤미야를 먼저 읽고 한 참 후에 예레미야를 읽는다. 에스라를 먼저 읽고 난 후에 에스더를 읽는다. 그렇게 되면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성경읽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시적(共時: synchronic) 성경읽기와 통시적(通時: diachronic) 성경읽기가 통(通)으로 묶여야 한다. 여기서 공시(共時)란 동일한 시간 영역을 지칭한 말로서 시간의 가로축을 의미하고, 통시(通時)란 연속되는 시간 흐름을 지칭한 말로서 시간의 세로축을 의미한다. 예루살렘 성이 무

<sup>22</sup>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서울: 통독원, 2013), 15.

<sup>23</sup> 노우호, *숲도 보고 나무도 보는 성경통독집* (서울: 하나, 1999), 27.

너지는 것을 보며 슬퍼했던 예레미야를 볼 때, 비슷한 무렵에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인 스바냐, 하박국 등을 함께 보는 것이 공시이다. 예레미야 이전에 예루살렘 성을 수도로 삼았던 다윗과 예레미야 이후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던 느헤미야를 함께 보는 것이 통시이다.

하나님께서서는 허공이 아닌 역사 속에서, 실제 인생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일하시며,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 우리도 그 역사 속에 들어가, 그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보려면 역사적 배경, 시대적인 순서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 성경의 한두 구절에 얽매이지 않고 성경의 역사적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재배열하여 연대기적 흐름에 따라 체계적으로 통독해가다 보면, 세계를 경영하시며 거대한 구원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알 수 있게 되고, 성경이 훨씬 더 쉽고 질서 정연하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삶을 배울 수 있음은 물론, 성경 전체를 통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헤아려 그분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다.

조병호는 구약성경 39권과 신약성경 27권을 역사 순서대로 재배열하였다. 그는 구약전체를 역사순서대로 총 10마당, 24개의 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신구약 중간사를 1마당 2개의 과로 신약 전체를 9마당 14개의 과로 구성하여 총 20마당, 40과로 정리하였다. 그 내용과 역사 순서 배열은 다음의 표와 같다.<sup>24</sup>

<표2> 구약성경의 역사 순서 배열

구약 성경통독 순서
------------

<sup>24</sup>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15.

<b>1마당: 하나님의 마음</b> 원역사와 족장시대	1과 원역사 2과 족장사 3과 입애굽과 민족	창 1~11장 창세기 12~36장 창세기 37~50장
<b>2마당: 열방을 향한 꿈</b> 모세와 출애굽시대①	4과 출애굽과 제국 5과 세계 선교의 꿈 6과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	출애굽기 1~18장 출애굽기 19~40장 레위기
<b>3마당: 만나 세대</b> 모세와 출애굽시대②	7과 만나세대 8과 만나학교 졸업	민수기 신명기
<b>4마당: 신앙 계승</b> 가나안 정복시대와 사사시대	9과 약속의 땅 입성 10과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기 11과 교육의 성공사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b>5마당: 천년 모범</b> 왕정시대① 통일왕국시대1	12과 미스바 세대 13과 왕정의 시작 14과 하나님의 종 다윗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8~31장 사무엘하, 열왕기상1~2장
<b>6마당: 마음과 지혜</b> 왕정시대② 통일왕국시대2	15과 솔로몬과 시가서	열왕기상 3~11장 잠언, 아가, 전도서, 욥기, 시편
<b>7마당:</b> <b>사랑의 줄, 사명의 줄</b> 왕정시대③ 분열왕국시대	16과 남북분열 왕조  17과 북이스라엘 멸망	열왕기상 12~22장, 열왕기하 1~14장 아모스, 호세아, 요나 열왕기하15~20장, 이사야, 미가
<b>8마당: 절망 앞에선 희망</b> 왕정시대④ 남유다 퇴락기	18과 남유다 멸망 19과 잠간의 징계	열왕기하 21~23장 스바냐, 하박국, 나훔, 요엘
<b>9마당:</b> <b>징계, 희망의 디딤돌</b> 바벨론 포로시대	20과 포로민 설득 21과 제국 변동의 밑그림	에스겔 다니엘

10마당: 재건 공동체 페르시아시대	22과 성전 재건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23과 성벽 재건	느헤미야
	24과 고백과 침묵	말라기

신약성경을 역사순으로 재배열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4개의 복음서를 어떻게 시대순으로 읽을 것인가, 그리고 사도행전과 바울의 서신서들을 어떻게 묶어 읽을 것인가’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신약성경 27권을 배열은 다음과 같다.

<표3> 신약성경의 역사 순서 배열

신약 성경통독 순서		
11마당:	25과 헬라제국과 중간사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26과 로마제국과 중간사	
12마당: 기쁨을 위한 탄생 예수님의 사역	27과 예수님의 탄생	마태복음
13마당: 한 영혼 사랑 예수님의 사역	28과 공생애 3년	마가복음
14마당: 용서를 향한 열정 예수님의 사역	29과 마지막 일주일	누가복음
15마당: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예수님의 사역	30과 십자가 승리-하나님 나라	요한복음
16마당: 열리는 시대 교회의 시작과 열두	31과 열리는 제자시대	사도행전 1~12장

사도들의 사역		
17마당: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사도바울의 바울서신	32과 바울의 1차 전도여행 33과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사역과 34과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사도행전13~15:35 사도행전15:36~18:22 데살로니가전·후서 갈라디아서 사도행전18:23~19장, 고린도전·후서
18마당: 준비된 면류관 남겨진 부탁 사도바울의 바울서신	35과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 36과 교회론과 사랑의 편지 사역과 37과 기독교론과 기적의 편지 38과 믿음의 아들에게 남긴 편지	사도행전20~26장, 로마서 사도행전27~28장 ,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19마당: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공동서신	39과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유다서
20마당: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요한계시록	40과 최후 승리의 노래	요한일·이·삼서, 요한계시록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다.

통(通) 성경읽기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는 최종목표이다. 조병호는 하나님의 마음 읽기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단어, 구절, 문장, 문단, 결국 성경 66권을 읽어가는 동안,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 또한 읽어가게 된다. 그리하여 성경은 펼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는 ‘하나님의 러브레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통독은 지식만을 쌓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 하는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들의 삶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깨달아야 하는 것

입니다.<sup>25</sup>

성경통독은 단순히 성경의 지식을 알아가고 정리해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다.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은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가면서 읽어야 한다. 다시 말해 성경통독을 통해 저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 지혜롭게 책 읽기를 하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그 책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살피고, 그 저자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책을 집필했는지를 살핀다. 저자의 의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세상의 부분 지식을 얻기 위해서도 저자의 의도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하물며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파악하지 않고 성경을 읽는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알아가려는 의지와 노력이 없으므로, 성경을 읽는 자들의 의도와 목적이 앞서게 된다.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성경을 읽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마음과 의도와 상황이 중요하게 되며, 성경해석도 자기중심적으로 하게 된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여 성경을 읽어가는 것이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닌,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원하는 우선순위가 아닌,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교회와 신앙인은 타락할 수밖에 없다. 중세 1000년의 로마 가톨릭이 부패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

---

<sup>25</sup>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13.

던 점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담겨있는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그분의 뜻대로 살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함이다. 그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성경을 읽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야 성경 본래의 뜻대로 살 수 있다. 즉 마음 훈련을 해야 참된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통(通) 성경학교에서 마음훈련을 강조하는 조병호는 이렇게 말한다.

성경을 통독하는 가운데 기뻐도 하시고 슬퍼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주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아하셨던 하나님께서 얼마 후, 창세기 6장에서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근심하시고 한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창 6:6).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있다가 얼마 후, 창세기 6장의 노아 홍수 사건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깊은 한탄과 근심의 무게를 한 자락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sup>26</sup>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상태가 세심하게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는 심히 좋아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요한계시록에는 고난을 이겨낸 성도들에게 승리의 노래를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조병호는 성경 20마당과 하나님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sup>27</sup>

<표4> 통(通) 성경 20마당 하나님의 마음

7Track		20 마당	하나님의 마음
Track 1	1	하나님의 마음	창조 때의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홍수 심판 때의 아픈 하나님 마음

<sup>26</sup> 조병호, *쉬운 성경통독*, 37.

<sup>27</sup> 조병호, *통 성경학교* (서울: 통독원, 2015), 73.

모세오경	2	열방을 향한 꿈	홍수 후 아브라함, 모세를 통해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의 꿈을 꾸시는 하나님
	3	만나 세대	하나님의 꿈을 40년 만에 자신들의 마음에 담은 60만 만나세대
	4	신앙 계승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어지는 기쁨’ 과 ‘끊어지는 슬픔’
Track 2 왕 정 500년	5	천년 모범	다윗 마음의 꿈이 제국 건설이 아닌 천년모범 예루살렘 성전 건축
	6	마음과 지혜	솔로몬의 모든 지혜, 부귀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서 시작됨
	7	사랑의 줄, 사명의 줄	200년간 고멜 같은 북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며 긍휼을 다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 사명의 줄
	8	절망 앞에선 희망	성전이 불타는 절망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본심이 새 언약, 마음언약 이라고 외치는 예레미야의 희망선언
Track 3 페르시아 7 권	9	징계, 희망의 디딤돌	바벨론 포로 70년의 징계가 희망의 디딤돌이라고 설득하는 에스겔의 외침
	10	재건 공동체	만나세대에 이어 ‘재건공동체’ 의 찬양소리를 크게 즐거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Track 4 신구약중간사	11	어떻게 와 이렇게 사이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Track 5 4 복음서	12	기쁨을 위한 탄생	양 틈에서 자던 베들레헴 목자들에게까지 ‘영광의 기쁨’ 을 알리시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13	한 영혼 사랑	상한 갈대 같은 거라사 광인, 꺼져가는 등불 같은 나사로의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시기 위해 땀과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 마음
	14	용서를 향한 열정	십자가 밑에서 당신을 조롱하는 자들까지도 품으시는 용서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

	15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를 ‘믿는 자’ 들을 영광과 평화의 나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기쁨
Track 6 사도행전 30 년	16	열리는 제자시대	사도가 된 제자들이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 를 열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17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모든 민족을 향한 ‘예루살렘 공의회’의 아름다운 결정’ 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18	준비된 면류관 남겨진 부탁	준비된 면류관을 꿈꾸는 바울의 고백을 디모데와 마가가 믿고 따를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Track 7 공동서신 9 권	19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땅 끝까지 끝 날까지 ‘선한 싸움’ 을 싸우는 그리스도인을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20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기쁨을 미리 맛보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리스도인

### 통(通) 성경읽기와 통찰

낮과 밤은 분위기가 다르지만 묶어서 날이다. 남자와 여자는 분위기가 다르지만 묶어서 인간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분위기가 다르지만 묶어서 계절이다. 서로 다르지만 묶으면 어울린다. 각기 다른 분위기의 성경이지만 하나로 묶어서 어울리게 보는 것이 통성경이다. 그릇이 깨져버리면 그것이 파편화 되는 것이다. 우리가 조각 나기 전에는 매우 유익한 것이지만 조각나버리면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다. 통(通) 성경은 성경 66권 전체를 파편화 하지 않고 하나의 이야기로 소리 내서 읽는 것이다.

조병호는 이렇게 통(通) 성경읽기의 방법을 통해 성경전체의 큰 그림을 습득(習得, learning, 배워 터득함)하고, 터득(攄得, understanding, 잘 이해하여 모조리

자기 것으로 만듦)을 하게 되면 성경전체의 큰 그림을 3가지로 통찰(洞察, penetration=insight, 온통 밝혀서 살핍/꿨고 들어감/관통)하게 된다고 하였다.<sup>28</sup>

시간 • 공간 • 인간을 통(通)으로 보게 된다.

성경에는 대략 2000년의 시간과 1500여 곳의 공간, 그리고 5000여명의 인간이 들어 있다. 먼저 성경 속의 시간에는 ‘태초’ 부터 시작하여 ‘종말’ 에 이르기 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의 시간인 ‘처음’ 과 ‘끝’ 이 모두 들어 있다. 그리고 성경 속의 절기와 명절로는 안식일, 회년, 그리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등이 있다. 또한 성경에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의 시간, 다윗부터 예수님 까지 또 1,000년의 시간이 들어있다. 이처럼 성경에는 많은 ‘시간’ 이 들어있다. 그리고 성경에는 1,500여 곳의 공간이 들어있다. 성경 속 공간은 일정 지명들을 포함해 ‘보여줄 땅’ 에서부터 ‘땅끝까지’ 약 1500곳에 이른다

성경에서의 공간은 시간만큼이나 중요하다. 공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고, 나아갈 방향이 제시된 곳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에 집중한 하나님의 사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 갈렙, 다윗 등 참으로 많다. 반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을 삶의 방향으로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가나안 정탐 10명을 비롯해 여로보암, 예후,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오히려 애굽으로 도망했던 사람들 등이 있다. 또한 성경은 시간과 공간과 함께 5000여명의 인간을 담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사람들로 크게 나뉜다.

---

<sup>28</sup>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11-14.

성경의 이야기는 시간과 공간 위에 인간이 공존하는 모습으로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경 안에 있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인간의 각 주체가 개별적 또는 부분적으로 해석될 수 없고 통으로 해석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유월절, 안식일, 오순절, 초막절 등의 절기는 성경 속에 존재하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그 절기가 행해지는 장소가 있고 그 시간과 장소 위엔 언제나 등장 인물이 있다. 유월절이 지나고 골고다 언덕에 그리스도가 올라가 십자가에 매달렸고, 오순절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여 성령을 경험했다. ‘성경 속의 2000년의 시간과 1500여 곳의 공간, 5000여 명의 등장인물이 파편화될 수 없고 그 시간, 그 공간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펼치고 있는지 통으로 볼 필요가 있다.

개인 · 가정 · 나라를 통(通)으로 보게 된다.

통(通) 성경읽기의 핵심 중 하나는 성경 속에 나타난 이야기들을 개인과 가정과 나라를 통으로 엮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모세의 이야기를 볼 때 개인과 가정, 나라를 엮는 통 성경읽기의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모세가 태어난 지 석 달이 지나 갈대상자 안에 놓인 것은 모세 개인의 일이었다. 모세의 아버지가 갈대 상자를 만들었고 어머니가 그 안에 태웠으며, 누나가 갈대상자를 따라 망을 봄으로써 모세의 가정 이야기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모세가 가족들에 의해 갈대상자에 태워진 것은 히브리 민족과 애굽의 갈등이 포함된 나라 이야기가 배경으로 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베들레헴 탄생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개인 · 가정 · 나라에 관한 이야기이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은 예수님 개인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한 가정 이야기이다. 동시에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

게 된 것은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모든 식민지 백성들에게 호적을 명했기 때문이다. 즉 로마제국과 유대나라 이야기가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 이야기와 함께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성경 속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개인·가정·나라 이야기로 함께 통(通)으로 보아야 한다.

제사장 나라 · 5대 제국 · 하나님나라를 통(通)으로 보게 된다.

우리나라 헌법 제 1조 1항과 2항은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다. 제사장 나라의 법 1조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 20:1)이다. 이는 제사장 나라가 여타 제국들처럼 다른 나라를 종으로 다루어서는 안 되는 나라임을 뜻한다. 제사장나라는 하나님과 모든 민족 사이에서 평화를 만드는 나라이지 제국들처럼 다른 나라를 수직적으로 아래에 두고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장 나라의 법을 모세 시대에 하나님과 제사장 나라의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 하나님과 맺은 이 제사장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고, 거룩한 시민의 일도 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인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5대 제국을 하나님의 세계경영에 들어 사용하신 것이다. <이사야>는 앗수르 제국을 <예레미야>는 바벨론 제국을, <에스라>는 페르시아 제국을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다.

또한 성경 속 명절인 수전절은 헬라 제국과 깊은 관련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사형 틀이기에 신약성경과 로마제국은 떼려야 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사장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과정 중에 5대 제국을 들어 사

용하시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시면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게 하신 것이다.

구약성경은 제사장 나라 이야기고, 신약 성경은 제사장 나라를 담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세계경영을 위해 사용하신 5개의 제국인 앗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이 들어 있다. 이렇게 제사장나라, 5대 제국, 하나님 나라를 통(通)으로 아울러 보는 것이 통(通) 성경읽기이다.

## 제 IV 장

### 프로젝트 실행과정: 이리어양교회 CLS(Congregation Life Style) 통(通) 시스템

지금까지 통(通) 성경읽기와 그리스도인의 신앙성장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제시했다. 이제 이리어양교회에서 진행한 ‘1년1독 말씀대행진’을 소개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한 CLS(Congregation Life Style) 통(通) 시스템 프로젝트에 관하여 다루고자 한다.

<표5> 말씀대행진과 일년일독 성경통독표

#### 2015년 말씀대행진 (상반기)

**1. 상반기 말씀대행진: 2015. 1. 1 ~ 6. 30**

주제: "생명을 살리는 말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행 19:20)  
"말씀, 은혜로 주었습니다."  
"말씀, 순종하면 복이 됩니다."

**목표(상반기)**

① 성경통독: 개인 600장, 교회 100만장  
- 말씀순종: 매일  
- 예배: 매일

② 전도: 개인 1명이상, 교회 500명

**실천사항**

① 말씀읽기 - 1년에 1번 이상 성경 통독  
② 말씀듣기 - 선포되는 말씀 경청  
③ 말씀 배우기 (신앙성장 5단계 훈련 및 무학바이블칼리지 참여)  
④ 말씀 순종하기 - 매일 성경을 읽으며, 말씀에 순종하여 매일 사랑을 실천  
⑤ 말씀 전하기 - 한 영혼 전도하기

**2. 성경 1독을 위해**

① 새벽기도회: 매일 3장씩 성경을 읽습니다.  
② 성경통독 교재를 통해 1독 할 수 있습니다.  
③ 성경읽기 결산 통독: 6월중 예정  
④ 스마트폰용 앱 설치 지원

**3. 말씀대행진 체크표**

말씀대행진기간 동안 가지고 다니시면서 "성경읽기"와 "사랑실천"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4. 매주 말씀대행진 실천표 제출**

지난한주간, 읽으신 성경 장수와 사랑 실천하신 일수를 체크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교구와 전체 온도계가 올라갑니다.

#### 《일년일독 성경통독표》 1월~3월

"성경을 역사순으로 통독하면 성경이 보입니다."

**1월 January**

날짜	순서	범위	날짜	순서	범위	날짜	순서	범위
1	01	창 1-2장	11	11	창 31-33장	21	21	출 8-10장
2	02	창 3-5장	12	12	창 34-36장	22	22	출 11-13장
3	03	창 6-9장	13	13	창 37-38장	23	23	출 14-15장
4	04	창 10-11장	14	14	창 39-41장	24	24	출 16-18장
5	05	창 12-14장	15	15	창 42-44장	25	25	출 19-20장
6	06	창 15-17장	16	16	창 45-47장	26	26	출 21-23장
7	07	창 18-21장	17	17	창 48-50장	27	27	출 24-27장
8	08	창 22-24장	18	18	출 1-2장	28	28	출 28-29장
9	09	창 25-27장	19	19	출 3-4장	29	29	출 30-31장
10	10	창 28-30장	20	20	출 5-7장	30	30	출 32-34장
						31	31	출 35-38장

**2월 February**

날짜	순서	범위	날짜	순서	범위	날짜	순서	범위
1	32	출 39-40장	11	42	레 26-27장	21	52	민 20-21장
2	33	레 1-5장	12	43	민 1-2장	22	53	민 22-25장
3	34	레 6-7장	13	44	민 3-4장	23	54	민 26-27장
4	35	레 8-10장	14	45	민 5-6장	24	55	민 28-30장
5	36	레 11-13장	15	46	민 7-9장	25	56	민 31-32장
6	37	레 14-15장	16	47	민 9장-10:10	26	57	민 33-36장
7	38	레 16-17장	17	48	민 10:11-12장	27	58	신 1-2장
8	39	레 18-20장	18	49	민 13-14장	28	59	신 3-4장
9	40	레 21-22장	19	50	민 15-17장			
10	41	레 23-25장	20	51	민 18-19장			

**3월 March**

날짜	순서	범위	날짜	순서	범위	날짜	순서	범위
1	60	신 5-6장	11	70	신 33-34장, 시 90편	21	80	창 2:11-5장
2	61	신 7-9장	12	71	수 1-2장	22	81	창 6-7장
3	62	신 10-11장	13	72	수 3-5장	23	82	창 8-9장
4	63	신 12-14장	14	73	수 6-8장	24	83	창 10-12장
5	64	신 15-17장	15	74	수 9-12장	25	84	창 13-16장
6	65	신 18-21장	16	75	수 13-17장	26	85	창 17-18장
7	66	신 22-26장	17	76	수 18-19장	27	86	창 19-21장
8	67	신 27-28장	18	77	수 20-22장	28	87	창 22-24장
9	68	신 29-30장	19	78	수 23-24장	29	88	창 25-27장
10	69	신 31-32장	20	79	창 1장-2:10	30	89	창 28-30장
						31	90	창 31-32장

연구자는 2014~15년 말씀대행진을 기반으로 하여 회중들의 삶의 전 영역인 교회·가정·세상에서 통(通) 성경읽기와 신앙성장을 위한 CLS 통(通) 시스템을 구상하게 되었다. 성경읽기는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첫째, 언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아침·저녁·종일 성경을 읽어야 한다. 그리고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 매일 30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실천해야 한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시 1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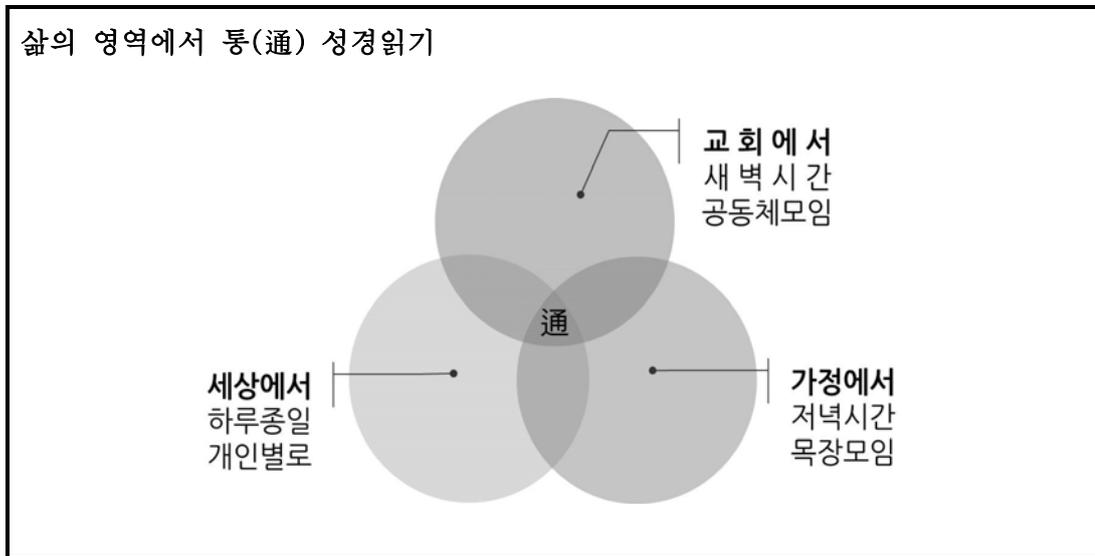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시 119:148)

“오직 여호와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 1:2)

둘째, 어디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교회·가정·세상에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 우리는 성경의 원리와 지침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경을 읽어 한다. 성경읽기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 적으로 해야 할 일이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일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 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요 18:20) 예수님의 말씀사역은 세상, 회당과 성전, 집(마 8:14, 9:10, 9:23, 9:28, 13:36, 26:6)에서 이루어 졌다.

셋째,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개인·소그룹·대그룹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매일 성경의 명령과 교훈을 믿음으로 받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 혼자 있는 곳에서, 두 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대그룹으로 모인 곳에서 성경읽기가 이루어 져야 한다.

<표6> CLS(Congregation Life Style) 통(通) 시스템



CLS(Congregation Life Style) 통(通) 시스템은 교회, 가정, 세상에서의 삶의 공간 속에서 통(通) 성경읽기를 통한 신앙성장을 기대하는 프로젝트이다

- 교회에서는 매일 새벽, 대그룹으로 1년 1독 성경읽기를 진행한다.
- 가정에서는 평일 저녁, 소그룹으로 나눔과 기도를 진행한다.
- 세상에서는 하루 종일, 개인별로 1년 10번 성경듣기를 생활화 한다.

<표7> CLS(Congregation Life Style) 통(通) 시스템 방법

공간	시간	인간	방법
교회에서	새벽	대그룹	1년 1독
가정에서	저녁	소그룹	나눔 및 기도
세상에서	종일	개인	1년 10번 듣기

## 교회에서

### 매일 새벽 성경통독

인간은 시간의 주기적인 단위 속에서 모든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그 기본적인 단위는 하루, 일주일, 한 달 그리고 일 년이다. 이렇게 반복되는 생활주기 가운데서 하루는 최소 단위고, 일 년은 최대 단위이다. 하루 단위로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한 만큼이나 일 년 단위로 성경을 읽는 것도 우리 삶의 실제적 부분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리어양교회는 매일 새벽기도회를 『1년 1독 통독성경』으로 진행한다. 날마다 세상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전해 주기 위해 배달되는 아침 신문을 대하는 것처럼, 날마다 성경을 신선하게 읽고 묵상하고 적용할 것이다. 또한 이런 사람은 날마다 자신의 건강 유지와 활동을 위해 마련되는 밥상을 대하는 것처럼, 날마다 성경읽기를 기대감과 즐거움을 가지고 실행할 것이다.

### 새벽기도회 진행 방법

매일 새벽 5시에 시작하여 예배 30분, 기도 평균 30분으로 약 1시간 정도이다. 신앙고백(1분), 주일설교 요절암송 및 찬송(5분), 1년 1독 범위에 따라 성경 통독(10분~15분), 통(通) 설교(10분), 결단기도 및 통성기도(30분)

### 성경: 역사순 1년1독 통독성경

조병호가 편찬한 역사순 1년1독 통독성경을 권장하여 교회에서 단체 구입하여 배부하되, 구입은 본인의 자출에 맡기기로 했다. 시력문제로 큰 글씨로 인쇄된 기존성경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 소그룹 모임 교재: 1년 1독 성경통독

역사순 365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대행진 1년 1독 성경통독은 조병호가 3개월 단위로 1년 4권 발행하는 통독큐티 책이다. 이 책은 매일 개인 통독큐티와 주

간 소그룹(목장)모임 교재로 사용하였다. 목장에서 구입하여 목원들에게 배부하는 방식으로 전 교인이 의무적으로 구입하였다.

통독음원: 조병호낭독(통독원), 서혜정낭독(제자성경)

성경통독에 사용한 통독음원은 2가지를 사용하였다. 첫째는 조병호가 낭독한 365일 역사순 통독음원이다. 왕정500년, 페르시아 7권, 사도행전 30년을 통독할 때에 사용하였다. 둘째는 서혜정 성우가 낭독한 제자성경 통독음원이다. 모세5경과 4복음서, 공동서신 9권을 통독할 때에 사용하였다.

이리어양교회는 조병호의 1년1독 성경읽기표에 따라 진행하였다. 하지만 365일의 분량을 344일로 재편성하여 약 3주간의 기간을 확보하고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전북 군산시에 있는 개복교회에서 부목사로서 2004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10년 1개월을 사역하였다. 개복교회에서도 장르별 순서에 따라 새벽기도회시간에 매년 1년 1독 범위로 정하여 성경통독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1년1독 성경통독을 진행하는 동안 성도들의 지속적인 건의사항이 있었다. 그것은 구약통독이 9개월동안 계속 진행되는 데서 오는 어려움 이었다. 특히 3월~4월중에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절기가 있는데, 이 기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은혜를 함께 하기 원하는 성도들이 많았다. 또한 10~11월 중 가을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해 통(通) 성경 교육을 원하는 의견들이 있었기에 이리어양교회는 조병호가 역사 순으로 재배열한 ‘역사순 1년 1독 통독성경’의 목차대로 1년 1독을 진행하되 3주간의 여유를 갖기 위해 성경읽기표를 재편성하였다. 그리고 매월 주제를 정하여 성경통독을 진행하였다.<sup>1</sup>

---

<sup>1</sup> 조병호, **일년일독 통독성경** (서울: 통독원, 2008).

&lt;표8&gt; 역사순 365일 1년 1독 성경통독 매일 성경읽기표(1~3월)

1월 하나님의 마음		2월 만나세대		3월 신앙계승	
날짜	범위	날짜	범위	날짜	범위
1일	창1~2장	1일	레6~7장	1일	신27~30장
2일	창3~5장	2일	레8~10장	2일	신31~32장
3일	창6~9장	3일	레11~13장	3일	신33~34장, 시90편
4일	창10~11장	4일	레14~17장	4일	수1~2장
5일	창12~14장	5일	레18~20장	5일	수3~5장
6일	창15~17장	6일	레21~22장	6일	수6~8장
7일	창18~21장	7일	레23~25장	7일	수9~12장
8일	창22~24장	8일	레26~27장	8일	수13~17장
9일	창25~27장	9일	민1~2장	9일	수18~19장
10일	창28~30장	10일	민3~4장	10일	수20~22장
11일	창31~33장	11일	민5~8장	11일	수23~24장
12일	창34~36장	12일	민9~12장	12일	삿1장~2:10
13일	창37~38장	13일	민13~14장	13일	삿2:11~5장
14일	창39~41장	14일	민15~17장	14일	삿6~9장
15일	창41~44장	15일	민18~21장	15일	산10~12장
16일	창45~47장	16일	민22~15장	16일	삿13~16장
17일	창48~50장	17일	민26~27장	17일	삿17~18장
18일	출1~4장	18일	민28~30장	18일	삿20~21장
19일	출5~7장	19일	민31~32장	19일	룻1~4장
20일	출8~10장	20일	민33~36장	20일	삼상1~3장
21일	출11~13장	21일	신1~4장	21일	삼상4~7장
22일	출14~15장	22일	신5~6장	22일	삼상8~10장
23일	출16~18장	23일	신7~9장	23일	삼상11~14장

24일	출19~20장	24일	신10~11장	24일	삼상15~16장
25일	출21~23장	25일	신12~14장	25일	삼상17~18장
26일	출24~27장	26일	신15~17장	26일	삼상19장, 시59편
27일	출28~31장	27일	신18~21장	27일	삼상20~21장, 시34편
28일	출32~34장	28일	신22~26장	28일	삼상22장, 시52편
29일	출35~38장			29일	삼상23~24장, 시57편
30일	출39~40장			30일	삼상25~26장, 시54편
31일	레1~5장			31일	삼상27~31장

<표9> 역사순 365일 1년 1독 성경통독 매일 성경읽기표(4~6월)

4월 천년모범		5월 마음과 지혜		6월 사랑의 줄	
날짜	범위	날짜	범위	날짜	범위
1일	특별 새벽 기도 회	1일	잠10~15장	1일	시86~89편
2일		2일	잠16~20장	2일	시91~102편
3일		3일	잠21~24장	3일	시103~106편
4일		4일	잠25~29장	4일	시107~118편
5일		5일	잠30~31장	5일	시119편
6일		6일	아1~4장	6일	시120~134편
7일		7일	아5~8장	7일	시135~142편
8일		8일	왕상11장	8일	시143~150편
9일		9일	전1~3장	9일	왕상12~14장
10일		10일	전4~7장	10일	왕상15~17장
11일		11일	전8~12장	11일	왕상18~19장
12일		12일	욥1~3장	12일	왕상20~22장
13일		13일	욥4~7장	13일	왕하1~2장

14일		14일	읍8~10장	14일	왕하3~5장
15일	삼하1~2장	15일	읍11~14장	15일	왕하6~8장
16일	삼하3장~6장	16일	읍15~17장	16일	왕하9~10장
17일	삼하7~10장	17일	읍18~21장	17일	왕하11~14장
18일	삼하11~12장, 시51편	18일	읍22~24장	18일	암1~5장
19일	삼하13~15장, 시3편	19일	읍25~31장	19일	암6~9장
20일	삼하16~17장	20일	읍32~37장	20일	호1~4장
21일	삼하18~20장	21일	읍38~42장	21일	호5~9장
22일	삼하21~22장	22일	시1~2, 4~9편	22일	호10~14장
23일	삼하23~24장	23일	시10~18편	23일	은1~4장
24일	왕상1~2장	24일	시19~27편	24일	왕하15~16장
25일	왕상3~4장	25일	시28~33편	25일	왕하17~18:12
26일	왕상5~7장	26일	시35~41편	26일	사1~3장
27일	왕상8장	27일	시42~50, 53편	27일	사4~7장
28일	왕상9~10장	28일	시55~56, 58, 60~66편	28일	사8~12장
29일	잠1~5장	29일	시67~72편	29일	사13~17장
30일	잠6~9장	30일	시73~78편	30일	사18~20장
		31일	시79~85편		

<표10> 역사순 365일 1년 1독 성경통독 매일 성경읽기표(7~9월)

7월 사명의 줄		8월 절망 앞에 선 희망		9월 희망의 디딤돌	
날짜	범위	날짜	범위	날짜	범위
1일	사21~24장	1일	렘34~36장	1일	겔8~11장
2일	사25~29장	2일	렘37~38장	2일	겔12~14장
3일	사30~35장	3일	왕하25장, 렘39~41장	3일	겔15~17장

4일	왕하18~13~37, 사36장	4일	렘42~45장	4일	겔18~20장
5일	왕하19장, 사37장	5일	렘46~48장	5일	겔21~24장
6일	왕하20장, 사38~39장	6일	렘49~52장	6일	겔25~28장
7일	사40~42장	7일	애1~2장	7일	겔29~32장
8일	사43~45장	8일	애3~5장	8일	겔33~35장
9일	사46~50장	9일	읍1장	9일	겔36~39장
10일	사51~55장	10일	대상1~3장	10일	겔40~43장
11일	사56~59장	11일	대상4~5장	11일	겔44~46장
12일	사60~63장	12일	대상6~9장	12일	겔47~48장
13일	사64~66장	13일	대상10~12장	13일	단1~4장
14일	미1~3장	14일	대상13~16장	14일	단5~6장
15일	미4~7장	15일	대상17~20장	15일	단7~8장
16일	왕하21~23장	16일	대상21~22장	16일	단10~12장
17일	슌1~3장	17일	대상23~26장	17일	스1~4장
18일	합1~3장	18일	대상27~29장	18일	학1~2장
19일	나1~3장	19일	대하1~4장	19일	슌1~6장
20일	욘1~3장	20일	대하5~7장	20일	슌7~10장
21일	왕하24장, 렘1~3장	21일	대하8~9장	21일	슌11~14장
22일	렘4~6장	22일	대하10~13장	22일	스5~6장
23일	렘7~9장	23일	대하14~17장	23일	에1~5장
24일	렘10~13장	24일	대하18~22장	24일	에6~10장
25일	렘14~16장	25일	대하23~25장	25일	스7~10장
26일	렘17~20장	26일	대하26~28장	26일	느1~3장

27일	렘21~23장	27일	대하29~31장	27일	느4~7장
28일	렘24~25장	28일	대하32~33장	28일	느8~10장
29일	렘26~28장	29일	대하34~36장	29일	느11~13장
30일	렘29~31장	30일	겔1~3장	30일	말1~4장
31일	렘32~33장	31일	겔4~7장		

<표11> 역사순 365일 1년 1독 성경통독 매일 성경읽기표(10~12월)

10월 한 영혼 사랑		11월 복음의 확장		12월 승리의 노래	
날짜	범위	날짜	범위	날짜	범위
1일	마1~4장	1일	요14~15장	1일	행20:1~6, 롬1~3장
2일	마5~7장	2일	요16~17장	2일	롬4~7장
3일	마8~10장	3일	요18~19장	3일	롬8~11장
4일	마11~13장	4일	요20~21장	4일	롬12~14장
5일	마14~16장	5일	특별 새 벽 기 도 회	5일	롬15~16장
6일	마17~20장	6일		6일	행20:7~23장
7일	마21~23장	7일		7일	행24~26장
8일	마24~25장	8일		8일	행27~28장
9일	마26~28장	9일		9일	엡1~3장
10일	막1~3장	10일		10일	엡4~6장
11일	막4~6장	11일		11일	빌1~4장
12일	막7~8장	12일	행1~2장	12일	골1~4장
13일	막9~10장	13일	행3~5장	13일	몬1장
14일	막11~13장	14일	행6~9장	14일	딤후전1~6장
15일	막14~16장	15일	행10~12장	15일	딤후1~3장
16일	눅1~2장	16일	행13장~15:35	16일	딤후후1~4장

17일	눅3~4장	17일	행15:36~18:22	17일	히1~4장
18일	눅5~6장	18일	살전1~5장	18일	히5~10장
19일	눅7~8장	19일	살후1~3장	19일	히11~13장
20일	눅9~10장	20일	갈1~3장	20일	약1~5장
21일	눅11~13장	21일	갈4~6장	21일	벧전1~5장
22일	눅14~16장	22일	행18:23~19장	22일	벧후1~3장
23일	눅17~18장	23일	고전1~4장	23일	유1장
24일	눅19~20장	24일	고전5~8장	24일	요일1~5장
25일	눅21~22장	25일	고전9~11장	25일	요이1장, 요삼1장
26일	눅23~24장	26일	고전12~14장	26일	계1~3장
27일	요1~3장	27일	고전15~16장	27일	계4~7장
28일	요4~6장	28일	고후1~4장	28일	계8~11장
29일	요7~8장	29일	고후5~9장	29일	계12~15장
30일	요9~11장	30일	고후10~13장	30일	계16~18장
31일	요12~13장			31일	계19~22장

### 주간 집중 성경통독

매일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하루 또는 며칠씩 성경을 읽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때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빠진 부분을 다 보충해서 읽고 넘어가려고 한다. 하지만 못 읽은 분량이 너무 많고, 안 읽고 넘어가자니 마음이 개운치 않고 그래서 갈등을 느끼다가 아예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중간에 포기하려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1년 1독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주일 오후에 주간 집중 성경통독을 진행한다. 따라서, 매일 새벽 1년 1독 성경통독을 진행하지만 주중에 새벽기도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주간 집중통독’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1년 1독에 동참하도록 하였다. 매주 주일 오후 3시30분부터

5시까지 90분간 진행한다. 주간 집중 성경 통독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sup>2</sup>

통(通) 포인트 스토리 라인(Pm 3:00 ~ Pm 3:45): 성경통독 인도자.

주간 성경 통독 (pm 3:45~ 4:45): 조병호 낭독 혹은 서혜정 낭독 통독음원

결단기도(pm 4:45~ 5:00): 통독한 말씀을 가슴으로 느끼고 나아가 삶으로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목상하며 결단기도 한다.

### 숲과 나무 성경통독집회

48시간 역사순 성경듣기 숲과 나무 성경통독집회는 3박4일 동안 실시하는 통독집회이다. 90분~100분 정도로 시간분량을 구성하여 27마당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조병호는 48시간 역사순 성경듣기 숲과 나무 성경통독집회의 효과에 대하여 설명한다.

예를 들어, 펄 벅의 《대지》라는 소설을 하루에 3장씩 약 3년에 걸쳐 읽는 것과 집중해서 며칠 밤을 새워 읽은 사람과는 감동의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 크다는 것이다. 책을 한 번 잡았다 하면 한 2-3일 밤을 새워서라도 한꺼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감동도 받고 그 책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법이다. 또한 고전을 비롯한 다소 어려운 인문학 책이나 아주 두꺼운 분량의 전공서적을 읽는 좋은 독서방법은 처음 한두 번은 빠른 시간 내에 전체를 읽어 그 내용을 먼저 파악하고 나서, 다시 천천히 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깊이 있게 읽는 방법이다.<sup>3</sup>

이리어양교회는 여름과 겨울 년 2회 경기도 가평 통독원에서 실시하는 숲과 나무 통독집회에 참석하도록 권면하고 있다. 등록비의 일부를 교회에서 지원하고, 대중교통편이 불편하기 때문에 교인들의 신청을 받아 희망자들은 교회 차량을 운행한다. 미래적으로는 인근에 있는 개복산기도원<sup>4</sup>에서 담임목사가 숲과 나무

<sup>2</sup> 주간통독 범위는 <표14> 소그룹모임 주제 및 주간통독 범위 참조.

<sup>3</sup> 조병호, *48시간 역사순 성경듣기* (서울: 통독원, 2014), 22.

<sup>4</sup> 개복산기도원은 개복교회에서 운영하는 기도원으로 연구자가 10년동안 사역했던 교회이다. 익산에서 30분거리에 있다.

성경통독 집회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가정에서

CLS 통(通) 시스템은 가정에서 1주일에 한번 평일 저녁시간으로 소그룹모임을 통해 통(通) 이야기 듣기, 하나님의 마음 나누기, 성경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이다. 마틴 루터는 교회가 변혁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에클레시아(ecclesia) 속에서 에클레시올라(ecclesiolae)를 통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교회가 끊임없이 변혁하려면 교회 속의 작은 교회들이 살아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sup>5</sup>

Gordon McDonald는 소그룹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다. “대형교회는 건강한 소그룹을 잘 혼합해 운용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사람들은 대규모 집회만 가지고는 자라지 않는다. 믿음 안에서 자라고 싶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형태로든 소그룹에 속해야 한다.”<sup>6</sup> 이와 유사하게 William A. Beckham에 의하면 교회에는 두 날개가 있는데, 한 날개는 대그룹의 예배를 위한 것이고, 다른 한 날개는 소그룹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sup>7</sup> 인간의 자존감을 세워 주는 세 가지 감정은 소속감과 가치감, 그리고 자신감인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소속감이다. 교인들의 소속감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은 각 개인이 존중될 수 있는 소그룹에 속할 때이다.<sup>8</sup> 소그룹은 각 개인의 직접 참여를 통해 소속감을 높여 줄 수 있는 탁월한 모델이다.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은 한 주간 성경통독 범위

<sup>5</sup> Richard Lovelace, *Dynamics of Spiritual Life-An Evangelical Theology of Renewal*, (Downers Grove, IL., IVP, 1979), 165. 김덕수, *셀교회 전환과 셀리더 세우기* (서울: NCD, 2002), 28에서 재인용.

<sup>6</sup> 이연길, *말씀묵회 패러다임* (서울: 쿰란출판사, 2001), 140-141

<sup>7</sup> William A. Beckham, *The Second Reformation: Holistic Small Groups Reshaping the Church for the Twenty-First Century*, 티치코리아 사역팀 역, *제2의 종교개혁* (서울: NCD, 2002), 32.

<sup>8</sup> 이연길, *말씀묵회 패러다임*, 139-140

를 가지고 세가지를 함께 실시한다.

### 통(通)이야기 듣기

건강한 소그룹은 이야기가 풍성해야 한다. 이야기는 집의 창문과 같다. 창문을 통해 따사로운 햇빛이 비치고 시원한 바람이 들어와 공기를 정화 시키듯이 이야기는 소그룹을 따뜻하게 하고 답답한 삶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준다. 하지만 인간적인 자량과 세상적인 이야기는 열등감을 키우고 관계를 깨뜨린다. 그러므로 통(通) 이야기로 신앙이 성장하고 튼튼해 진다.

원래 토라는 대부분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었다. 가정에서 가장에 의하여 자녀들에게 말로 전달되던 이야기였다<sup>9</sup> 이 점과 관련해서 조병호는 모세오경의 말씀을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세가 120세에 책 다섯 권(모세5경)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에게 선물로 건네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섯 권의 책을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섯 권의 책을 부모가 각자 자기 자녀에게 가르치는 방법론으로 첫째,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둘째, 길을 행할 때에든지, 셋째, 누웠을 때에든지, 넷째, 일어날 때에든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집에 앉았을 때에는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행할 때는 책을 읽을 수 없습니다. 누웠을 때나 일어나는 순간도 책을 읽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때문에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 친한 친구들이 그룹을 지어 함께 성경을 들으면 효과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sup>10</sup>

구약성경 특히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모두 구전 전승에 의한 말씀으로, 이런 전승은 후에 이스라엘의 포로기 시절에 회당교육에서 이어진다<sup>11</sup> 신약성경의

<sup>9</sup> 이연길, *이야기식 성경공부 방법*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5), 27.

<sup>10</sup> 조병호, *48시간 역사순 성경듣기*, 15-16.

<sup>11</sup> Lewis Joseph Sherrill, *The Rise of Christian Education*, 이숙중 역, *기독교교육의 발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63.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는 딱딱한 강의조로 교훈하신 것이 아니라 이야기로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다. 신약의 서신 역시 특정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편지를 쓴 것으로, 편지의 내용은 딱딱하지만 그 뒤에 감추어져 있는 내용은 이야기이다.<sup>12</sup> 이야기의 재미가 없으면 아무리 반복해서 말해도 분위기만 있을 뿐 그 이상의 실체가 잡혀지지 않는다. 66권 책 제목만 외워서는 이야기 재미가 잡혀지지 않는다. 성경구절을 많이 암송해도 이야기 재미가 쉽게 잡혀 지지 않는다. 통(通) 이야기로 담을 수 있어야 한다. 한 주간의 통독범위를 이야기로 가슴에 담아 다른 사람에게 말로 전달 할 수 있어야 한다.

#### 하나님의 마음 나누기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속상하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의 마음이 상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속이 보인다.’ 라는 것은 마음이 들켰다는 것이다. 또한 ‘속이 있네.’ 혹은 ‘속이 없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내장이 있고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려 깊은 마음이 있고 없음을 말한다. 이처럼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마음인 사랑과 미움까지도 마음에서 시작되고 마음에서 끝난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만큼이나 하나님 마음 또한 매우 중요하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생각 이상으로 많이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이다.<sup>13</sup>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때 비로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 2:5)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 11:29) 라고 하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때 사람의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음란한 마음, 등을

<sup>12</sup> 이연길, *말씀목회 패러다임* (서울: 콤팩출판사, 2001), 209-210.

<sup>13</sup> 조병호, *마음훈련* (서울: 통독원, 2015), 7-8.

회개하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

성경을 통해 기도하기.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하다. 그들의 공통된 특징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으며 옳은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속 믿음의 선배들의 뒤를 따르기 위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 받으며,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놀랍게도 그 해답은 성경을 통해 함께 기도하는 것이다. 조병호의 역사순 365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대행진 『1년1독 성경통독』 1~4권에 수록된 52주 소그룹 모임의 주제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2> 소그룹모임 주제 및 주간 통독범위

월	주제	주간통독범위
1월	새로운 시작(창 1:26-31)	창 1-21장
	‘믿음’의 가정(창 28:10-22)	창 22-41장
	유언과 비전(창 50:1-21)	창 42-50장, 출 1-10장
	기적 같은 이야기(출14:21-31)	출 11-29장
2월	하늘보석(출 28:15-30)	출 30-40장, 레 1-10장
	‘거룩’은 사랑입니다(레19:9-18))	레위기 11-27장
	민수기 이야기(민 1:1-19)	민 1-14장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민 27:12-23)	민 15-32장

3월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신 6:1-9)	민 33-36장, 신 1-14장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싶습니다(신 28:1-19)	신 15-34장, 시편 90편
	여호수아와 갈렙의 노래(수 14:6-15)	수 1-22장
	사사들의 이야기 (삿 13:1-14)	수 23-24장, 삿 1-16장
4월	사막의 오아시스(룻 4:13-22)	삿 17-21장, 룻 1-4장, 삼상 1-12장
	다윗의 예선전(삼상 17:41-49)	삼상 13-24장, 시 59, 34, 52, 57편
	왜 ‘다윗’ 일까요?(삼하 5:1-5)	삼상 25-31장, 삼하 1-12장, 시 54, 51편
	천년모범 다윗 왕(삼하 23:1-7)	삼하 13-24장, 왕상 1-2장, 시 3편
	솔로몬 이야기(잠 1:1-9)	왕상 3-10장, 잠 1-15장
5월	지혜롭게(잠 16:1-9)	잠 16-31장, 아 1-8장, 왕상 11장
	창조주를 가역하세요(전 12:1-14)	전 1-12장, 욥 1-14장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욥 42:1-9)	욥 15-42장
	복 있는 사람(시 1편)	시 1-66편
6월	후손에 이어지는 신앙(시 78:1-8)	시 67-118편
	믿음의 그늘 아래서(왕상 12:1-7)	시 118-150편, 왕상 12-17장
	순종이 낳은 기적(왕하 5:1-6)	왕상 18-22장, 왕하 1-14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호 6:1-6)	암 1-9장, 호 1-14장, 율 1-4장, 왕하 15-16장
7월	임마누엘의 하나님(사 7:10-14)	왕하 17-18:12, 사 1-24장
	치료하시는 하나님(사 38:1-8)	왕하 18:13-20장, 사 25-45장
	우리 가정에 바라시는 것(미 6:1-8)	사 46-66장, 미

	믿음으로 즐거운 우리(합 3:16-19)	왕하 21-24장, 습, 합, 나, 을, 렘1-6장
	예레미야의 기도(렘 17:12-18)	렘 7-28장
8월	물 댄 동산 같은 즐거움(렘 31:10-14)	렘 29-48장, 왕하 25장
	사랑하는 형제에게(읍1:10-14)	렘 49-52장, 애, 읍, 대상 1-5장
	말씀의 가문(대상9:10-16)	대상 6-29장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합니다(대하5:11-14)	대하 1-25장
9월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겔 8:1-13)	대하 26-36장, 겔 1-11장
	누구를 의지 할까요?(겔 32:1-10)	겔 12-32장
	하나님께서서 함께 하십니다(겔 48:30-35)	겔 33-48장
	기도의 사람, 다니엘(단 6:1-10)	단, 스 1-4장
	함께 마음을 모아요(에 4:1-17)	학, 숙, 스 5-6장, 에 1-10장
10월	성벽 재건을 통한 기쁨 나누기(느12:43-47)	스 7-10장, 느, 말
	큰 기쁨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마 2:6-10)	마 1-23장
	거친 풍랑을 넘어선 사랑(막 5:1-15)	마 24-28장, 막 1-13장
	십자가의 사랑으로(막 15:33-41)	막 14-16장, 눅 1-13장
11월	예수님께서서 부활하셨습니다(눅 24:44-53)	눅 14-24장, 요 1-6장
	예수님으로 풍성한 우리의 삶(요 21:24-25)	요 7-21장
	복음과 증인(행 13:1-3)	행 1-18:22, 살전
	오직 은혜, 오직 믿음(갈 3:1-14)	살후, 갈, 행 18:13-19장, 고전 1-11장

12월	오직 사랑으로(고전 13:1-13)	고전 12-16장, 고후, 행 20:1-6, 롬 1-7장
	부름 받은 그리스도인의 고백(행 26:1-18)	롬 8-16장, 행 20:7-28장, 엡 1-3장
	믿음의 가정, 세상에서의 승리(딤후 1:1-9)	엡 4-6장, 빌, 골, 몬, 딤후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히 12:1-3)	히, 약, 벧전, 벧후, 유
	그리스도인의 승리(계 22:10-21)	요일, 요이, 요삼, 계

## 세상에서

CLS 통(通) 시스템은 세상에서 스마트폰으로 1년10번 듣기를 생활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동행하는 삶을 말한다. 세상에서 일을 할 때, 산책을 할 때, 운전할 때, 혹은 쉬는 때, 홀로 있는 그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성경듣기를 삶의 체질화 하는 것이다.

### 1년 10번 듣기 생활화

세상 한복판에서 항상 말씀과 동행하는 방법이 성경듣기이다. “성경은1년에 10번 들을만한 책이다” 라고 통성경화를 말한 조병호는 성경듣기의 장점을 이렇게 말한다.

모세가 120세에 책 다섯 권(모세5경)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 60만명에게 선물로 건네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섯 권의 책을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섯 권의 책을 부모가 각자 자기 자녀에게 가르치는 방법으로 첫째,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둘째, 길을 행할 때에든지 셋째, 누웠을 때에든지 넷째, 일어날 때에든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집에 앉을 때에는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행할 때는 책을 읽을 수 없습니다. 누웠을 때나 일어나는 순간도 책을 읽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sup>14</sup>

우리는 음악을 들으며 운전을 하고, 라디오를 켜놓고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다. 불을 끄면 읽을 수는 없지만 들을 수는 있다. 누워서 책을 읽기는 힘이 들지만 들을 수는 있다. 눈을 감으면 읽을 수는 없지만 들을 수는 있다. 심지어 노동을 하면서 읽을 수는 없지만 들을 수는 있다. 등산을 할 때, 산책을 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성경듣기를 생활화하면 성경으로 세상을 보는 믿음의 시야가 열리게 된다.

성경듣기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스마트 폰을 활용하는 것이다. 레너드 스위트는 기독교(개신교)의 미래는 세상과의 소통 방식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책)술 발명에 힘입어 태어나 발전한 기독교가 구글로 대표되는 디지털 시대에 과연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 동안 구텐베르크의 인쇄 혁명의 영향을 받은 문자 문명 속에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 혹은 ‘글’ (word)을 신뢰하도록 훈련 받았다고 하면서 하지만 이제 우리는 글을 벗어나 디지털 시대에 문화의 언어를 익혀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 이라면서 “시대의 문화에 맞게 소통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sup>15</sup>고 설명했다.

우리가 세상 한 복판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스마트폰으로 하루에 1시간씩 매일 성경을 듣는 것이다. 조병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요즘 스마트폰에 대한 부작용이 심심치 않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을 가장 월등하게 사용하는 나라에 속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스마트폰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활용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로 녹음기를 들고 다니며 성경을 듣는 것은 너무 불

<sup>14</sup> 조병호, *48시간 역사순 성경듣기*, 15-16.

<sup>15</sup> Leonard Sweet, “Let’s Tong Scriptura’ Seminar” (당당뉴스 2014년 1월 18일)

편한 일이지만, 스마트폰은 사용도 간편하고,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매일 1시간씩 성경을 들으면, 1년에 10번 성경을 듣는 일은 너무 쉬워서 스스로도 다들 놀랄 것입니다.<sup>16</sup>

성경듣기는 성경읽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시간 확보가 수월하다.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듣기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출퇴근 시간과 휴식시간, 산책시간과 일하는 시간 등을 활용하여 성경듣기를 생활화 할 수 있다.

조병호는 ‘역사순 1년1독 통독성경’을 그대로 녹음하여 음원파일을 스마트폰 앱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2015년을 기준으로 전세계적으로 5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운을 받아 매일 역사 순으로 성경을 듣고 있다.

‘역사순 《1년1독 통독성경》’으로 하루에 1일치 분량을 듣고 읽으면 1년에 1독을 할 수 있으며, 1.4배속(권장배속)으로 하루 1시간이면 성경 10일 분량을, 36일이면 성경전체를 1번 들을 수 있다.

<표13> 1년 10번 듣기 일정표

36일듣기	통독성경365일날짜	통독성경범위
1일째	1-10일	창세기1장~30장
2일째	11-20일	창세기31장~출애굽기7장
3일째	21-30일	출애굽기8장~34장
4일째	31-40일	출애굽기35장~레위기22장
5일째	41-50일	레위기23장~민수기17장
6일째	51-60일	민수기18장~신명기6장

<sup>16</sup> 조병호, 48시간 역사순 성경듣기, 16.

7일째	61-70일	신면기7장~시편90편
8일째	71-80일	여호수아1장~사사기5장
9일째	81-90일	사사기6장~사무엘상10장
10일째	91-100일	사무엘상11장~31장
11일째	101-110일	사무엘하1장~22장
12일째	111-120일	사무엘하23장~잠언20장
13일째	121-129일	잠언21장~전도서12장
14일째	130-140일	욥기1장~42장
15일째	141-150일	시편1편~85편
16일째	151-160일	시편86편~열왕기상16:20
17일째	161-170일	열왕기상16:21~아모스9장
18일째	171-180일	호세아1장~이사야17장
19일째	181-190일	이사야18장~50장
20일째	191-200일	이사야51장~나훔3장
21일째	201-210일	요엘1장~예레미야28장
22일째	211-221일	예레미야29장~예레미야애가5장
23일째	222-231일	오바다1장~역대상29장
24일째	232-242일	역대하1장~36장
25일째	243-252일	에스겔1장~32장
26일째	253-264일	에스겔33장~다니엘12장
27일째	265-271일	에스라1~에스라6장
28일째	272-280일	에스더1장~말라기4장

29일째	281-289일	마태복음1장~28장
30일째	290-300일	마가복음1장~누가복음10장
31일째	301-310일	누가복음11장~요한복음11장
32일째	311-320일	요한복음12장~사도행전15:35
33일째	321-331일	사도행전15:36~고린도전서16장
34일째	332-342일	고린도후서1장~사도행전28장
35일째	343-353일	에베소서1장~히브리서13장
36일째	354-365일	야고보서1장~요한계시록22장

#### 영성과 사회성의 균형

CLS 통(通) 시스템은 세상 한복판에서 성경 듣기를 통해 각 시대마다 하나님과 동역했던 성경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면서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을 올바르게 계승해 나갔는지를 볼 수 있다. 우리는 성경의 사람들이 얼마나 영성과 사회성의 탁월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소개하는 성경의 인물들은 그 영성과 사회성의 균형을 갖춘 사람들이다. 특히 요셉, 다윗, 다니엘, 느헤미야와 같은 평신도들의 삶에서 신앙과 전문성은 별개가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신앙언어와 사회언어가 함께 있었다. 칼 바르트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한다” 라고 말했다. 그 말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서 나온 것이다. 성경 인물들의 조화된 영성과 사회성을 함께 읽어 갈 때 우리는 현대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 하나님과 이웃의 기쁨실천

‘하나님과 이웃의 기쁨 실천’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부분이고 이웃과의 관계부분이다. 예수님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율법을 정리하셨다.

조병호는 십계명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계명과 이웃의 기쁨을 위한 계명,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또 예수님께서서는 구약의 모든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해 주셨다(마 22:37-40). 하나님의 기쁨과 이웃의 기쁨, 이 두 가지는 함께 가야 한다. 성경의 핵심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구원 사역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이 사역의 중심에는 십자가 사건이 있다. 십자가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상기시킴과 동시에, 그 모든 죄가 씻음 받는 구원의 상징이다. 또한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실천이다. 바울은 복음을 위한 고난이 이후 영광의 면류관을 위한 과정임을 알고 있었다(롬 8:18). 그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자신 있게 당부할 수 있었다. 바울에게 복음은 기쁨 실천이었다.<sup>17</sup>

성경을 통독하게 되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즉 하나님의 기쁨과 이웃의 기쁨 실천에 대해 만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시면서, 친히 십자가 사건을 통해 기쁨을 실천하셨고,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기쁨과 이웃의 기쁨 실천을 위해 순종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 CLS 통(通) 시스템을 통해 바로 이러한 성경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의 기쁨 실천’은 성경을 통독하는 중요한 목적이 된다.

---

<sup>17</sup>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40-41.

## 제 V 장

### 결과분석: 통(通) 성경읽기에 대한 이리어양교회 성도들의 신앙성장 이야기

본 논문은 설문조사의 방식보다는 말씀대행진(통성경읽기)을 진행하면서 이리어양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교회가 변화되고 가정과 개인의 삶이 변화된 성도들의 진실한 간증을 통해 1년 1독 통성경읽기를 통한 신장 성장에 대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사도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고백했던 말씀처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한다. 교회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본질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리어양교회에서 성령을 통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 먼저 본 프로젝트가 실행된 이리어양교회 회중의 상황과 이리어양교회 소재지인 익산시와 도시 안에서 기독교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전라북도 중서부에 위치한 익산시는 호남고속도로가 전라도 땅에 들어서지는 초입이자, 철도의 중심지다. 인구 약 30만 명으로 호남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이며 행정 구역은 1읍 14면 14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면적은 507.1 km<sup>2</sup>이며, 인구는 2015년 10월 말 기준으로 30만2310 명, 12만2795 세대이다.<sup>1</sup>

---

<sup>1</sup> 익산의 통계, 월별인구현황 익산시홈페이지 (2015년 11월 30일 접속).

본래 익산 시내는 솜리, 솜니로 불렸다. 일본식 지명인 이리(裡里)는 이곳의 순우리말(구어) 옛 지명인 솜리, 솜니(솜리)를 한자로 옮긴 것으로 널따란 만경평야에서 구릉이 저, 멀리서 보면 속(습)으로 들어간 마을이라는 뜻이다.<sup>2</sup> 이렇듯 솜리는 만경강을 낀 만경평야 내 작은 촌락을 가리키는 곳이었는데, 조선총독부가 만경-김제평야에서 수탈한 쌀의 수송을 위해 호남선을 부설하고 익산역(당시는 이리역)을 세우면서 급격히 외형을 달리하게 되었다. 호남선(서울특별시-목포시)과 전라선(전주시-이리-군산시)이 교차하는 철도 교통의 중심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급격한 도시화가 이루어졌다. 호남선이 남북으로 지나가고 장항선과 전라선이 호남선 익산역에서 분기한다. 그리고 모든 KTX와 ITX-새마을, 무궁화호가 정차한다. 1977년 11월 11일 오후 9시 15분, 전북 이리시(현 익산시)의 이리역(현 익산역)에서 발생한 ‘이리역폭발사고’는 ‘이리’라는 곳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국가의 상당한 지원을 받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익산 현대 역사의 중요한 터닝포인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익산시는 토착종교인 원불교의 총본부가 있는 곳이다. 원불교는 유치원, 중·고등학교, 대학·대학원까지 갖추고 있는데 익산지역 유일한 4년제 종합대학인 원광대학교는 원불교 총부와 원광보건대학, 원광대학병원 등과 함께 지역경제와 교육, 의료, 종교 등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반면 기독교는 시내권에 이름난 미션스쿨이나 대형 기독교 병원 조차 갖지 못한 도시이고 특별한 기독교적 유서나 상징이 있는 것도 아니다.<sup>3</sup> 하지만 익산의 기독교 교회들이 연합하여 손잡고 원불교라는 공공의 적에 대항한 결과 복음의 황무지처럼 여겨지던 지역이 전체 인구의 34%가 기

<sup>2</sup> 홍석영, “소설가 홍석영이 말하는 내 고향 익산시,” (주간경향 2008년 1월 31일).

<sup>3</sup> 익산시 기독교계 학교는 시외지역의 진경여고와 성일고 두 개가 있다. 하지만 시외지역에 위치한 학교는 지역 내에서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

독교 신자로 전국 최고의 복음화를 기록한 도시 중의 하나이다. 익산시는 기독교인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14> 익산시 종교단체 현황

종교별구분	계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기타
시 설 수	506	414	42	16	21		12
신 도 수	174,753	109,208	31,780	19,485	11,575	927	1,778
교직자	891	757	51	38	32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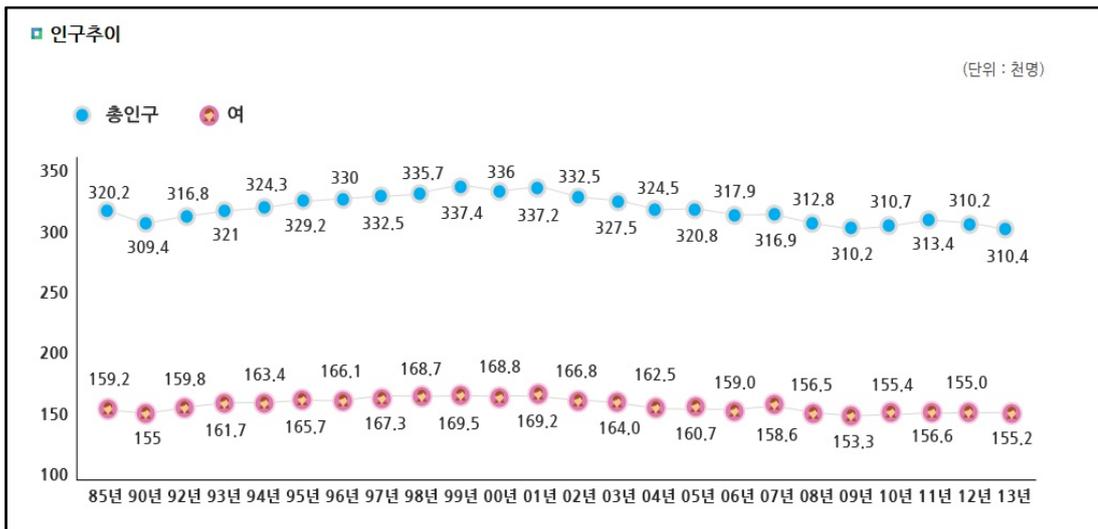
익산에 원불교의 총본부가 있다 보니 익산에서 원불교 관련 행사가 많이 열리고 그 외 종교와 관련 없는 가정의 달 행사들도 원불교가 많이 주도를 하는 편이다. 기독교는 그에 대응해 시내 종교접전이 벌어지기도 한다. 과거 기독교 축구단 할렐루야가 익산으로 연고를 옮겼다가 원불교 측의 텃세를 못 이기고 1년만에 김포로 연고를 옮긴 적이 있다. 그 후 2012년 들어 원불교에서 익산시 옹포면에 조성하려는 국제마음훈련원 건립을 둘러싸고 기독교 측이 집단 행동에 나서면서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2012년 12월, ‘공평사회시민모임(공사모)’은 시청 앞에서 기독교 단체 회원 3백여명과 집회를 열고 321억원 국·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국제마음훈련원건립’을 격렬히 반대했다.<sup>4</sup> 국제마음훈련원을 추진하려는 원불교와 혈세로 특정종교 시설건립을 반대한다는 일부 기독교로 양분될 위기로 치닫자 시민과 언론이 나서기 시작했다. 특정종교 포교에 국비 및 도·시비를 지원은 있을 수 없는

<sup>4</sup> 이들은 1만5300여명이 참여한 서명부를 시의회와 시장에 전달하고 ‘정부와 전북도, 익산시는 국제마음훈련원건립에 국민혈세 지원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12월 20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훈련원 예산지원안이 자동 무산됐다. 시의회 기획행정위는 2013년 6월 20일 재차 부결시켰다.

일이라며 건립반대 일부 여론도 있지만, 외국인 뿐 아니라 전국각지에서 명상과 힐링 프로그램을 위해 익산시 방문자들이 많아지면 시비 투자보다 지역사회 환원이 막대해질 것이라는 주장도 우세했다. 그러나 공사모 측은 극구 반대했고, 국제마음훈련원 건립은 무산됐다.

국제마음훈련원이 무산 수순을 밟을 즈음인 2013년 10월 말께 ‘원광대 수도권 이전설’로 익산시는 발각 뒤집혔고, 훈련원 무산으로 상처받은 원불교 총부까지 이전된다는 등 루머가 확산됐다. 원광대 이전설은 특히 원룸 등이 밀집된 대학로 일대에 큰 충격을 줬다. 원광대는 학생과 교직원 2만여명인 4년제 사립대학으로 익산 교육과 지역경제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인구 30만명의 익산에서 원광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 이상이다. 2011년부터 과거 10년간의 전년대비 인구 증가율을 살펴보면 인구가 점차 줄어들다가 2010년부터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를 연장하여 생각하면 향후에는 인구가 서서히 감소한다고 짐작할 수 있다.

<표15> 익산시 인구추이



원광대의 수도권 진출설은 위기에 빠진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돌파구와 지역사회에 대한 서운한 감정 표출 등 2가지 측면으로 압축된다. 원광대는 2년 전 재정지원제한대학이라는 오명을 쓰며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겪어왔다. 비록 1년 만에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호남 명문 사학이라는 이미지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미지 추락으로 신입생 모집이 더욱 힘겨워졌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결국 지방대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수도권 진출을 통해 신입생 충원을 해보겠다는 계획에서 이번 수도권 진출설이 터져 나온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함께 원불교 100주년을 기념해 전남 영광과 익산에서 추진하려 했던 국제마음훈련원 건립도 이번 수도권 진출설에 나름 한 몫을 더한 것 아니냐는 추측을 사고 있다. 영광은 착공과 함께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익산은 일부 기독교계의 반발과 이를 의식한 익산시의회의 예산 부결로 첫 삽도 뜨지 못하자 내심 지역사회에 대한 서운한 감정 표출이 일정 부분 작용했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원광대의 수도권 이전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일부 지방대학들이 수도권 진출을 통해 신입생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수도권 대학들도 신입생 모집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원광대가 무조건 수도권 진출을 통한 위기 극복을 하겠다는 비전은 오히려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없지 않다.<sup>5</sup>

원광대 이전설 핵심은 공과대학 일부 학과가 수도권 이전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대학의 공식발표는 없지만, 평택시 민간단체와 접촉을 통해 추진여부를 타진 중인 것이 확인되고 있다. 원불교 총부와 원광대학교가 평택시로 이전한다면 그 영향력은 익산시와 같은 중소 지방도시에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은 비종교계

<sup>5</sup> 김진만, “원광대 수도권 이전설 배경과 전망, 대학 경쟁력 확보·마음훈련원 양급”, (전북일보 2013년 11월 4일).

시민들은 원광대 이전설의 원인을 기독교 단체와의 대립이 주요 이유라고 평가하고 기독교 단체에 불만을 갖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익산시 할랄식품테마단지 조성, 반대 집회 및 성명서 발표 등으로 인해 익산 시민들 사이에서 기독교계가 지역 사회에는 무신경하면서도, 지역 사회 모두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는 무작정 반대를 한다는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이것은 향후 익산시 기독교계가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본 연구자는 2014년 2월 2일에 이리어양교회에 제3대 담임목사로 부임하였다. 부임 당시 교회의 상황은 몇 가지 심각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분쟁으로 인한 상처가 너무나 깊은 교회였다. 1979년 설립된 이리어양교회는 주일예배에 장년부가 300여명 출석하고 있었다. 교회 주차장 문제로 고심하던 교회는 어양동 27번지와 27-8번지 1700평 부지를 구입하여, 건축면적 879평, 연면적 581평을 건축하고, 2011년 1월 9일 준공하여 제3차 예배당(익산시 선화로 575-13)으로 이사하여 입당하였다. 하지만 교회 건축 후에 교회내부의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결국 2012년에는 장로 4인과 60여명의 성도들이 이웃교회로 옮겨갔다. 교회 내부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자 전임 담임목사도 2013년 11월 60여명의 성도들을 데리고 어양동에 개척하였다. 그리고 교회의 내분이 계속되자 소리 없이 제3의 교회로 빠져나간 성도들도 상당수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교회는 많은 고소, 고발로 인해 법정싸움이 있었고, 상처받은 성도들은 마음 문이 닫혀 있었다.

둘째, 교회 부채와 재정의 문제였다. 두 번의 계속된 교회 분쟁 후에 남은 성도는 70~80여명이었고, 부채는 11억 9천만원이었다. 매월 대출이자와 교회 경상비에 대한 지출예산은 세웠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입예산은 어떻게 세워야 할 지 막막했다. 부임 당시 주변 목회자들은 부채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실제로 부임 첫 해에는 교회 재정이 몇 달 동안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였다.

셋째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가 약해진 것이다. 전임 목회자가 현 교회에서 가까운 인근에 개척을 하였기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목회자에 대한 배신감과 불신이 남아 있었다. 그래서 새로 부임한 목회자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은 채 관망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미 상처 입은 성도들은 목회자의 설교 본문에도 민감하여 특정인을 겨냥한 표적설교라는 오해를 받기도 쉬웠다. 이런 문제로 인하여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경 전체의 큰 그림을 통(通)으로 보는 통찰이 더욱 절실했다. 그래서 ‘1년 1독 말씀 대행진’을 실시함으로써 부분과 전체, 공시와 통시, 하나님의 마음 훈련하였다. 여기서 웨슬리안 리더십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종종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대립으로 인한 긴장의 압력이 위험 수위를 넘었다고 느끼게 될 때, 자신에게 현명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것은 대중의 인기와 영합하는 ‘무엇’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도 아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는가?’도 아니다. 그 보다 현명한 질문은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이다.<sup>6</sup>

예레미야처럼 절망 앞에서 희망을 가져야 한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렘 33:3) 초대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던 것처럼,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지금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

<sup>6</sup> Lovett H. Weems, Jr., *Leadership in the Wesleyan Spirit*, 원종국 역, *웨슬리안 리더십* (서울: 도서출판 KMC, 2007), 98.

이리어양교회는 1년 1독 성경통독 말씀대행진을 실시한 결과 상처받은 마음들이 치유되고, 서로간의 신뢰가 회복되어 교회 안에 은혜가 넘치면서 부흥하기 시작하였다. 부임 당시 70~80명 수준의 주일예배 출석인원이 2년만에 150~160여명의 출석인원으로 증가했다. 2년동안 85명의 새가족이 등록했고, 대부분이 잘 정착하여 한 가족처럼 신앙생활 하고 있다. 시험에 들어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생활을 중단했던 사람들도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였다. 마이너스가 계속되며 늘 불안했던 교회재정도 계속 상승하여서 2015년부터는 교회재정이 항상 플러스가 되었다. 그리고 대출이자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원금상환이 이루어지면서 구제와 선교사업에도 헌신하게 되었다. 1년 1독 통(通) 성경읽기로 인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생겼고, 기도의 응답과 능력이 나타났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변화되었다. 통(通) 성경읽기의 결과로 나타난 몇 가지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교회가 하나 되었다.**

교회가 하나되는 것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분쟁이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하였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전 1:10)

1년 1독 통(通) 성경읽기는 전 성도가 매일 같은 말씀을 읽으며 통(通) 스토리 듣기로 같은 말을 하게 되었다. 매일 성경통독 범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며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다. 성경을 통해 함께 기도하면서 같은 뜻을

품게 되었다.

첫째, 부분이 아닌 전체로 성경을 읽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 읽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읽으면서 개인의 주장을 펼치기 보다는 교회 전체를 생각하는 자세를 갖게 되었다. 둘째, 역사순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앞에서, 지난 날 교회의 잘못을 회개하였다. 셋째,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심히 좋아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한탄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였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위로하면서 개인의 감정을 앞세우기 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었다. 다음의 내용은 이리어양교회 성도들의 간증문이다.

• 간증문1: 이석익 (55세, 남, 중소기업 대표)

가난했던 시절 홀로되신 어머니는 어린 저를 데리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다녔습니다. 하지만 청년기에는 방황하며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30대가 되어 독실한 신자였던 아가씨와 선을 보게 되었는데, 결혼을 목적으로 ‘교회에 잘 다니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리어양교회에 다니며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 아들 두 명을 낳아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였지만 경제적으로는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어린 두 자녀를 남겨두고 인도네시아로 2년간 해외근무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가정을 책임져야 했기에 해외근무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회사 사장님 아내께서 인도네시아에 가면 시간도 많을 텐데 읽어보라며 성경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풍습도 다른 이국 땅에서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 천 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가방에서 성경책을 발견했습니다. 주신 분의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읽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읽는데 발음하기도 어렵고 이해도 되지 않고 줄리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다가 덮어버렸습니다.

1년 후 출장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을 때 교회에서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저에게 집사직분을 주셨습니다. 성경도 제대로 찾지 못하는 집사’ 저 자신이 부끄러워 오기로라도 성경을 차분하게 읽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아침에 일찍 회사에 출근하여 의무감으로라도 용기를 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하나님은혜로 말씀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성경일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개인적으로 제일 산업기계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쇠붙이를 녹이고 만드는 일들은 고정된 거래처가 없고 미래가 보장되는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자녀 교육비와 생활을 위해 나의 욕심은 끝이 없고 거친 일 가운데 사람들과 부딪힘, 원망, 불평 신앙인으로 자책감과 낙심이 밀려왔습니다. 마음이 많이 곤고했지만 그 때마다 성경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의지하고 힘든 세월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계작업을 하다가 손가락 2개가 손상되었습니다. 그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는 말씀에 의지하여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리어양교회에 윤광석 담임목사님께서 새로 부임하여 오셨습니다. 목사님께서서는 세상 사람들도 년 초에서 금주, 금연 목표를 세우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1년 1독 목표를 새벽마다 성경을 읽자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 매일 읽어야 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성경은 두껍고 어려운 책이 아니며 성경은 얇은 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읽어야 한다고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실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동안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만 읽으며 말씀을 편식하듯이,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서로 편애하면서 분쟁하고 갈등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품고 용서하면서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한탄 하시는 마음을 읽으면서 서로의 아픈 마음을 보게 되었고, 서로의 마음에 기쁨을 주기 위해 예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통성경읽기를 통해 교회가 하나되었습니다.

이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임을 고백하며 하루하루 거칠고 강한 세파 속에서 새벽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니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리도 새벽이 기다려지고 말씀이 기대 됩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의 주님을 모시고 거칠었던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쉽게 혈기를 부리고 함부로 말하던 제가 내가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하고 살려고 몸부림 치고 있습니다.

## 삶이 변화 되고 신앙이 성장하였다.

1년 1독 통(通) 성경읽기는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신앙이 성장하도록

하였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책이다. 성경을 통해서 죄를 이기는 힘을 얻게 된다.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여러 유혹을 이겨 낼 수 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때 우리의 걸음은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실천할 수 있게 한다.

• 간증문2: 김혜정(40세, 여, 직장인)

저는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성경말씀을 접했습니다. 물론 그때의 기억은 스스로 할 수 없지만, 어머니께 들은 바로는 말씀 통독과 묵상, 찬양과 기도로 태교를 하셨기에 저는 복되게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확실합니다. 모태 신앙으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예배하고 설교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며 자랐습니다.

장성하여 청년이 되자, 교육전도사님께서 QT의 필요성을 강조하셨고, 날마다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해보라고 권유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학 시절 동안 포켓만한 QT 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스스로는 내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작은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의 시작으로 분주하고 바쁜 나날들 속에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그 동안 열심히 QT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그 때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뭐지?’ 돌이켜 곰곰이 생각을 해 보아도 제 삶에 무엇이 변화되었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체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물 흐르듯이 나이를 먹고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했다는 사실 가지고는 일반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일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지만, 제 삶의 구체적인 상황과 처지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지시고 일하셨는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윤광석 담임목사님이 부임해 오셔서 ‘1년 1독 성경통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성경 전체를 역사 순으로 정리해서 바라볼 수 있다는 관점의 변화였습니다. 그 동안 66권 순서대로 통독과 묵상을 했을 때에 헛갈리고 난해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선지서의 경우, 시간의 역사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니다. 시간이 섞이기도 하고 역행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역사 순으로 보게 되니까 훨씬 더 이해가 빨랐습니다. 또한 시간 순서에 따라 성경을 바라보게 되니,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심판을 하셨고 왜 이런 재앙을 내리셨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고난을 겪을 수 밖에 없었는지, 왜 그 때에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일하셨는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의 원인과 과정과 결과의 연결 고리가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제게 주신 새로운 은혜와 감동은 이렇습니다.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듣고 읽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았었는데, 통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한 눈에 보게 되었다니, 1점 1획도 어긋남이 없이 완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저 자신은 무릎을 꿇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애굽의 노예생활에서 해방시키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 중에 불평, 불만이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마치 제 자신을 거울로 보는 것 같아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평범하지 않은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왜 이 불화를 그냥 두고 보시는지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지면서 기도했던 저 자신을 알기에,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름 바가 없구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고 힘든 고난만 불평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를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으셨는지 어느 날 제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학교 다닐 때에도 겪어본 적 없는 왕따를 직장에서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내가 잘못된 것을 찾을 수가 없는데 여성 동료들이 이유 없이 저를 괴롭히고 유언비어로 소문을 내서 저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직장 내에 파다하게 퍼지고, 저를 안쓰럽게 여겼던 남자 동료들이 저를 위로하자, 그것이 화근이 되어 여성 동료들은 제가 직장을 그만두게 만들려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제 안에 가득 차면서 날마다 출근하는 것이 지옥 같았기에, 30일 작정 기도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밤 11시가 넘은 늦은 시간에 한 달 동안 교회에 찾아가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응답을 주셨습니다. “딸아. 말씀과 성령으로 너를 단장하라. 순결한 신부로 준비하라.” 는 하나님의 음성이 제게 들렸습니다(계 21:2; 22:17).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직접 만났습니다. 그 분이 진짜 살아계심을 확인했습니다.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였습니다. 용으로 대변되는 대적자 들이 만국을 다스릴 아기를 휘방하기도 하고, 해산한 여인을 핍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휘방자 들을 하늘에서 땅으로 쫓아 내십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제국의 박해는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믿음을 지켜 나간다는 것이 때로는 죽음을 각오해야 할 만큼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의 세력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환상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매번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불평, 불만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저를 이렇게 만나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지금도 저는 ‘미리 건네 받은 승리의 노래’ 를 부르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 간증문3: 황지혜(29세, 여, 공무원)

나는 모태신앙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떠난 삶은 없었다. 하지만 진정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만나주시고, 내가 선택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든다. 모태신앙인 내가 하나님을 섭리하심을 뒤늦게 알게 된 이유에는 그 동안 성경읽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성경을 영의 양식으로 매일 읽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에는 성경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다. 예배를 드리며 장절로 그날의 본문 말씀 정도를 묵상하며 살았다. 말씀 배우기에 열의를 내서 참여한 적도 없었고 교회에서 성경공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회도 별로 없었다. 부끄럽지만 성경일독을 온전히 마친 적이 없는 것 같다.

지금까지 내가 성경통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던 이유를 생각해 보았다.

첫째는 학습 하듯이 성경을 읽었기 때문이었다. 학습적으로 공부하듯이 읽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좌절하고, 그런 부분이 쌓이면서 어느 순간 읽기가 꺼려지게 되어서 포기하게 된 적이 많았다.

둘째는 성경을 연결해서 이야기로 보지 못하고 끊어서 부분적으로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다 보니 성경통독을 결심하고 시작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이 어려웠다. 모세5경처럼 시대 순으로 이어지는 성경말씀도 있지만, 역사서나 선지서는 인물들과 사건들이 퍼즐 조각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보니 인물과 지명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성경은 너무 어려운 책이었다. 그래서 성경완독을 포기하고 또 다시 내가 읽고 싶은 곳만 골라 읽는 습관이 지속되었다. 그런데 윤광석 목사님께서 ‘1년1독 말씀대행진’을 실시하셨다. 통독성경과 통독큐티를 구입하도록 권면하셨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성경읽기가 즐거워졌다. 약간 흥분되기도 하고 어렵듯이 부분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사실들을 서로 연결하여 현실감 있게 이야기로 배워 나가는 것이 재미있었다. 그리고 하루하루 1년1독 성경통독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고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고 변화되어가는 내 모습에 너무 감사하다.

1년1독 통성경읽기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매일 읽는 것이다. 정말 계획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매일 읽는 것이다. 목사님께서 성경은 영의 양식이라고 늘 강조하셨다. 매일 세끼 밥을 찾아 먹는 것처럼 기록된 모든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 빠뜨리지 말고 매일 읽어야 된다고 하셨다. 말씀을 읽는 삶과 말씀을 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을 나는 내 삶 속에서 느끼고 체험하고 있다. 내 감정에 의존하거나,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서 성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내 자신의 의도와 목적이 맞추어 내가 읽고 싶은 말씀만 골라 읽었기 때문이었다. 담임목사님께서 성경통독은 지식만을 쌓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단순히 성경의 지식을 알아가고 정리해가는 것이 아니라,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며 성경을 읽는 사람은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가면서 읽어야 한다는 강조하셨다. 지금까지 나의 성경읽기는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파악하지 않고 내 중심의 성경을 읽기를 해 왔던 것 같다.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알아가려는 의지와 노력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내 자신의 의도와 목적이 맞추어 내가 읽고 싶은 말씀만 골라 읽었던 것이다. 그러다보니 성경해석도 자기중심적으로 하게 되었고 나의 삶도 인본주의에 기반 하여 자기중심적인 소원성취를 위해 살아왔다.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내 자신을 위해 경험하는 모든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현재 내 삶에만 치중하는 이기주의의 삶을 살아왔다. 그런데 1년1독 통성경읽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니,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열리게 되었다. 하나님과 이웃의 기쁨실천을 위해 섬기는 변화된 내 자신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성장하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오직 성경뿐임을 깨닫게 되었다

현재 목장에서 청년들과 교제하고 있지만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청년들이 말씀읽기에 익숙하지가 않다. 청년들뿐 아니라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성경통독 어플을 추천하면서 함께 성경읽기에 동참하도록 권면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서 통성경읽기를 계속 유지하면서 전교인이 참여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고 실천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한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지만 느끼게 된 지금도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한 마음이다.

### 성경이야기로 전도가 가능해졌다.

성경을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입으로 읽다 보니 나중에는 성경이야기로 전도가 가능해 졌다. 성경이 어려운 책이 아니라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인식되면서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5대제국이야기, 7트랙과, 성경 40줄기등의 이야기를 가지고 일상 생활속에서 불신자 들과 성경의 대화가 가능해졌고, 전도하게 되었다.

#### • 간증문4: 이성구(64세, 남, KT정년퇴임)

아버지께서 소천 하신 뒤, 아버지의 그 자리를 지키며 새벽기도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지난날은 그저 무의미하게 형식적으로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그저 교회에 가지 않으면 짹짹해서 교회에 갔다 오는 무의미한 신앙생활 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있는 저를 발견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성경을 완독하지 못했었는데 새벽기도회를 참석하니 저절로 성경 일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66권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간과 공간이 다름에도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되고 일점일획도 틀림이 없는 말씀에 또 한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순 성경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냥 성경은

순서대로 읽어야 하는 줄 알았는데 새벽마다 역사순으로 읽어가니 목사님 설교 말씀과 더불어 이해가 되고, 왜 이런 말씀이 담겨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레위기가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으로 1년 10번 듣기로 매일 일상생활 중에 말씀을 들으면서 저의 삶은 많은 것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나이 60이 넘으니 눈에 노안이 와서 성경을 읽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지명이나 사람 이름들이 나열될 때는 눈도 어둡고, 혀도 잘 돌아가지 않아서 성경읽기가 어려웠는데, 스마트폰으로 매일 성경을 빠르게 듣다 보니 어느 순간 성경의 이야기가 연결되는 것처럼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승용차 안에서 운전하면서도 말씀을 듣고 다닙니다. 세상 유행가에 그저 흥얼거리며 살았던 지난날이었지만 지금은 성경 말씀 듣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입이 열려서 다른 사람에게 성경 이야기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 일을 하고 있는 김태우씨를 성경이야기로 전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할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매일 새벽 성경을 읽고 일상생활 중에 성경을 계속 들으면서 성경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합니다 또 자녀들에게도 성경읽기를 권유 합니다 마치 20년전 아버지께 제가 말씀하셨듯이 똑같은 모습입니다. 좀 더 빨리 세상을 깨닫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불안한 삶이 아니라 평강의 삶, 기쁨의 삶이 전도의 삶이 없을 텐데 하는 생각도 있지만 지금도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 합니다.

• **간증문5: 윤예은(22세, 여, 대학생)**

목회자의 가정에서 1남2녀중 장녀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중.고등학교도 미션스쿨(기독교 학교)을 다녔던 저는 선생님, 친구들의 기대와 시선 때문에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노회에서 실시하는 성경고사에 나가기 위해 열심히 성경공부를 했습니다. 목회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빠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열심히 성경고사를 준비 했고, 매번 성경고사에서 입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성경고사를 위한 암기위주의 성경공부였습니다. 그 성경지식이 저의 신앙을 성장시키거나 저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적 가치관과 비전이 확실히 않았으니까요.

또한 유년시절에 성경을 많이 읽기도 했습니다. 동생들과 다투거나, 시험성적이 떨어지거나, 제가 어떤 실수나 잘못을 하면 엄마는 성경읽기를 형벌로 내렸습니다. 어떤 때는 성경 10장, 어떤 때는 성경 30장, 잘못이 클수록 성경읽기의 분량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읽기가 저에게는 고통이었고, 재미없고 지루한 것 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성경통독 수련회를 가게 되었고, 수련회를 통해 역사순으로 성경 읽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동화책으로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지만 역사순으로 성경을 봤을 때 제가 알고 있던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고3이 되고 수험생 생활을 시작하게 될 많은 기대와 관심 속에 대학에 잘 들어가야 한다는 부담감에 성경읽기 보다는 공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수련회를 통해 성경통독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셨기에 고3중에도 매일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조병호 박사님이 쓰신 성경의 5대 제국 책을 읽으며 공부할 때, 서양역사책에 쓰여져 있었던 왕들의 이름이 성경역사와 연결이 되고, 더불어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니 더욱더 성경이 사실임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대화하면서도 자연스럽게 5대제국 이야기를 하다가 성경이야기로 전도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면서 교회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려울 때도 있지만 성경을 역사순으로 읽고 난 후부터는 5대제국과 역사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성경이야기를 하면서 친구들을 전도할 기회도 생겼습니다. 특히 일년일독 통독성경의 통독내용정리는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과거에 가정예배를 드릴 때는 성경을 읽기는 읽어도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아 어려웠는데, 일년일독 통독성경의 통독내용 정리를 읽으면서 통독하면 성경이야기가 줄거리로 쉽게 다가왔습니다. 지금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 제 VI 장

### 결 론

#### 요약 및 평가

지금까지 통(通) 성경읽기를 통한 신앙성장에 대한 연구내용과 프로젝트 실행과정을 살펴보았다.

I 장 서론에서는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의 근본정신인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선언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면서 부분적이고 편향적 성경읽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과 대안으로 통성경읽기를 제안했다.

II 장에서는 성경읽기와 신앙성장에서는 신앙성장을 위해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Wayne Davies의 책 『신앙성장을 위해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 10가지: *Top 10 Reasons to Read the Bible Today: The Life-Changing Benefits of Daily Bible Reading*』를 소개하였다. 성경읽기와 영적 성숙에 대한 연구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수행되었는데, 그 결과 영적 성장을 예측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가 매일 성경읽기였다. 1년1독의 성경읽기 방법인 장르별 성경읽기, 연대기성경읽기(The Chronological Bible) Chronological(연대기), 맥체인식 매일성경읽기(M' Cheyne)을 장단점을 살펴보고 비평하였다. 복음을 상대주의와 다원주의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속에서 가장 필요하고 유익한 1년1독 방법으로 통(通) 성경읽기를 제시하였다. 부분과 전체로, 역사순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는 1년

1독 통독 성경은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가져올 것을 확신한다. 특히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그 밖의 많은 이단들이 득세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존 신자를 미혹해오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통(通) 성경읽기는 이단들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지켜줄 것이다.

Ⅲ장 통(通) 성경읽기의 이해에서는 21세기에 필요한 총체적 삶의 방식인 통(通)의 개념을 설명하였다. 통(通) 성경읽기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성경줄기 40개 이야기, 역사순 배열 순서, 20마당 하나님의 마음을 자료로 제공하였다. 통성경읽기와 통찰에서는 통(通)의 방법으로 성경전체의 큰 그림을 보게 되면 성경 66권을 습득(習得, learning)하고, 터득(攄得, understanding)하고, 통찰(洞察, penetration=insight)하여 시간·인간·공간, 개인·가정·나라, 제사장나라·5대제국·하나님나라를 통(通)으로 보게 된다.

Ⅳ장에서는 성도들의 삶의 공간인 교회·세상·가정에서 통(通), 삶의 시간, 새벽·종일·저녁시간에 통(通), 삶의 인간관계속에서 공동체모임·소그룹모임·개인별로 통(通)을 실행하는 CLS 통(通) 시스템을 소개했다.

- 매일 : 교회 - 새벽 - 대그룹 - 1년 365일 - 역사순 성경통독 진행
- 주중 : 가정 - 저녁 - 소그룹 - 1년 52주 - 주간 통독범위 나눔 진행
- 종일 : 세상 - 종일 - 개인별 - 1년 10듣기 - 스마트폰 어플 ‘1년10번

CLS 통(通) 시스템은 ‘삶의 우선순위’와 ‘영성과 사회성의 조화와 균형’이며 ‘하나님과 이웃의 기쁨실천’을 목표로하고 있다.

V장 결과분석: 통(通) 성경읽기에 대한 이리어양교회 성도들의 신앙성장 이야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실었다. CLS 통(通) 시스템은 프로젝트 실행 후에, 성장과 변화된 삶의 간증을 실었다. 설문조사의 방법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도 있는 간증문을 통해 분열의 아픔을 겪으며 상처 받았던 마음들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예수의 마음을 품고 교회가 하나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매일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분노가 조절되고, 욕망을 절제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헌신하는 열정이 더 뜨거워졌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통성경읽기를 통해 성경이야기로 전도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기독교의 이미지가 땅에 떨어지고, 불신자의 벽이 높아진 현 시점에서 통성경읽기는 성경을 통한 이야기 전도의 방법을 제시해 주었다.

## 결론 및 제언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염려하지만, 필자가 만난 성도들 대부분은 성경을 읽고 싶은 열망과 결심을 모두 갖고 있었다. 다만 성경읽기의 방법이 잘못 됨으로 인해 성경읽기가 지루하고 어렵게 인식되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못하거나, 성경을 읽어도 자기가 보고 싶은 부분만 보게 되는 부분적이고 편향적 성경읽기가 되어 버린 것이다. 이제 통(通)성경읽기는 개인, 가정, 교회, 나라 가운데서 조화와 균형을 갖춘 깊은 영성과 높은 사회성의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웃의 기쁨을 실천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시민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개인에게는 세상에서 항상 성경듣기를 실행 함으로서 세상 한 복판에서도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순종하는 신앙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가정에서는 소그룹모임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교회에서는 공동체 모임을 통해 매일 새벽 통성경읽기를 통해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 최고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섭리를 체험하기를 원한다. 통(通) 성경읽기는 성경의 큰 그림을 보면서 큰 꿈과 비전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 부록 I. 한국 신학자 140인 서울 선언: 성경을 통(通)한 재정향(ReOrientation)

### 1.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호소

한국 교회 140인의 신학자들이 2008년 6월 2일 서울에 모였다. 이 모임에는 한 주님, 한 성경을 믿는 여러 교단에 소속된 신학자들이 참여하였다. 그동안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에 미진했음을 통감하면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재확인하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민족과 사회의 희망임을 재각성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 신학자들은 각자가 소속된 교회의 전통에 충실하면서도,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에 대처하는 유일하고 적합한 방안을 “성경”에서 찾는다. 상대주의 및 다원주의와 맥을 같이 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흐름 속에서 성경의 권위가 지구촌 곳곳에서 실추되어 가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집중해 가는 세속주의와 무신론의 도전 앞에서 성경의 권위를 확인하고, 성경을 통(通)한 재정향(ReOrientation)에 주력할 것을 다짐한다. 더불어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교회의 사유화 및 기복주의 신앙과 교회의 분열이 성경의 참뜻으로부터 멀어진 것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식하고, 성경 앞에 올바르게 서서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바로 새길 것을 결의한다. 이에 신학자 140인은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성경의 진리 위에 확고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신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 2. 한국 신학자 140인 서울 선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기초한 기독교는 지난 2000여 년 동안 신구약 성경을 기독교 신앙의 유일한 정경으로 믿어왔다. 그리고 서구 기독교로부터

복음을 전해 받은 한국 기독교는 지난 120여 년 동안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그 권위를 인정해 왔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이해하며,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법론적 접근에 있어서는 여전히 미흡하고 불완전한 부분들이 발견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동안 성경을 전체가 아닌 부분으로 읽어왔다. 서구 기독교가 서구의 지식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는 분석적, 해체적, 단절적 방식으로 성경을 접근해왔고, 동양의 기독교 신학자들 역시 그러한 서구의 방식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정도(正道)로 삼는 경향이 짙었다. 그러나 이 같은 부분적 성경 읽기는 시대적 상황과 현실 이데올로기에 따라, 성경의 읽기 범위와 이해의 방향을 임의로 결정하게 함으로써, 성경이 시대적 상황 해석에 도구화되는 폐단을 낳았다. 물론 성경을 해석하는 정황으로서의 인류 문화의 다양성은 인정되어야 하며,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사회 안에 면밀히 개입하심을 통해 세계를 경영하신다. 그러나 가변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 상황이나 특정 문화 속에 성경은 갇힐 수 없다.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요,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모든 것들을 측량하고 판단하며 바로 세우는 절대불변의 기준이자, 무한히 샘솟는 생명과 진리의 보고(寶庫)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성경에 근거한 삶을 살기로 꿈꾸는 그리스도인이자 성경의 진리를 따르는 신학자로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정직하게 인식하고 창조적 해결점을 찾아가야 할 시대적 요청에 직면해 있다. 개인의 신앙과 개 교회는 물론, 기독교를 받치는 기둥으로서의 신학까지 성경을 통해 재정향해야 하는 것이다.

성경을 통(通)한 재정향(ReOrientation)은 성경에서 벗어난 목회와 신학의 오류(hamartia: ἁμαρτία)에 대하여,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지속적인 회개의 방향수정(metanoia: μετάνοια)을 해 나가는

것이다. 교회 행정의 불투명성과 개 교회의 양극화 및 성장이라는 목적에 편중되어 있는 목회가 성경이 지시하는 복음의 진정성으로부터 떨어져 있음을 시인하고, 성경을 상대적인 요소에 종속시켜 온 지금까지의 과오에서 돌이켜야 한다. 더 나아가 성경의 본래적인 뜻을 찾아내며,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성경을 바탕으로 모든 기독교 신앙과 신학의 근간을 다지는 것이 우리 신학자들의 사명임을 재확인한다.

이에 한국 신학자 140인은 기독교의 정경인 성경을 통해 한국과 세계 교회의 신학이 재정향 되어야 함을 아래와 같이 밝히며 우리의 신학적 입장을 천명한다.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전 3:11)”

(1) 먼저 우리 한국의 신학자들은 성경의 부분적 읽기와 그에 따른 성경의 상대화라는 결정적인 과오를 반성하는 가운데, 성경을 진실하게 전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한 것을 회개한다. 우리는 성경 중심의 신학교육을 하지 못했으며, 사회에서 예언자적 역할을 소홀히 했던 것을 반성한다.

(2) 신학의 첫째 목적은 매 시대마다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재발견하고, 바르게 재해석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 시대의 교회의 위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고백이 흔들리는 것과 교회의 정경으로서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적으로 예수를 앞서 있었던 이스라엘의 예언자들, 그리스의 철학자들, 동양의 성인들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요 1:15)는 세례자 요한의 증언을 능가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

(3) 성경적 기독교는 복음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한다고 고백한다(고전 15:3-4). 18세기 이후 성경에 대한 역사비평이 시작된 이래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신학자들은 성경적 기독교의 대속의 교리를 거부하고 십자가의 걸림들을 회피하려 한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신학의 다른 터를 닦으려는 자들은 역사적 예수를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와 분리하려 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의 영을 받은 성경적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죄로 죽었던 상태에서 용서받고 다시 살게 하는 능력이 된다.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의 하나님 나라 선포, 가르침, 삶과 죽음이 옳았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입증과 변호이다. 이에 우리는 십자가의 걸림들을 제거한 영지주의 문서들과 달리 성경적 복음서들이 모두 일치하여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통해서만 부활과 영광의 길이 가능함을 증언한다고 믿는다.

(4) 우리는 신약 성경 66권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균형 있게 인식하며, 성경의 본래적 의미를 헤아려가고자 하는 노력이, 시대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이를 위한 최선의 대안으로 성경을 부분이 아닌 전체로 보고 그 성경의 본래적 의미를 헤아리는 성경읽기 방법을 제시한다. 성경의 본래적 의미에 올바르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추구해 온 통시적(通時; diachronic) 성경읽기 방법과 공시적(共時; synchronic) 성경읽기 방법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더 깊이 드러나게 하려는 선상에서 아우러져야 한다. 또한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 서양의 분석적 해석과 동양의 직관적 해석의 장점을 함께 살려서 성경을 정경적이며 동시에 심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처럼 독창적이고 주체적인 성경읽기 방식을 배양하여 세계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사명이 바로 우리 한국 신학자들에게 있다. 이에 우리는 성경 전체를 그 흐름에 따라 통(通)으로 봄으로써 성경적 기독교의 기반을 바로 세우고자 한다.

(5) 성경적 기독교는 성경을 통한 재정향에 의해 교회의 본질 회복과 근본적인 방향전환을 시도한다. 예수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고, 선포하셨을 뿐 아니라, 말씀대로 사시고 실천하셨다.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므로 성경적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 성전을 숙정하신 예수처럼(요 2:13-22),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죄악과 불의에 맞서 싸우며, 교회의 참된 회개와 개혁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와 사회 그리고 역사 한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고(마 7:21) 고난당하고 죽음으로써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결의한다(롬 6:5).

(6) 성경적 기독교는 성경을 통한 재정향에 의해 신학의 근본적인 방향전환을 시도한다. 신학은 십자가 없는 부활, 고난이 없는 영광, 사랑이 없는 믿음, 값싼 은혜를 좇는 교회로 하여금 성경을 통해 재정향하도록 도전해야 한다(약 2:14, 24). 신학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성경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신학이 새로워지려면 옛 것이지만 가장 새 것이기도 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며, 그것은 그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보혜사 성령은 신학자들로 하여금 신학과 신학교육을 성경을 통해 재정향하도록 부르신다. 우리는 우리 신학의 길을 성경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재정향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

(7) 성경적 기독교는 성경을 통한 재정향에 의해 지구촌 사회의 근본적인 방향전환을 시도한다. 오늘날 과학기술 및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 가속화되는 세계화(globalization)는, 우리에게 기회가 되기도 하고 위협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세계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삶의 방식과 정치경제적 구조는 성경 말씀에 따라 재정향될 필요가 있다. 특히 하나님을 부정되는 사회에서 비롯되는 생명경시주의, 물질만능주의, 권력지향주의, 과당주의와 사회의 각종 부정부패 및 환경 파괴와 생태계 오염 등에 단호히 맞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고 성취해야 한다. 성경이 증언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 있다(계 21:1).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생명에게 성결과 행복을 가져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에 적극 동참하고자 한다.

우리 한국 교회 140인의 신학자들은 이상의 선언을 통해 한국 교회와 신학 그리고 신학교육이 성경을 통해 재정향 되어야 함을 천명한다. 우리는 이 신학자 선언에 동의하는 모든 신학자들, 목회자들, 평신도 지도자들이 그들의 신학교육, 목회, 그리고 선교의 현장에서 성경을 통한 재정향의 삶을 실천할 것을 정중히 제안한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오늘 우리 기독교의 삶을 통해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증언되며 실천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한다. 우리는 향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계 교회와 더불어 성경을 통한 재정향 운동을 지속해 갈 것이다.

2008년 6월 2일

한국 신학자 140인

부록 II.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회복을 위한 대헌장

A Magna Carta for Restoring the Supremacy of Jesus Christ

### 21세기 교회를 위한 예수 선언

#### A Jesus Manifesto for the 21st Century Church

레너드 스위트(Leonard Sweet), 프랭크 바이올라(Frank Viola)

크리스천들은 복음을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많은 여러 가지 것들로 바꾸어 놓았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들을 한데 모으고, 그것들에게 중요성과 현실성, 그리고 의미를 주는 중력의 당기는 힘(the gravitational pull)이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모든 것은 가치를 상실한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모든 것들은 우주 안에서 떨어져나간 조각처럼 부유하게 된다.

모든 영적 진리, 가치, 덕, 은사의 구현이며 화육이신 그리스도를 잇은 채 영적 진리, 가치, 덕, 은사를 강조하는 것은 가능하다.

진리, 가치, 덕, 또는 영적 은사를 추구하면서 생명력을 잃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리스도를 품으며, 그리스도를 알면, 생명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주 안에 모든 진리와 가치와 덕과 은사가 생명력 있는 모습으로 존재한다. 아름다움은 우리를 사랑스럽고 사랑할만한 존재로 만드시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안에서 의미를 가진다.

기독교는 무엇인가? 기독교는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기독교는 이념이 아니다. 기독교는 철학이 아니다. 기독교는 한 개인에서 발견되는 아름다움, 참됨, 선함에 관한 “복된 소식”이다. 성경의 공동체는 그 개인에게 연결된 곳에서 세워지고 발견된다. 회심은 방향의 전환 그 이상으로 관계의 변

화이다. 예수께서 사용하신 고대 히브리어 슈브(shubh) 또는 아람어 동의어에서 “회심” 에로의 부름은 하나님을 먼 곳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 관계의 중심에 계시는 관계 속으로 들어 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날 교회 속에서 엄청난 단절을 감지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앓고 있는 가장 심각한 질병은 예수 결핍 장애(JDD: Jesus Deficit Disorder)라고 믿는다. 개인으로서의 예수 점점 더 정치적으로 부적절하게 여겨지며, 예수는 “정의,” “하나님의 나라,” “가치,” 그리고 “리더십 원칙” 의 언어로 대체되고 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선성을 중심으로 품도록 부르시고 계심을 느끼는 것을 고백한다. 특별히……

1. 크리스천의 삶의 중심과 둘레는 인격체이신 그리스도 이외의 그 어느 것도 아니다. 그에게 그리고 그에 관해 연결된 것을 포함한 모든 것들은 그의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가치의 시각에서는 감추어져 버린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리고 그를 심오하고, 깊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그의 무한한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은 첫 크리스천들에게서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추구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잘 못된 것들을 고치시려는 것보다는 우리의 상처를 통해 우리를 발견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시려고 하신다.

2.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가르침과 분리할 수 없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제자들에게 “나의 가르침을 따르라” 고 했다. 소크라테스도 제자들에게 “나의 가르침을 따르라” 고 했다. 부처는 제자들에게 “나의 명상을 따르라” 고 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나의 말을 따르라” 고 했다. 모하메드는 제자들에게 “나의 고상한 기둥들을 따르라” 고 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고 하셨다. 다른 모든 종교에서 추종자는 창시자와의 관계를 갖지 않고도 그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

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셨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 자신과 분리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는 그의 가르침의 구현이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단순히 하나의 도덕적, 윤리적, 또는 사회적 가르침의 창시자로 취급하는 것은 심대한 오류이다. 주님이신 예수님과 그의 가르침은 하나이다. 매체와 메시지는 하나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산상수훈의 성육신이시다.

3.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와 영원한 목적은 개인으로서의 그리스도(머리)와 공동체로서의 그리스도(지체) 안에서 중심이 된다. 이 우주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자신으로 채우시는 완전함의 마지막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진정으로 선교적이 된다는 것은 개인의 삶과 목회를 그리스도 위에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획의 심장이며 혈관이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즐거리를 놓치는 것이며, 곧 모든 것을 놓치는 것이다.

4.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된다는 것은 이식(implantation)과 첨가(impartation)에서처럼 모방하는 것이 아니다. 성육신(incarnation)-하나님께서 아기의 형태와 인간적 접촉으로 우리와 연결되었다는 뜻-은 기독교의 가장 놀라운 교리이다. 성육신은 “이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그의 부활의 삶을 살고 계시면서 일거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다. 성육신은 단지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다. 물론 동일한 성례전적 방식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근접하게 말이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실체”가 되도록 하나님의 “영”이 주어졌다. 베드로가 말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자”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토록 위대한 진리 앞에서 우리는 장난감과 자질구레한 놀이감을 구할 수 있는가? 어찌 우리는 보잘 것 없는 은사를 탐하고 종교적, 영적인 것들을 바랄 수 있는가? 우리는 전능자의 불과 선물로 주신 신적 삶에 의해 하늘에서부터 감동을 받았다. 하나님 아들 자신의 부활의 삶으로 우리의 생명은 사망을 이겼다. 어찌 우리가 열정을 가지지 않을 수 있는가?

질문을 하자면 주님의 놀라운 삶의 엔진 또는 가속페달은 무엇인가? 주님의 외적 행사의 끝은 뿌리 또는 원류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주하시는

아버지에 의해 사셨다는 사실이다. 그가 부활한 후 그 길은 제거되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것은 예수님께 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당신과 나에게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예수님 자신의 삶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함께 나눈다. 크리스천들에게 예수님을 닮도록 강요하는 것과 이식된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사이에는 거대한 차이의 바다가 존재한다. 전자는 단지 실패와 좌절로 끝나게 된다. 후자는 삶의 관문이며 우리의 삶과 죽음의 기쁨이 된다. 우리는 바울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고 한 말에 동의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고, 숨쉬며 존재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는 기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나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 그리고 예수님을 그것을 어떻게 하실까”를 물어야 한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믿고 순종”(응답)하며, 성령의 능력을 통해 그가 내주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5. “역사의 예수”는 “신앙의 그리스도”와 단절될 수 없다. 갈리리 해변을 걸으셨던 예수님은 오늘날 교회에 안에 내주하시는 분과 동일한 분이시다. 마가복음의 예수님과 바울의 골로새서의 놀랍고, 모든 것을 품으시는 우주적 그리스도 사이에 단절은 없다. 1세기에 사셨던 그리스도는 시간 이전에 존재하셨다. 그는 또한 시간 이후에도 존재한다. 그는 알파요 오메가이시며, 시작이고 나중이시고, A이시며 Z이시며, 동시에 모든 것이 되신다. 그는 미래에 계시고, 동시에 세상의 마지막에 계시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내주하신다. 이 역설적 진리를 품지 못할 때 터무니 없는 문제를 만들어 내왔고 하나님의 백성의 눈에서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축소시켜왔다.

6. 그리스도의 “목적”과 그리스도의 인격을 혼동하는 것은 가능하다. 초대교회가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이 나의 핵심 가치”라고 뜻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목적이 아니다. 그는 알려지고, 사랑 받으며, 경험되고, 경외 받으시며, 구현되시는 실재하고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의 목적과 사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에게 초점을 맞추고, 따르는 것과 동일한 것이 아니다. 그의 거부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랑에 사로잡힌 기쁨 뛰는 마음으로 그를 섬기는 것에 반하여 예수를 섬기는 “신”을 섬기는 것이 모두 가능

하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하여 관계로, 모든 관계의 하나님으로 다르게 생각하도록 이끈다.

7. 예수 그리스도는 사회운동가도 도덕철학자도 아니다. 그를 그러한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의 영광을 저버리는 일이며, 그의 탁월성을 희석시키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분리된 정의는 죽은 것이다. 지옥의 문을 흔들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정의의 외침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의, 평화, 성결, 공의의 구현이시다. 그는 모든 영적인 것들의 통합이시며, 우주의 “기이한 끌개” (the strange attractor)이시다. 예수님이 추상적 개념이 되었을 때 신앙은 재생산하는 능력을 상실한다. 예수님은 악한 사람을 선하게 만드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 오셨다.

8. 예수님에 관한 학문적 지식 또는 신학과 살아계신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인격적 지식을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 둘 사이는 천 억 개의 은하수 사이만큼 멀리 떨어져있다. 그리스도의 완전성은 전두엽만 가지고는 결코 접근할 수 없다. 기독교 신앙은 합리적이 되려고 한다. 그러나 또한 궁극적 신비에 이르려고 하기도 한다. 커다란 머리로 인한 문제의 해결은 커다란 마음에 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직신학을 공부하기 위한 클리프노트를 남겨 놓으시지 않으신다. 그는 제자들에게 숨결과 몸을 남겨주신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타인을 사랑하기 위한 일관되고 분명한 신앙체계를 남겨 놓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루만질 상처와 치유의 손길을 남기신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적 신앙이나 “기독교적 세계관”을 남겨 놓지 않으신다. 그는 제자들에게 관계적 신앙을 남기신다.

크리스천들은 책을 따르지 않는다. 크리스천들은 한 사람을 따른다. 그리고 “성경”이라 불리는 신적 영감으로 쓰여진 책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을 따르도록 가장 잘 도와준다. 기록된 말씀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준다. 예수님은 “모든 성

경은 나를 증거한다” 고 스스로 말씀하셨다. 성경은 목적지가 아니다. 이것은 하늘의 복극성 같은 그리스도를 가리켜 주는 나침반이다.

성경은 삶을 위한 계획이나 청사진을 제공하지 않는다. “복음”은 일단의 새로운 법칙이나, 일단의 윤리적 명령, 또는 새롭고 개선된 계획이 아니다. “복음”은 사도신경에 나타난 한 개인의 삶에 관한 이야기이다. 신앙의 신비는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을 선포한다. 기독교의 의미는 복잡한 신학적 교리에 대한 충성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삶을 부나 건강이나 그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바로 성공으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고 가르치신 예수님을 따르면서 얻어지는 세상의 사는 한 방식인 열정적 사랑에서 얻어진다.

9.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중심에 있는 무의미를 깨뜨리고 변화시키실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와 분리될 수 없다. 예수님이 자신의 신부와 구별이 되지만 분리되지는 않으신다. 사실상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예수님 자신의 몸이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 모든 능력과 권세와 생명을 주시기로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오직 그의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알려진다. (바울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는 그리스도 이시며 이는 교회(에클레시아)를 통해 알려진다고 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의 삶은 개인적 추구가 아니다. 이는 협력의 여정이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에게 알려지는 것은 개인적 성찰이 아니다. 단독비행의 삶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땅에 떨어져 깨어져 버릴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교회는 밀접히 연합되어있고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생명으로 지음을 받았다. 우리의 유일한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에서 찾아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로써 기뻐하신다.

10. “오, 이 예수가 누구인가?” 라고 노래하는 세상에서 “오, 모든 것을 예수와 같이 되게 하자” 라고 노래하는 교회는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사랑하는가!” 라고 노래할 것이다.

만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면 우리는 최소한 침대에서 일어나고, 소파와 의자에서 나와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하시고자 하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부활의 생명에 응답해야 한다. 우리는 이 땅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목적을 향해 영적 비상(飛翔)을 하면서 이 땅에 우리의 발을 단단히 잡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지만 주의 권리와 관심을 위해 이 땅에서 산다. 우리는 집합적으로 하나님의 예클레시아로서 우리는 집합적으로 이 세상 안에서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이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이 땅 위에 두셨다. 십자가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원하신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의 아들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위에 탁월하시고, 주권자이시며, 머리가 되심을 증거하도록 지음을 받았다. 사람들은 그의 영광스러운 아들의 얼굴에서 전능자의 손길을 발견한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을 내려 놓는다. 그리스도의 깊음을 부여잡고, 그의 풍성함을 발견하며, 그의 생명을 만지고, 그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의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영광 안에서 그리스도를 안다.

이 선언문을 작성한 우리 두 사람은 경제학, 글로벌리즘, 정치에 관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교회론, 종말론, 구속론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두 사람의 최근 저작, “영원에서 여기까지” (From Eternity to Here) 와 “너무나 아름다움” (So Beautiful)에서 우리는 한 음색을 내었다. 이 저술들은 본 선언문에 선언문이 된다. 이 두 책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은 비전을 드러내며, 이것이- “한가지 아는 것” (요한복음 9:25)-그리스도의 지체에게 전해지길 바라며, 이 한 가지가 우리 모두를 하나로 연합하게 하길 바란다: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천들은 기독교를 따르지 않는다.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를 따른다.  
 크리스천들은 자신들을 설교하지 않는다.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크리스천들은 사람들에게 핵심 가치를 지적하지 않는다.  
 크리스천들은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가리켜 준다.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설교하지 않는다.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를 설교한다.

300여 년 전 한 독일 목사가 찬송 중에 으뜸이 되는 한 찬송을 지었다.

나를 기쁘게 하고 감동케 하는  
 내가 아는 위대한 것을 당신께 아뢰입니다  
 얼마나 큰 상급을 내가 받을까?

누구의 이름 안에서 내가 영광을 돌리나이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기쁘게 하고 감동케 하는 내가  
 아는 위대한 것을 당신께 아뢰입니다.  
 구원을 주시기 위해 돌아가신 그를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서 일어나 승리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보좌에 오르시고,  
 승리하시고,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우리가 추구하는 분이며,  
우리의 열정이며,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아멘 <sup>1</sup>

---

<sup>1</sup> “예수 선언문 블로그”(A Jesus Manifesto Blog)<http://ajesusmanifesto.wordpress.com/>

## 부록 III. 1년 365일 통독범위 통 포인트

일정/통독범위	통독주제	통포인트
1.1(1일) 창 1~2장	천지창조-심히 좋으신 하나님의 마음	최초의 진정한 설계자이시며 디자이너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의 설계도를 펴시며 기뻐하십니다.
1.2(2일) 창3~5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계획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1/3(3일) 창6~9	노아 홍수- 하나님의 눈물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때, 의인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를 만들고 구원받습니다.
1/4(4일) 창10~11	생육하고 번성하여 흩어지는 민족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였으며, 바벨탑 사건을 통해 지면 곳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1/5(5일) 창12~14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람의 순종	자손과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에 대한 아브람의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 운행의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1/6(6일) 창15~17	아브람의 기다림	아브람은 자손을 주시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람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십니다.
1/7(7일) 창18~21	복의 통로 아브라함	끝까지 심판을 유보하고 싶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기도하는 아브라함은 진정으로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1/8(8일) 창22~24	하나님의 친구가 된 아브라함	요구사항 자체보다는,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분을 신뢰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통하는 친구가 됩니다.
1/9(9일) 창25~27	이삭의 양보하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며 온유한 마음을 양보하는 이삭의 삶의 방식은 그를 통해 복의 약속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1/10(10일) 창28~30	하란으로 도망간 야곱	하나님의 언약은 형을 피해 도망가는 야곱에게 이어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란으로 가는 야곱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십니다.
1/11(11일) 창31~33	가나안으로 돌아온 야곱	20년의 하란 생활을 뒤로 하고 가나안으로 돌아온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 에서와 만나 극적인 화해를 이룹니다.

1/12(12일) 창34~36	벧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	야곱을 벧엘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생육과 번성의 복을 거듭 약속해주십니다.
1/13(13일) 창37~38	요셉의 고난과 꿈	하나님께서서는 영문 모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꿈을 간직한 요셉과 함께하시며 그분의 큰 경륜을 이루어가십니다.
1/14(14일) 창39~41	총리 요셉	고난을 연단과 훈련의 시기로 여길 줄 알았던 지혜로운 요셉은 오랜 준비 기간 끝에 애굽의 총리로 발탁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갑니다.
1/15(15일) 창42~44	요셉과 형제들의 만남	요셉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온 형제들과 만나게 되고 더욱 근원적인 형제 갈등 해결을 위해 형들을 시험합니다.
1/16(16일) 창45~47	요셉과 형제들의 화해	유다를 비롯한 형제들과 요셉간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야곱의 가족 전체는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애굽에 이주하여 정착합니다.
1/17(17일) 창48~50	야곱의 유언과 죽음	삶의 마지막을 앞두고 아들들을 축복한 야곱의 장례는 출애굽의 여행연습이었으며 요셉의 유언은 이후 출애굽의 비전이 됩니다.
1/18(18일) 출1~2	애굽의 종이 된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번성을 두려워한 애굽인들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고통을 돌아보십니다.
1/19(19일) 출3~4	하나님의 모세 선택	80년의 기간을 거쳐 준비된 모세에게 출애굽의 청사진을 보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시며 선택하십니다.
1/20(20일) 출5~7	모세와 바로의 협상시작	애굽으로 돌아간 모세와 완강한 바로 사이의 협상이 시작되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으로 그분의 능력을 보이십니다.
1/21(21일) 출8~10	모세의 선택과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께서서는 6개월간 많은 기적을 보이시며 바로를 선택하셨지만, 바로의 어리석음으로 끝내 협상은 결렬됩니다.
1/22(22일) 출11~13	유월절을 기념하라	마지막 징계인 장자 죽음의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종살이의 사슬을 끊고 새로운 출발의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1/23(23일) 출14~15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서는 애굽 군대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오자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1/24(24일) 출16~18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공급	식량과 물이 공급되지 않는 광야의 한계 상황 속에서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물과 만나를 공급하십니다.
1/25(25일) 출19~20	시내 산에서 받은 십계명	시내 산에 당도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특권과 사명을 제안하시고 십계명을 주십니다.
1/26(26일) 출21~23	공동체를 위한 삶의 기초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구체적인 시행세칙들을 알려주시며, 이스라엘 전체를 아름다운 신앙공동체로 세우고자 하십니다.
1/27(27일) 출24~27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는 성막	홀로 시내 산 위에 오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만남의 장소인 성막의 설계도를 설명해 주십니다.
1/28(28일) 출28~29	제사장 직분의 위임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한 옷을 만들어 입히라고 말씀하시고, 이어 제사장 위임식의 순서도 알려주십니다.
1/29(29일) 출30~31	하나님께 올리는 성물	분향단과 물두멍, 거룩한 향기름을 만드는 절차를 알려주시고, 그 일에 헌신할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1/30(30일) 출32~34	생명을 내어놓고 드리는 모세의 기도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범한 백성을 위해 모세는 생명을 걸고 중보합니다
1/31(31일) 출35~38	풍성한 자원과 헌신	하나님께서 주신 식양에 따라 만들어질 성막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소중한 소유물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립니다.
2/1(32일) 출39~40	성막의 완성과 봉헌	성막이 6개월여의 대장정 끝에 완성되고 봉헌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과 정성이 담긴 진한 땀방울의 결과물이었습니다.
2/2(33일) 레1~5	더 깊은 만남을 위한 다섯 가지 제사 절차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자 하신 하나님께서 그 만남의 절차로 다섯 가지 제사를 말씀하십니다.
2/3(34일) 레6~7	제사의 규례	생명의 희생을 기반으로 더 깊고 소중한 만남을 제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만남의 외적 조건인 제사의 규례에 대해 가르쳐주십니다.
2/4(35일) 레8~10	새로운 리더십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인 제사장이 공식적으로 세워집니다. 이 새로운 리더십은 그 큰 특권만큼 중대한 사명을 전제로 합니다.

2/5(36일) 레11~13	건강을 위한 배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식생활과 같은 세밀한 부분부터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행하여 건강한 생명을 보전하길 원하십니다.
2/6(37일) 레14~15	생명을 이한 배려	인생들의 생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나병과 유출병 등에 관한 확인 절차와 정결법 등을 상세히 이르십니다.
2/7(38일) 레16~17	제사장의 역할과 사명	이스라엘 공동체의 생명력을 결정하게 될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오기 전,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합니다.
2/8(39일) 레18~20	거룩한 사랑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이 본받지 말아야 할 이방 풍속에 대해 경고하시며, '이웃 사랑'의 실천을 통해 거룩함을 드러낼 것을 명하십니다.
2/9(40일) 레21~22	공동체를 돌보는 제사장	백성의 어른으로서 공동체를 돌보게 될 제사장들에게는 그 책임에 합당한 규례들을 거룩히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2/10(41일) 레23~25	아름다운 절기문화	하나님께서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절기들은 공동체를 하나님 중심, 약자중심, 인간 존중의 공동체로 이끄는 문화의 기반이 됩니다.
2/11(42일) 레26~27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언약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두 가지 미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2/12(43일) 민1~2	첫 번째 인구조사와 진 편성-약속의 성취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세고, 그 기반 위에서 각 지파별 진영을 갖추십니다.
2/13(44일) 민3~4	구별된 레위 지파 계수	열두 지파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로 구별된 레위 지파들은 따로 계수되었고, 중요한 임무를 맡습니다.
2/14(45일) 민5~6	구별과 헌신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고 회막 중심의 진영을 갖춘 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결케 하는 작업을 시행하십니다.
2/15(46일) 민7~8	열두 지파가 드린 예물	모든 진영이 갖추어진 후, 열두 지파의 각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동일한 예물을 드리고,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요제로 드려집니다.
2/16(47일) 민9~10:10	출발을 위한 최종 준비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난 날, 이스라엘 백성은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출발을 준비합니다.

2/17(48일) 민10:11~12	시내 산에서 가데스까지의 진군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였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한 백성의 불평이 계속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십니다.
2/18(49일) 민13~14	가나안 정탐과 출애굽세대의 선택	믿음 없는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백성은 입(入)애굽을 주장하며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2/19(50일) 민15~17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불평하는 자들을 처벌하시고 제사장 아론의 권위를 높여주십니다.
2/20(51일) 민18~19	제사장과 레위인의 사명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직분에 따른 특권과 사명을 주시고 소금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2/21(52일) 민20~21	가나안에 갈 수 없게 된 모세	백성의 불평 끝에 모세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이 일로 말미암아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2/22(53일) 민22~25	하나님 군대의 명성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에 떨던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시도하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은 큰 축복을 받습니다.
2/23(54일) 민26~27	두 번째 인구조사- 약속의 땅을 위한 준비	광야 생활을 정리하는 시점에, 두 번째 인구조사가 시행되고,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집니다.
2/24(55일) 민28~30	거룩한 절기와 제사	이스라엘은 정해진 거룩한 절기들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그분을 공동체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됩니다.
2/25(56일) 민31~32	모세와 요단 동편 땅들	모세는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두 지파 반에게 분배하여 주는데, 이후 그들은 가나안 서편 전쟁의 선봉대가 됩니다.
2/26(57일) 민33~36	이스라엘의 여정과 도피성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걸어온 여정을 회고하고,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대한 경계를 미리 확정 받습니다.
2/27(58일) 신1~2	광야 여정에 대한 회고와 반성 1	모세는 출애굽과 40년 광야 생활 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백성의 불순종을 회고하며 고별사를 시작합니다
2/28(59일) 신3~4	광야 여정에 대한 회고와 반성 2	40년 동안 불평 많은 백성을 이끌어난 모세는 말씀으로 훈련되어 변화된 백성을 기대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3/1(60일) 신5~6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모세의 당부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주셨던 계명들을 다시 강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간곡히 당부합니다.
3/2(61일) 신7~9	명령과 순종	하나님의 온전한 긍휼과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거룩한 문화를 세우라고 명하십니다.
3/3(62일) 신10~11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과 광야 생활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3/4(63일) 신12~14	다시 들려주는 율법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만나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다시 알려주며 가나안에서의 삶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3/5(64일) 신15~17	절기와 송사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신앙공동체로 훈련 받게 되며, 이웃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3/6(65일) 신18~21	약속의 땅을 위한 규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치를 가나안 정복전쟁에 대해 미리 승리를 약속하시며, 그 땅에서 행할 규례들을 당부하십니다.
3/7(66일) 신22~26	거룩한 백성을 위한 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는 나그네와 가난한 이웃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배려하며 공의를 세우는 사회입니다.
3/8(67일) 신27~28	언약에 따른 복과 저주	에발 산과 그리심 산에 서서 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에 따른 복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3/9(68일) 신29~30	언약의 갱신	모세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은 과거 40년 전과 현재뿐 아니라,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인생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3/10(69일) 신31~32	역사와 미래	모세가 지난 역사를 담아 부르는 노래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기억과 앞으로 이스라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들어 있습니다.
3/11(70일) 신33~34, 시90	모세의 축복과 죽음	새 시대를 열어갈 여호수아와 만나세대의 앞날을 축복하며 남기는 모세의 유언은 가나안 시대를 열어가는 지침이 되어줍니다.
3/12(71일) 수1~2	여호수아와 만나세대	하나님과 백성의 격려 가운데 여호수아의 사역이 시작되고, 여리고에 갔던 두 정탐꾼들은 믿음의 보고로 사기를 높입니다.

3/13(72일) 수3~5	믿음으로 내딛는 약속의 땅	만나세대는 가나안의 첫 관문인 요단 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고, 할례와 유월절을 행함으로써 가나안 시대를 열어줍니다.
3/14(73일) 수6~8	만나세대의 믿음에 따른 전쟁의 승패	여리고 성 전투를 포함한 여러 전투들을 통해, 이스라엘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진리를 확인해줍니다.
3/15(74일) 수9~12	이스라엘의 승전 기록	여호수아와 만나세대들이 5년여에 걸쳐 가나안 땅을 점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3/16(75일) 수13~17	합당한 분배와 특권	이스라엘은 제비뽑기 방식을 통해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갈렙은 자신의 특권을 사명으로 바꾸어 믿음으로 헤브론을 점령합니다.
3/17(76일) 수18~19	복으로 받은 삶의 터전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일곱 지파에게 제2차 인구조사 결과를 근거로 남은 땅이 분배됨으로써 땅 분배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3/18(77일) 수20~22	도피성과 레위인의 성읍	하나님을 섬길 레위인들에게는 도피성을 포함한 48개 성읍이 주어지고, 요단 동편 지파들은 그들의 기업으로 귀환합니다.
3/19(78일) 수23~24	여호수아의 유언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한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3/20(79일) 삿1~2:10	남겨진 과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아직 다 얻지 못한 이스라엘에게는 남은 땅의 완전한 정복과 그 땅에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3/21(80일) 삿2:11~5	이스라엘의 사사들	만나세대의 자녀교육 실패로 말미암아 어두운 시대가 이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사사들을 보내십니다.
3/22(81일) 삿6~7	기드온과 3백 용사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 기드온과 3백 용사들은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얻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3/23(82일) 삿8~9	기드온과 그 아들 아비멜렉	기드온이 죽자 백성은 다시 우상숭배의 습관으로 돌아가고,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은 시대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3/24(83일) 삿10~12	진정한 지도자가 없다	사사 시대에 세워진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시대를 개혁하는 일을 소홀히 하여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3/25(84일) 삿13~16	나실인 삼손	나실인으로 태어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며 쓰임 받은 삼손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지 못한 그의 마지막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3/26(85일) 삿17~18	기초가 무너진 사회	제사장 제도가 흔들리고 정체불명의 신앙이 등장했음을 보여주는 미가 이야기는 사회의 근본 기초가 무너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3/27(86일) 삿19~21	원칙 없는 문제 해결	한 레위인의 첩의 죽음에서 시작되어 온 이스라엘을 전쟁으로 몰아간 한 사건은 사사 시대의 혼란상을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3/28(87일) 룻1~4	아름다운 율법의 구현	사사 시대, 베들레헴 마을에서 있었던 룻기 이야기는 하나님의 율법이 실제 삶의 현장에서 구현되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3/29(88일) 삼상1~3	준비되는 사무엘	하나님께서서는 350여 년이라는 긴 불순종의 흐름을 끊고 시대를 새롭게 개혁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무엘을 선택하여 교육하십니다.
3/30(89일) 삼상4~7	사무엘의 말씀개혁운동	준비된 지도자 사무엘이 전국을 순회하며 시대부흥운동을 주도한 결과, 온 백성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3/31(90일) 삼상8~10	제사장 제도와 왕정 제도	보다 좋은 제사장 제도를 버리고 왕정 제도를 고집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선택해 세워주십니다.
4/1(91일) 삼상11~12	길르앗 아베스 사건과 사무엘의 고별사	위기에 처한 길르앗 아베스를 도운 일로 사울은 백성의 신망을 얻었고, 본격적인 왕정이 시작됩니다.
4/2(92일) 삼상13~14	사울의 블레셋 전투	사울은 하나님보다 백성의 눈을 의식한 나머지, 스스로 번제를 드리는 죄를 지었고, 이 일은 하나님께 많은 실망을 안겨드립니다.
4/3(93일) 삼상15~16	사울의 불순종과 다윗의 기름 부음	사울은 아말렉의 진멸을 명하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다음 왕으로 다윗을 예언하십니다.
4/4(94일) 삼상17~18	다윗의 골리앗 전투승리와 요나단과의 우정	믿음과 용기로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 그런 다윗을 알아본 요나단은 그를 생명처럼 사랑합니다.
4/5(95일) 삼상19, 시59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	다윗의 유명세를 시기하여 그를 죽이려 하는 사울을 피해 도망하게 된 다윗은 이제부터 긴 도피생활을 통해 훈련받습니다.

4/6(96일) 삼상20~21, 시34	기도로 여는 하늘문	놉 땅을 거쳐 블레셋으로 도망간 다윗은 생명의 위기 앞에서 미친 체하여 생명을 구한 후, 무너진 자존심을 기도로 세워줍니다.
4/7(97일) 삼상22, 시52	사울의 공안정치	모압으로 망명갔던 다윗은 유다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돌아오고, 권력욕에 눈먼 사울의 공안정치는 더욱 심해집니다.
4/8(98일) 삼상23~24, 시57	임명권자 하나님	군사3천 명과 함께 자신을 쫓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임명권을 존중하여 사울을 살려줍니다.
4/9(99일) 삼상25~26, 시54	하나님의 테스트	사울의 추격은 계속되고, 하나님은 사울을 잠들게 하여 다윗을 시험하시지만, 다윗은 이번에도 사울을 살려주는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4/10(100일) 삼상27~31	망명지에 들려온 조국의 슬픈 소식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해간 사이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발발하고, 사울의 시대는 막을 내립니다.
4/11(101일) 삼하1~2	남유다의 왕으로 추대된 다윗	헤브론 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추대된 다윗은 평화통일의 때를 기다리며 국가의 기틀을 놓는 데에 주력합니다.
4/12(102일) 삼하3~5:5	다윗의 세 번째 기름 부음과 통일왕조 수립	진실한 자세로 정치적 위기를 극복한 다윗은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4/13(103일) 삼하5:6~6	예루살렘 정복과 법궤 안치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새 수도를 정한 다윗은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와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지로 세워줍니다.
4/14(104일) 삼하7~10	종이 된 다윗 왕	성전 건축을 소원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집을 영원히 보전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감격한 다윗은 종의기도를 드립니다.
4/15(105일) 삼하11~12, 시51	우슬초 정결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죽인 악행을 책망 받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4/16(106일) 삼하13~14	압살롬의 암논 살해	누이 다말을 범한 이복형제 암논에게 분노한 압살롬은 암논을 살해한 후 도망하고, 그 후 3년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4/17(107일) 삼하15, 시3	압살롬의 반역	치밀하게 준비된 압살롬의 반역에 놀란 다윗 은 황급히 예루살렘을 빠져나오면서도 믿음 가운데 반역군에 대항할 전략을 세웁니다.

4/18(108일) 삼하16~17	다윗의 도피	도피 중이던 다윗은 자신을 돕거나 저주하는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고, 압살롬은 아히도벨 대신 후세의 모략을 채택합니다.
4/19(109일) 삼하18~20	다윗의 복귀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로 끝나고 다윗은 궁궐로 복귀해 사태 수습에 나서지만, 민족 내의 갈라진 감정의 골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4/20(110일) 삼하21~22	다윗의 노래	다윗은 기브온 거민들의 요청을 들어줌으로써 과거 청산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21(111일) 삼하23~24	다윗의 삶의 자취	생을 마감하기 전, 다윗은 마지막 말을 남기고, 인구조사 시행에 대한 잘못을 깨달은 후 진심으로 회개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입니다.
4/22(112일) 왕상1~2	다윗의 유언	다윗은 아도니야의 반역을 폐하고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며 그에게 신앙적·정치적 유언을 남긴 후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4/23(113일) 왕상3~4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는 솔로몬	하나님께서서는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부와 영광까지도 더해 주시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큰 번영을 누립니다.
4/24(114일) 왕상5~7	성전 건축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은 튼튼한 기반 위에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착수하고, 7년간 정성스럽게 성전을 지은 후 13년간 왕궁을 건축합니다.
4/25(115일) 왕상8	성전 낙성식	완공된 성전에 언약궤를 옮기고, 솔로몬은 온 회중 앞에서 이 성전이 온 열방 모든 민족을 위한 성전이 될 것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4/26(116일) 왕상9~10	솔로몬의 모든 영화	하나님께서서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을 당부하시고, 솔로몬의 시대에 큰 은혜와 풍요를 부어주십니다.
4/27(117일) 잠1~5	지혜란 무엇인가?	잠언을 통해 지혜의 비결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는 솔로몬은 지혜의 원천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4/28(118일) 잠6~9	지혜의 원리	지혜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진정한 지혜와 만날 수 있습니다.
4/29(119일) 잠10~15	의인의 삶, 악인의 삶	잠언은 의인과 악인의 명확한 구별과 대조를 통해, 읽는 이들로 하여금 의롭고 지혜로운 길로 나아올 것을 권고합니다.

4/30(120일) 잠16~20	지혜를 구하라	인생의 참 행복은 소유의 양에 있기보다는 하나님, 그리고 이웃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나가는 데 있음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5/1(121일) 잠21~24	마음과 지혜	악인의 형통에 대해 부러워하지 않고, 재물에 대한 헛된 탐심을 이기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음의 중심을 채우는 자가 참 지혜자입니다.
5/2(122일) 잠25~29	악한 길을 피하라	잠언은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의 특징과 그들의 마지막에 대해 설명하며, 그러한 행동에서 돌이키고 경계할 것을 강조합니다.
5/3(123일) 잠30~31	아굴의 잠언과 르무엘 모친의 잠언	아굴은 자연에 대한 깊은 통찰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며, 르무엘의 어머니는 왕의 도리를 교훈합니다.
5/4(124일) 아1~4	사랑이란 무엇인가?	솔로몬의 아가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순결하고도 강렬한 사랑을 통해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5/5(125일) 아5~8	진실한 사랑	꾸밈없이 진실하며 서로를 하나되게 하는 참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으며, 죽음보다도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5/6(126일) 왕상11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	하나님을 떠나 중심을 잃고 흔들리는 솔로몬으로 인해 예루살렘엔 우상의 산당들이 세워지고 나라는 분단의 위기에 처합니다.
5/7(127일) 전1~3	인생의 뒤안길에서의 고백	그 누구보다도 큰 지혜와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인생 말년,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고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5/8(128일) 전4~7	유한인생 무한지혜	피조물들인 인생들의 삶이 유한함을 인정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절대적 주권을 순종하며 다라는 것이 지혜입니다.
5/9(129일) 전8~12	사람의 본분을 기억하라	전도자 솔로몬은 이 땅의 모든 것이 헛됨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강조합니다.
5/10(130일) 욥1~3	욥의 고난과 탄식	의인 욥을 향한 사탄의 시험이 시작된 가운데, 욥은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도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5/11(131일) 욥4~7	욥과 엘리바스의 첫 번째 논쟁	욥의 친구들은 큰 환난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욥을 찾아왔으나, 엘리바스는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5/12(132일) 욥8~10	욥과 빌닷의 첫 번째 논쟁	욥의 또 다른 친구 빌닷도 흑백논리로 욥을 판단하여 정죄하기 시작하고, 욥은 자신의 결백을 하나님 앞에 토론했습니다.
5/13(133일) 욥11~14	욥과 소발의 첫 번째 논쟁	욥의 탄식까지도 불의하다고 정죄하는 소발의 말에 욥은 친구들의 교만을 비판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5/14(134일) 욥15~17	욥과 엘리바스의 두 번째 논쟁	인과응보를 주장하는 친구들과 욥의 변론은 평행선을 달리고, 욥은 또다시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5/15(135일) 욥18~19	욥과 빌닷의 두 번째 논쟁	욥은 그의 고난을 의인의 고난으로 인정하지 않는 친구들의 악한 말을 들으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합니다.
5/16(136일) 욥20~21	욥과 소발의 두 번째 논쟁	욥의 형편을 진지하게 이해하려 하지 않는 친구들, 그들의 마음에는 가장 중요한 욥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없었습니다.
5/17(137일) 욥22~24	욥과 엘리바스의 세 번째 논쟁	욥을 온갖 악행을 일삼는 자로 호도하는 엘리바스의 말에 욥은 이제 하나님과의 대면만을 갈망하며 간구합니다.
5/18(138일) 욥25~31	욥과 빌닷의 세 번째 논쟁	욥의 고난을 계속 최악의 문제로 해석하는 친구들의 비난 앞에서 욥은 하나님의 판결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5/19(139일) 욥32~37	엘리후의 발언	평행선을 긋고 있던 욥과 친구들의 대화는 엘리후의 발언을 계기로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과 욥의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5/20(140일) 욥38~42	하나님의 대답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지 못하던 욥에게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이 경영하시는 자연의 섭리를 말씀하시며 그분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십니다.
5/21(141일) 시1~2, 4~9	시와 찬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5/22(142일) 시10~18	시와 찬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다윗은 매일의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도 조급해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5/23(143일) 시19~27	시와 찬미	깊은 탄식이 수도 없이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입술의 말과 생각과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5/24(144일) 시28~33	시와 찬미	참된 보호자요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그의 인생 속에서 늘 경험하였던 다윗은 그의 노래들 속에 이 확신과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5/25(145일) 시35~41	시와 찬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신뢰하고 있기에, 악인들의 괴롭힘이 영원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붙들고 다윗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5/26(146일) 시42~50, 53	시와 찬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힘과 도움이시기에 그분의 자녀들은 모든 것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으며 평안을 누립니다.
5/27(147일) 시55~56, 58, 60~66	시와 찬미	하나님은 그분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의뢰하는 의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허리 굽혀 응답하실 만큼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5/28(148일) 시67~72	시와 찬미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릴 때,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은혜와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게 됩니다.
5/29(149일) 시73~78	시와 찬미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줍니다.
5/30(150일) 시79~85	시와 찬미	시인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막에 함께 거하기를 갈망하며,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낫다고 노래합니다.
5/31(151일) 시86~89	시와 찬미	하나님께서서는 주의 길을 일심과 전심으로 따르는 자들과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자를 도우시며 위로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해주십니다.
6/1(152일) 시91~102	시와 찬미	시인은 온 땅의 족속들과 나라를 향해 준귀와 위엄, 능력과 아름다움이 충만하신 여호와께 새 노래로 찬양과 영광을 돌리라고 명령합니다.
6/2(153일) 시103~106	시와 찬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사랑을 알고 있는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가장 최우선이 아닐 수 없습니다.
6/3(154일) 시107~118	시와 찬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오른편에 계시다는 믿음 가운데, 시인은 자신의 사정을 스스럼없이 모두 쏟아놓으며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6/4(155일) 시119	시와 찬미	주의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사모하며 그 교훈에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이에게 주의 말씀은 그 발에 등이요, 그 길에 빛이 되실 것입니다.

6/5(156일) 시120~134	시와 찬미	기쁨으로 주의 성전을 향해 오르며 하나님의 도움을 찬양하는 이들의 발걸음에 복 주시는 하나님, 그분과의 교제가 즐거움이 됩니다.
6/6(157일) 시135~142	시와 찬미	모든 인생들의 생각과 행동을 감찰하는 하나님이기때, 그분께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기를 간구하며 엎드립니다.
6/7(158일) 시143~!50	시와 찬미	왕이신 하나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며 무궁하신 하나님, 그분을 찾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6/8(159일) 왕상12~14	남북분열과 여로보암의 길	분열된 남북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본연의 모습에서 점점 멀어져가고, 여로보암은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됩니다.
6/9(160일) 왕상15~16:20	분쟁하는 남북왕국	역사가 진행될수록 이스라엘 왕들의 악행은 계속되었지만, 하나님은 최악의 수령으로 빠져가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6/10(161일) 왕상16:21~17	오므리 왕조	오므리에서 그 아들 아합으로 이어지는 북이스라엘의 최악은 깊어만 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준비하여 보내십니다.
6/11(162일) 왕상18~19	오므리 왕조와 엘리야의 사역	갈멜 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6/12(163일) 왕상20~22	오므리 왕조의 최악과 아합의 최후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는 등 최악을 일삼던 아합은 미가야의 예언대로 아람과의 전쟁에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6/13(164일) 왕하1~2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아하시야의 최악 된 삶과 통치로 인해, 아합 시대의 최악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엘리야의 사역이 엘리사에게로 계승됩니다.
6/14(165일) 왕하3~5	엘리사가 베포 기적의 배경	선지자의 제자들을 교육하는 가운데 엘리사가 베포 기적에는 그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담겨 있습니다.
6/15(166일) 왕하6~8	오므리 왕조와 엘리사의 사역	아람이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 북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6/16(167일) 왕하9~10	예후의 치적과 엘리사	엘리사가 보낸 선지자의 제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는 곧장 아합 가문을 진멸하고 새로운 역사의 전기를 마련합니다.

6/17(168일) 왕하11~14	요아스의 치적과 여로보암 2세	남유다에서는 아달라에게 빼앗겼던 왕위를 요아스가 되찾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시대를 맞이합니다.
6/18(169일) 암1~5	나라들에 대한 심판 선언	아모스는 주변 나라들과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며, 사회안에 정의와 공의를 세울 것을 호소합니다.
6/19(170일) 암6~9	정의를 강물 같이	하나님께서서 북왕국의 마지막이 이르렀음을 알려주시며 역사의 단절을 선언하시는 가운데, 또 다른 희망의 시작을 기약하십니다.
6/20(171일) 호1~4	호세아의 고멜 사랑 비유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의 결혼을 통해 북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신실한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6/21(172일) 호5~9	제사보다 사랑을 원한다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께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인애를 더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6/22(173일) 호10~14	여호와께 돌아오라	패역한 백성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내시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다시 한 번 간절히 호소하십니다.
6/23(174일) 욘1~4	열방을 향한 사랑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졌던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와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게 됩니다.
6/24(175일) 왕하15~16	북왕국의 쇠락	신흥제국 앗수르의 위협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북왕국 내부에서는 반란이 계속되고, 하나님을 떠난 북왕국은 큰 위기에 처합니다.
6/25(176일) 왕하17~18:12	히스기야의 개혁	여로보암의 길로 달려왔던 북왕국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는 개혁을 시작합니다.
6/26(177일) 사1~3	이사야의 소명	남유다에 보내진 이사야의 소명은 당시 만연한 사회의 죄악들에서 백성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가는 것이었습니다.
6/27(178일) 사4~7	그루터기 비유	하나님께서서 이사야를 통해 ‘거룩한 씨’, ‘그루터기’ 등의 비유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역사를 이어가실 희망의 청사진을 보여주십니다.
6/28(179일) 사8~12	구원에 대한 약속	유다의 죄악으로 인해 그들을 멸하겠다고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진노의 날이 지난 다음에는 구원의 대로를 준비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6/29(180일) 사13~17	이방 나라들에 대한 경고	바벨론과 앗수르, 모압과 아람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로 온 세계를 경영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6/30(181일) 사18~20	애굽과 구스에 대한 경고	벌거벗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은 애굽이나 구스가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남유다에 간절히 당부하십니다.
7/1(182일) 사21~24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는 하나님의 심판 선언은 곧 남유다 백성이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7/2(183일) 사25~29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남유다를 향해 탄식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희망을 놓아버린 그곳에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선포하십니다.
7/3(184일) 사30~35	의로 통치하는 왕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인류를 공의롭게 통치하고 정의로 심판하시며 의로 다스릴 한 왕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7/4(185일) 왕하18:13~37, 사36	남유다를 위협하는 앗수르	예루살렘을 에워싼 앗수르의 장수 랍사게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의뢰하기로 결심합니다.
7/5(186일) 왕하19, 사37	히스기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구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큰 위기 가운데에서 건져주십니다.
7/6(187일) 왕하20, 사38~39	히스기야의 병과 회복	히스기야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 생명을 연장 받는 은혜를 누리지만, 자신을 찾아온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스스로를 자랑합니다.
7/7(188일) 사40~42	하나님의 위로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아브라함을 벗이라 부르시며 야곱을 택하여 부르셨던 하나님뿐입니다.
7/8(189일) 사43~45	이스라엘의 회복	많은 죄악을 저지른 그들을 연단시켜 하나님의 민족으로 다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이스라엘에게는 참 소망이 있습니다.
7/9(190일) 사46~50	이스라엘의 구원	하나님은 열방의 압제를 받는 남유다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은 물론이요, 이 땅의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7/10(191일) 사51~55	고난 받는 중	건축자의 버린 돌 같은 구원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모퉁이의 머릿돌을 삼으실 것이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7/11(192일) 사56~59	참된 회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은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 맘을 흘리며, 그분을 사모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려는 삶의 자세입니다.
7/12(193일) 사60~63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이스라엘의 환난에 동참하시며 그들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십니다.
7/13(194일) 사64~66	영광과 평화의 청사진	하나님께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 후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과 영광을 약속하십니다.
7/14(195일) 미1~3	영광이 빠져버린 시온 산성	미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이 넘쳐날 거룩한 도시에서 이스라엘이 그에 합당한 백성으로 사는 놀라운 계획을 선포합니다.
7/15(196일) 미4~7	영광이 회복될 시온 산성	미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이 넘쳐날 거룩한 도시에서 이스라엘이 그에 합당한 백성으로 사는 놀라운 계획을 선포합니다.
7/16(197일) 왕하21~23	왕정 총결산	므낫세 통치 시절,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왕정의 폐해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5백 년 왕정을 총결산하는 시점이 다가옵니다.
7/17(198일) 습1~3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역사의 어두움 속에서도 겸손히 하나님을 찾으며 공의와 정의를 구하는 의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7/18(199일) 합1~3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크신 경륜 가운데 세계를 움직이시며 그 가운데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기쁨의 찬양이 넘쳐 나옵니다.
7/19(200일) 나1~3	열방을 향한 공의	요나를 통해 회복의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죄악과 포학을 행하던 앗수르 제국을 향해 엄중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7/20(201일) 을1~3	마음을 찢으라	임박한 여호와의 날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해야 할 생명의 길은 진실로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7/21(202일) 왕하24렘1~3	남유다에 대한 설득과 심판	심판이 확정되어 멸망의 문에 점점 다가서고 있는 남유다에, 예레미야가 마지막 설득을 위해 보냄을 받습니다.
7/22(203일) 렘4~6	패역한 남유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막을 만한 의인 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남유다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토로하십니다.

7/23(204일) 렘7~9	주의 계명을 떠난 이스라엘	회개할 줄 모르는 백성, 하나님을 떠나 돌아오지 않는 백성을 향해 예레미야는 마음을 찢는 아픔을 호소합니다.
7/24(205일) 렘10~13	약속을 깨뜨린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특권과 사명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불순종의 결과를 책임져야 합니다.
7/25(206일) 렘14~16	마음을 돌이키라	거짓을 행하며 헛된 것을 좇았던 죄악을 인정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날, 비로소 이스라엘은 어둠을 밝히는 환한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7/26(207일) 렘17~20	남유다의 죄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고, 인신제사의 풍습까지 자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남유다의 현재 모습이었습니다.
7/27(208일) 렘21~23	예레미야의 설득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달게 받으면서, 조상 적부터 반복하고 있는 죄악을 회개하라고 간절히 설득합니다.
7/28(209일) 렘24~25	바벨론 1차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실 하나님께서서는 포로로 끌려가는 이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하십니다.
7/29(210일) 렘26~28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는 예레미야	거짓 선지자들은 고난 없는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거짓 예언이었습니다.
7/30(211일) 렘29~31	끌려간 남유다 백성에 대한 설득	예레미야는 포로기간이 70년이며,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바벨론으로 끌려간 백성에게 편지로 전합니다.
7/31(212일) 렘32~33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	이스라엘이 비록 지금은 바벨론의 억압 아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8/1(213일) 렘34~36	포위 중 항복을 위한 설득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위된 상황에서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설득합니다.
8/2(214일) 렘37~38	예레미야의 수난	자신의 아픔보다도 하나님의 아픔에 더 귀를 기울였던 예레미야는 고된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고 진실되게 전합니다.
8/3(215일) 왕하25, 렘39~41	예루살렘 멸망	스스로 심판을 자초한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결국 포로로 끌려가는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합니다.

8/4(216일) 렘42~45	남겨진 남유다 백성의 행동	징계를 달게 받아야 할 남유다 백성이 애굽으로 도망하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또 다른 불순종이었습니다.
8/5(217일) 렘46~48	열방에 대한 심판	하나님은 모든 족속의 주인으로서 열방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는 분이시며, 우리의 모든 생각과 경험을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8/6(218일) 렘49~50	세계를 향한 심판	암몬, 에돔, 데만, 다메섹 등 수많은 나라들에 대한 심판 선언 가운데에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관심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8/7(219일) 렘51~52	하나님의 심판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과 남은 자를 통한 회복을 통해 구원을 위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진행하십니다.
8/8(220일) 애1~2	무너지는 예루살렘	하나님과의 만남의 상징이자, 생명의 상징인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며 예레미야가 흘리는 눈물은 곧 하나님의 눈물과도 같았습니다.
8/9(221일) 애3~5	소망-주의 인자와 공휼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을 알기에, 예레미야의 깊은 중심에는 진정한 소망이 움트고 있습니다.
8/10(222일) 읍1	형제가 환난 당하는 날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날, 형제의 환난을 슬퍼하기보다는 오히려 즐거워했던 에돔 족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됩니다.
8/11(223일) 대상1~3	다윗의 계보	이스라엘의 장구한 역사가 담긴 계보를 읽으며, 그 긴 역사의 길을 연약한 인생들과 함께 묵묵히 동행해주신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8/12(224일) 대상4~5	이스라엘의 족보들 1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유다 자손에 대한 야곱의 유언이 현실이 된 것을 족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8/13(225일) 대상6~9	이스라엘의 족보들 2	족보에 기록된 수많은 이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신 흔적이자 은혜의 통로였고,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는 길이었습니다.
8/14(226일) 대상10~12	왕이 된 다윗과 그의 용사들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여 이스라엘을 하나님 중심의 신앙공동체로 세워갑니다.
8/15(227일) 대상13~16	언약궤의 예루살렘 안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날, 다윗은 즐겁게 춤을 추며 온 백성이 함께 기뻐합니다.

8/16(228일) 대상17~20	다윗의 기도와 승전기록	다윗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께서서는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다윗을 늘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8/17(229일) 대상21~22	다윗의 죄악과 회개	국가의 발전을 자신의 업적으로 삼고 싶은 유혹에 인구조사를 시행했던 다윗은 잘못을 깨닫고 곧바로 회개하며 엎드립니다.
8/18(230일) 대상23~26	다윗 시대 직분자 계보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세운 다윗은 나라의 영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담당할 이들을 세웁니다.
8/19(231일) 대상27~29	다윗의 내각과 성전 건축 준비	다윗은 다음 대를 위하여 현명한 이들로 전체 내각을 구성하고,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들을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8/20(232일) 대상1~4	솔로몬의 성전 건축	다윗에 의해 다져진 나라의 기틀과 국가적 리더십이 솔로몬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위대한 역사가 진행됩니다.
8/21(233일) 대상5~7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솔로몬은 성전과 모든 기구들을 준비한 후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며 성전 낙성식을 행합니다.
8/22(234일) 대상8~9	솔로몬의 업적	하나님께 지혜를 선물 받고 아버지로부터 튼튼한 국가를 물려받은 솔로몬은 선대의 신앙과 제도를 계승하여 많은 업적을 남깁니다.
8/23(235일) 대상10~13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열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나라는 분열되고, 이제 남북왕국은 선한 경쟁을 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서야 합니다.
8/24(236일) 대상14~17	남유다 왕국의 초기 왕들	통치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 아람을 의지했던 아사와 달리, 그 아들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로 행하며 내부 개혁을 추진합니다.
8/25(237일) 대상18~22	여호사밧의 시대	여호사밧은 율법에 기초한 개혁을 시행하고 국가의 큰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였지만 북왕국 왕들과 동맹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8/26(238일) 대상23~25	요아스와 여호야다의 개혁	제사장 여호야다는 살아남은 왕자 요아스를 앞세워 백성의 뜻을 합하고 의로운 정권교체와 신앙개혁을 이루어갑니다.
8/27(239일) 대상26~28	웃시야, 요담, 아하스 시대	하나님 편에 선 정치를 행했던 웃시야 및 요담과 달리, 아하스는 앗수르와 이방신들의 도움을 구하는 악을 행했습니다.

8/28(240일) 대하29~31	히스기야의 개혁정치	히스기야는 성전 복구와 유월절 예식의 회복을 통해, 우상숭배로 만연했던 남유다를 개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웁니다.
8/29(241일) 대하32~33	히스기야의 회개와 므낫세의 죄악	므낫세는 부친 히스기야의 모든 개혁을 수로로 돌리고, 백성으로 하여금 악을 행하도록 미혹하였습니다.
8/30(242일) 대하34~36	요시야 시대와 남유다 멸망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기반으로 개혁을 단행한 요시야의 선정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마지막 최후를 맞이합니다.
8/31(243일) 겔1~3	파수꾼으로의 부르심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에스겔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당신의 뜻을 전달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9/1(244일) 겔4~7	남유다에 대한 징계와 심판	하나님께서서는 에스겔을 통해 여러 상징적 행위를 보여주시며, 남유다에 대한 징계와 그 안에 숨겨진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9/2(245일) 겔8~11	예루살렘의 죄악과 심판	에스겔을 통해 바벨론 땅의 유다 백성에게 전해지는 예루살렘의 죄악상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견하게 합니다.
9/3(246일) 겔12~14	하나님을 배역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허탄한 묵시와 아첨하는 복술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인고의 세월을 뺀 거짓 평강을 전합니다.
9/4(247일) 겔15~17	하나님을 등진 예루살렘	유다 백성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따라야 하는데도, 죄로부터 돌이키려는 회개의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9/5(248일) 겔18~20	심판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에서 떠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기로 결단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9/6(249일) 겔21~22	심판받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대언자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죄악을 지적하며 그 마지막을 예측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이 받을 벌을 선고합니다
9/7(250일) 겔23~24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임한 심판	죄악에 물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끝내 하나님의 권유와 설득을 듣지 않고 앗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합니다.
9/8(251일) 겔25~28	이스라엘 주변 민족에 대한 심판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믿은 교만한 나라들은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9/9(252일) 겔29~32	애굽에 대한 심판	애굽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욱 겸손해야 했지만 오히려 교만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9/10(253일) 겔33~35	예루살렘의 함락	포로로 끌려와 예루살렘의 멸망 소식을 들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라고 참된 희망의 근원을 말씀해드립니다.
9/11(254일) 겔36~37	다시 회복될 이스라엘	마른 뼈와 같이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생명의 기운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9/12(255일) 겔38~39	침략자 곡에 대한 심판과 멸망	하나님은 곡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이방 땅에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높은 이상을 보여드립니다.
9/13(256일) 겔40~41	환상 중에 본 새 예루살렘	새롭게 재건될 성전의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9/14(257일) 겔42~43	하나님의 본뜻	새로운 성전의 식양과 제사 제도에는 이스라엘을 다시 구별하여 거룩하게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9/15(258일) 겔44~46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찬 성전	새 이스라엘을 꿈꾸며 기대에 찬 계획을 제시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직분 맡은 자들의 사명도 명시하십니다.
9/16(259일) 겔47~48	회복과 새로운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의 구획이 정해지는 장면들은 이스라엘이 새로이 소생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17(260일) 단1~2	바벨론 제국에서의 위인	포로의 신분임에도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하여 결연한 선택을 하는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제국에 전해집니다.
9/18(261일) 단3~4	꺾이지 않는 신앙	생명의 극한 위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의 친구들이 보여준 것은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참 믿음이었습니다.
9/19(262일) 단5~6	제국 변천의 중심에 서서	제국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변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다니엘은 균형 잡힌 영성과 사회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9/20(263일) 단7~9	다니엘의 환상과 해석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나라들과 제국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꿈과 계시를 통해 보여드립니다.

9/21(264일) 단10~12	장래의 일들	세계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역사와 현실에 간섭하신다는 믿음은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힘을 공급해줍니다.
9/22(265일) 스1~2	다시 태어나는 공동체, 재건세대	출페르시아와 성전 재건이라는 중차대한 사명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 이들이 힘을 합해 고국으로 귀환합니다.
9/23(266일) 스3~4	성전 건축의 기초를 놓다	70년 전 바벨론 군대의 말발굽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이 비로소 재건축되기 시작하고 기초가 놓입니다.
9/24(267일) 학1~2	우선순위를 기억하라	성전 건축 작업은 난관에 부딪쳐 있지만, 학개의 메시지를 들은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겠다는 자세로 바뀝니다.
9/25(268일) 스1~6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절망스러운 현실 앞에서 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성곽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시며 소망과 비전을 주십니다.
9/26(269일) 스7~10	예루살렘의 회복	예루살렘 거리와 성읍이 회복되며 하나님께서 성실과 정의로 그곳에 거하시겠다는 약속은 귀환공동체에 더없이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9/27(270일) 스11~14	이스라엘의 구원	끝까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끝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이스라엘을 불드시며 그 품에 안아주십니다.
9/28(271일) 스5~6	성전 재건의 기쁨	학개와 스가라의 책망과 격려를 통해 다시 힘을 얻은 백성은 드디어 성전 재건을 완성하고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9/29(272일) 에1~5	유다 민족의 위기	유다 민족이 멸절될 급박한 위기 앞에서 왕후 에스더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혜롭게 민족 구원의 계획을 세우고 실행합니다.
9/30(273일) 스6~10	위대한 구원	유다 백성에게 가장 비극적인 날로 기억될 뻔 하였던 아달월 십 삼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과 승리의 절기인 부림절이 되었습니다.
10/1(274일) 스7~8	에스라의 결심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백성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제사장 에스라는 그 사명을 마음에 품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10/2(275일) 에9~10	개혁을 위하여	민족의 죄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 회개하는 에스라의 기도를 시작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에 기반한 개혁의 주춧돌이 놓입니다.

10/3(276일) 느1~3	최종목표를 위한 중간목표	동족의 형편을 물을 줄 알았던 느헤미야는 황폐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최종목표를 위해 중간목표를 세웁니다.
10/4(277일) 느4~7	성벽 재건을 위한 열심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느헤미야의 리더십, 그리고 함께 땀 흘리며 수고한 백성의 노력으로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됩니다.
10/5(278일) 느8~10	초막절을 기념한 신앙사경회	예루살렘 성벽 건축 후 에스라와 예루살렘 성벽의 봉헌식은 약자들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10/6(279일) 느11~13	하나님의 기쁨과 이웃의 기쁨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재건된 예루살렘 성벽의 봉헌식은 약자들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10/7(280일) 말1~4	천오백 년의 사랑의 아쉬움	천오백 년간 이스라엘을 향해 변함없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백성의 무관심과 무지로 인해 거절당하고 맙니다.
10/8(281일) 마1~4	약속의 결정체, 예수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온 인류 구원의 약속을 실현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10/9(282일) 마5~7	산상수훈	예수님의 산상수훈, 이 보배로운 말씀은 진정으로 누가 복 받은 사람인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하여 말씀의 실천에 대한 강조로 마무리됩니다.
10/10(283일) 마8~10	예수의 이적과 열두 제자 선택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심은 물론, 앞으로 함께할 열두 제자를 선택하십니다.
10/11(284일) 마11~13	하늘 비밀을 담은 일곱 가지 천국비유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들 속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깊은 지혜와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10/12(285일) 마14~16	예수의 갈릴리 사역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많은 기적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약한 이웃들을 사랑하기 위한 그분의 방법이었습니다.
10/13(286일) 마17~20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생각으로 다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가 가장 큰 자라는 천국의 원리를 강조하십니다.
10/14(287일) 마21~23	예루살렘 입성과 예수의 설득	스가랴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은 대적하는 무리가 던지는 질문들에 지혜롭게 대처하십니다.

10/15(288일) 마24~25	종말에 관한 설교	예수님께서서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에 대해 알려주시며, 늘 깨어 있어 하루하루를 주님의 가르침 위에서 살아가라고 당부하십니다.
10/16(289일) 마26~28	용서를 향한 예수의 열정	사람들에 의해 붙잡히고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인류 구원의 역사가 성취됩니다.
10/17(290일) 막1~3	열두 제자 선택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열두 제자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치시며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10/18(291일) 막4~6	예수의 이적과 가르침 1	예수님은 아무런 대가 없이 수많은 이적들을 베푸셨으며, 수많은 무리 속에서도 한 영혼의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10/19(292일) 막7~8	예수의 이적과 가르침 2	자신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찾아다니시며 시간과 정성을 쏟으신 예수님께서서는 치유의 이적을 베푸시며 사랑을 실천하십니다.
10/20(293일) 막9~10	변화산 사건과 예수의 가르침	변화산에 오르셨던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말씀해주시지만, 제자들은 아직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10/21(294일) 막11~13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과 대결	갈릴리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오신 예수님께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최후의 사명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10/22(295일) 막14~16	최후의 만찬과 십자가 사역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고 고통스런 십자가를 지셨으나, 죄 없으신 예수님은 말씀대로 삼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10/23(296일) 눅1~2	세례 요한 탄생	하나님을 사모하는 두 여인, 엘리사벳과 마리아를 통해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사건이 시작되는 중요한 문이 열리게 됩니다.
10/24(297일) 눅3~4	구원 사역을 위한 기초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으로써 인류 구원의 사역을 준비하십니다.
10/25(298일) 눅5~6	훈련과 동행	예수님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들을 제자로 선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열두 명의 제자들은 집중적으로 예수님께 훈련을 받습니다.
10/26(299일) 눅7~8	예수의 치유와 가르침	예수님께 다가왔던 가난한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의 마음은 좋은 땅과 같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결실을 맺어갑니다.

10/27(300일) 눅9~10	약한 자의 이웃	예수님은 믿음이란 섬김을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친히 약한 자의 이웃이 되는 삶을 본으로 보여주십니다.
10/28(301일) 눅11~13	예수의 가르침과 이적	가난한 자와 부요한 자, 남녀노소를 막론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로로 값진 구원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10/29(302일) 눅14~16	한 영혼 사랑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	죄인 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목자의 마음과 같습니다.
10/30(303일) 눅17~18	예수의 치유과 교훈	예수님을 시험하려 한 바리새인들의 의도는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 앞에 꺾이고 오히려 자신들의 무지만 드러내게 됩니다.
10/31(304일) 눅19~20	약자를 위한 배려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을 찾으시는 예수님, 그분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온 정성을 다하시는 분입니다.
11/1(305일) 눅21~22	최후의 만찬	예수님은 장차 다가올 고난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예고하시며, 그들이 인내하고 참아 견디어 마침내 승리할 것을 부탁하십니다.
11/2(306일) 눅23~24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부활 후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분의 고난과 부활이 예언의 성취임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11/3(307일) 요1~3	들러리의 기쁨	인생들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세례 요한은 그분의 오실 길을 기쁨으로 준비합니다.
11/4(308일) 요4~6	영원한 생명수이신 예수	우물가로 나온 사마리아 여인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주시는 예수님, 그분은 모든 인생들의 생명수가 되십니다.
11/5(309일) 요7~8	죄인을 감싸주시는 예수	죄인을 감싸시는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답은 불의한 자들의 계락을 뛰어넘어 오히려 시험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11/6(310일) 요9~11	선한 목자이신 예수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각오로 사랑해주시며 자신의 사역을 성실히 수행하고 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11/7(311일) 요12~13	새 계명을 주심	제자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새 계명을 주십니다.

11/8(312일) 요14~15	예수의 고별설교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신 이후에 자신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이 제자들에게 강림하리라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11/9(313일) 요16~17	제자들을 위한 예수의 기도	십자가를 눈앞에 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을 주신 후, 하나님께 그들을 위탁하며 기도하십니다.
11/10(314일) 요18~19	예수의 십자가 사역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도의 죽으심으로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11/11(315일) 요20~21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의에 빠진 제자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남기십니다.
11/12(316일) 행1~2	증인이 된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소망과 사명을 주시며 성령을 약속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할 것을 명하십니다.
11/13(317일) 행3~5	세워지는 초기교회	성령 받은 제자들에 의해,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됩니다.
11/14(318일) 행6~9	그리스도인 핍박과 열방을 향한 흩어짐	박해를 피해 흩어진 초기교회 성도들의 발걸음을 통해 복음은 더욱더 넓은 지역으로 전파되어 갑니다.
11/15(319일) 행10~12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베드로는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 비로소 선민의식을 깨고 복음이 만민을 위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11/16(320일) 행13~15:35	1차 전도여행과 예루살렘 공의회	바나바와 바울을 주축으로 이방인을 향한 본격적인 전도사역이 시작되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를 공인합니다.
11/17(321일) 행15:36~18:2 2	2차 전도여행	바나바와 헤어진 바울은 새로운 동역자들과 함께 마게도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많은 핍박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11/18(322일) 살전1~5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	바울은 고난 중에도 신실하게 복음을 좇는 데살로니가교회에 칭찬과 기쁨의 편지를 보내며 아버지의 심정으로 권면합니다.
11/19(323일) 살후1~3	수고하여 구원을 이루어가라	주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마음의 중심을 잃고 일상에서 일탈한 자들에게 바울은 책임 있는 삶에 대해 교훈합니다.

11/20(324일) 갈1~3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	거짓 진리에 휩쓸리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됨을 강조합니다.
11/21(325일) 갈4~6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바울은 믿음을 통해 얻은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사랑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고 가르칩니다.
11/22(326일) 행18:23~19	3차 전도여행	바울은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소망 가운데, 에베소에 2년간 머물며 집중적으로 복음의 일꾼들을 세워갑니다.
11/23(327일) 고전1~4	십자가의 도	고린도교회 내에 있는 분쟁에 대한 소식을 들은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십자가 복음의 능력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될 것을 권면합니다.
11/24(328일) 고전5~8	교회를 위한 권면	바울은 공동체 안에서 습관적으로 행해지는 죄악은 단호히 잘라내고, 이웃과의 관계는 겸손과 사랑으로 세워가라고 충고합니다.
11/25(329일) 고전9~11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바울의 당부	복음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바울, 그의 이러한 실천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11/26(330일) 고전12~14	성령이 주신 은사	은사는 여러 가지이지만 결국 그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쓰임은 교회 내의 화목과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11/27(331일) 고전15~16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보	바울은 부활을 소망하며 구별된 삶을 살자고 강조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독려합니다.
11/28(332일) 고후1~4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통로입니다.
11/29(333일) 고후5~9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삶	성령의 감화 가운데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수행하며, 상황과 형편을 넘어 섬김에 앞장서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11/30(334일) 고후10~13	바울의 참된 자랑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며,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워가라고 권면합니다.
12/1(335일) 행20:1~6	롬1~3 복음에 빛진 자	예수의 이름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보물이라는 것을 확신한 바울은 자신이 그 귀한 복음에 빛진 자라고 고백합니다.

12/2(336일) 롬4~7	은혜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	죄인 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예수님의 생명, 그 구속의 은총은 모든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12/3(337일) 롬8~11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세상의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12/4(338일) 롬12~14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빛 가운데 거하며,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12/5(339일) 롬15~16	땅 끝 비전과 받음직한 섬김	바울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픈 비전의 사람이며, 성도 섬기는 일을 위한 깊은 배려도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12/6(340일) 행20:7~23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	바울의 동료들은 예루살렘에 가려는 바울을 막았지만, 그는 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담대히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12/7(341일) 행24~26	가이사랴에서의 2년	유대인들의 위협을 피해 가이사랴에 이송된 바울은 그곳에서 2년을 보내고, 황제의 재판을 청구하여 결국 로마에까지 가게 됩니다.
12/8(342일) 행27~28	로마 교인들과의 만남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이 일은 전 세계를 향한 복음 전파의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12/10(344일) 엡4~6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바울은 창세전부터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을 행하라고 권고합니다.
12/11(345일) 빌1~4	고난 중의 기쁨과 감사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운 사람 바울, 그의 기쁨은 복음을 위한 고난과 함께 뉘여 있는 기쁨이었습니다.
12/12(346일) 골1~4	우주이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이십니다.
12/13(347일) 몬1	기적의 편지	예수 안에서 종과 주인이라는 경계를 넘어 형제가 되자고 제안하는 바울의 이 편지는 복음의 능력과 진리를 전하는 기적의 편지였습니다.
12/14(348일) 딤후전1~6	예수의 선한 일꾼	평생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바울은 자신의 뒤를 이어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정성어린 조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12/15(349일) 딤킁1~3	희망의 상속자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여 성도가 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믿음과 희망의 상속자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전합니다.
12/16(350일) 딤풃1~4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라고 부탁합니다.
12/17(351일) 히1~4	오직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인류 구속의 대사역을 친히 감당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시험 받는 이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12/18(352일) 히5~10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예수님은 시공간의 한계를 지녔던 옛 언약을 완성하시고 새 언약의 주인이 되심으로써 이 땅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12/19(353일) 히11~13	삶으로 증거 되어야 할 이름, 예수	믿음의 조상들을 본받아, 예수님을 바라보며 잠시의 고난을 인내할 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12/20(354일) 약1~5	행함, 믿는 자의 움직임	야고보는 교회 안에 참된 이웃 사랑의 실천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강하게 교훈합니다.
12/21(355일) 벧전1~5	소망의 반석	시험과 근심은 잠깐이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성도들에게 주어질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그 모든 괴로움을 넘어서는 영원한 것입니다.
12/22(356일) 벧후1~3	거짓 교훈을 물리쳐라	많은 유혹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의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12/23(357일) 유1	믿음을 위한 투쟁	유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한다는 믿음 안에서, 의와 도를 지키기 위해 힘써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2/24(358일) 요일1~5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에 거하는 자로서, 진실하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로운 삶입니다.
12/25(359일) 요일1, 요삼1	사랑과 진리의 조화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모든 어두움의 일을 벗고, 선한 것을 본받으며, 사랑의 빛 가운데로 들어오라고 권면합니다.
12/26(360일) 계1~3	교회를 위한 성령의 권면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 위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면, 인생과 교회들을 향한 책망조차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선물입니다.

12/27(361일) 계4~7	오직 한 분을 위한 노래와 일곱 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좌에는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으며, 예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가 되십니다.
12/28(362일) 계8~11	일곱 나팔의 심판과 순교자들	준비된 일곱 천사가 각각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닥쳐오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과 함께하십니다.
12/29(363일) 계12~15	하나님의 역사와 위로	박해의 칼날 아래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의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12/30(364일) 계16~18	공의로운 심판과 준비된 미래	하나님께서서는 마지막 심판의 때에 온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며, 홀로 주권자이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12/31(365일) 계19~22	만물에 깃든 하나님의 기쁨	더 이상 눈물과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과 거룩한 성도들이 함께합니다.

## 참고 문헌

## 외국어서적

Waggoner, Brad. *The Shape of Faith to Come: Spiritual Formation and the Future of Discipleship*. Nashville TN: B&H Publishing Group, 2008.

Guthrie, George. *Read the Bible for Life*. Nashville TN: Life Way Press, 2011.

Sweet, Leonard. *Giving Blood: A Fresh Paradigm for Preaching*. Grand Rapids MI: Zondervan, 2014.

Davies, Wayne. *Top 10 Reasons to Read the Bible Today: The Life-Changing Benefits of Daily Bible Reading*. New York: Createspace, 2015.

William J. Baush. *Storytelling Imagination and Fath*. New London CT: Twenty-Third publications Mystic, 1988.

## 번역서적

Alister E. McGrath. *신학이란 무엇인가*. 김기철 역, 서울: 복있는 사람, 2015.

Beckham, William A. *제2의 종교개혁*. 티치코리아 사역팀 역. 서울:NCD, 2002.

Catherwood, Frederick. *마틴 로이드 존스와 그의 독서생활*. 이중수 역. 서울: 양무리서원, 1993.

John R. W. Stott. *성경이란 무엇인가*. 박지우 역. 서울: IVP, 2015.

Lovelace, Richard. *셀교회 전환과 셀리더 세우기*. 김덕수 역. 서울: NCD, 2002.

MacArthur, John. *성경 이렇게 믿어라*. 김태곤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4.

Sherrill, Lewis Joseph. *기독교교육의 발생*. 이숙중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Sweet, Leonard.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이지혜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Sweet, Leonard.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이지혜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Weems, Lovett H. Jr. *웨슬리안 리더십*. 원종국 역. 서울: 도서출판 KMC, 2007.

### 한국어서적

Onebody. *ONE YEAR BIBLE*. 서울: 호산나출판사, 2013.

Onebody. *BIBLE TIME*. 서울: 호산나출판사, 2015.

노우호. *성경통독집*. 서울: 하나, 2007.

노우호. *숲도 보고 나무도 보는 성경통독집*. 서울: 하나, 1999.

두란노 성경출판팀. *연대기 성경*. 서울: 두란노, 2009.

백금산. *성경 이렇게 읽읍시다*.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2.

산업능률대학종합연구소. *지적 사고의 기술*. 서울: 미래의창, 2008.

이연길. *말씀목회 패러다임*. 서울: 쿠파출판사, 2001.

이연길. *이야기식 성경공부 방법*.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5.

조병호. *48시간 역사순 성경듣기*. 서울: 통독원, 2014.

조병호. *마음훈련*. 서울: 통독원, 2015.

조병호. *성경을 통한 기도*. 서울: 통독원, 2015.

조병호. *성경즐기*. 서울: 통독원, 2015.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서울: 통독원, 2009.

조병호. *쉬운성경통독*. 서울: 통독원, 2008.

조병호. *유대인과 패밀리스쿨*. 서울: 통독원, 2015.

조병호. *일년일독 통독성경*. 서울: 통독원, 2008.

조병호. *통 성경학교*. 서울: 통독원, 2015.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서울: 통독원, 2013.

조병호. *통이다 렛즈통*. 서울: 통독원, 2007.

## 논문, 잡지

“Daily Bible Reading Best Predictor of Spiritual Growth.” Congregation Today  
2012년 8월 31일.

“ ‘Let’ s Tong Scriptura’ Seminar.” 당당뉴스 2014년 1월 18일.

“The mistake we all make and the simple experiment that reveals it” the  
guardian, Sunday 9 August 2015.

김영래. “내러포와 기독교교육: 성경교수방법으로서의 내러포 탐구.” 84, 신학과  
세계, 2015, 526-554.

“동양과 서양의 차이.” T Times 2015년 8월 10일.

“소설가 홍석영이 말하는 내 고장 익산시.” 주간경향 2008년 1월 31일.

“오순절 교회의 급성장, 기독교 ‘제3의 물결’ .” 크리스천투데이 2014년 1월  
13일.

오주엽, “중년기 정체성 형성을 위한 이야기 성경공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11.

“원광대 수도권 이전설 배경과 전망, 대학 경쟁력 확보·마음훈련원 양금.” 전북일보  
2013년 11월 4일.

장대영. “이야기식 소그룹 성경공부를 통한 교회 활성화 방안.”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9.

조병호 등 140인. “한국 신학자 140인 서울 선언.” 2008 자료집 성경을 통한  
재정향 2008.

## V I T A

### PERSONAL DATA

Full Name: Kwangseog Y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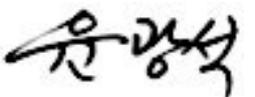
Place and Date of Birth: Wanju-Gun, Jeollabuk-do, South Korea, Dec.19, 1968

Parent's Names: Jinhong Yun and Jeongnin Kim

### EDUCATIONAL INSTITUTIONS

<u>School (Name and Address)</u>	<u>Degree</u>	<u>Date</u>
Secondary: <b>Wonkwang High School</b> 139, Muwangno 31-gil, Iksan, Jeollabuk-do, South Korea	Diploma	Feb. 15, 1987
Collegiate: <b>Kunsan National University</b> 558 Daehakno, Kunsan, Jeollabuk-do, South Korea	B.A.	Feb. 20, 2013
Graduate: <b>Chongshin University and Theology Seminary</b> 110 Hakchonno, Yangji-myeon, Cheoin-gu, Yongin, South Korea	M.Div	Feb. 17, 1998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Signature

Kwangseog Yun

Name typed

May 6, 2016

Date